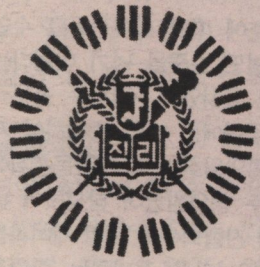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108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3년 2월 28일

김성완 교수(문리대 63년졸) 生命工學의 권위자 美學術院 두 분야 종신회원 피선

生命工學의 선도적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生體高分子, 藥物 전달 분야의 업적으로 많은 學術研究賞을 수상하고 있는 金城完 동문(문리대 화학과 63년졸, The University of Utah 약제학 및 생명공학 석좌교수, 네모안 사진)이 2월 13일 생체고분자 인공장기 이용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미국 工學학술원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終身會員으로 선출되었다. 이 終身會員은 美學術院이 각 專攻학문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적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들 가운데 업적에 따라 사계 동료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

쳐 선정한다. 金박사는 이미 1999년에 藥物 전달과 遺傳子 치료의 先導的인 연구로 美國 科學院 醫學분야 (National Academy of Science, Institute of Medicine) 의 종신회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두 분야에서 美學術院의 종신회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드문 일로서 韓國人的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은 쾌거이다. 金동문은 母校 졸업 후 1969년 유타대학에서 化學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까지 同대학에서 약제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두 별개의 碩座教授로 임명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저명한 전문학술지에 연구논문 500여 편을 발표하였고, 다수의 學術研究賞 - Volwiler Award (Am. Assoc. Col

lege of Pharm.) (2002); Utah Governor Medal of Science (1998); Dale Wurster Award (Am. Assoc. of Pharm. Sci.) (1998); Founders Award, CRS (1995); AAPS Scientific Achievement Award (Am Assoc. Farm. Scientist) (1995); Int'l Soc. Blood Purificent, Research Award (1995); Clemson Basic Biomaterials Award (1988) - 을 수상한 바 있다. 美洲 韓人移民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대 자연과학연구의 첨단분야에서 노벨상을 향하여 (동창회보 92호 2001년 10월 28일자 15면 참조) 묵묵히 연구를 쌓으며 "生命의 冊 (Book of Life)"을 새로 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金동문에게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축하를 드립니다. (투고자 유타동창회 한성양 회장; 金동문 연락처 전화 801-581-6801)

<사진설명> <無我, 鄭元勳(상대 38년 임) 新年題書> 계미년 새해를 맞아 戰雲이 감도는 하수상한 시절에 我執과 獨善을 극복하고 신록의 계절에 世界平和의 회복을 기원하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사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인류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하여 산화한 우주선 콜롬비아 승무원들을 추모하는 텍사스 해변의 추모제단, 정두현(의대 61년졸)

재미총동창회 제12차 정기평의원회 L.A.에서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 8대 회장 선출예정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용락, 공대 53년졸)는 재미동창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평의원회의 12차 정기총회를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 L.A.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된다.

評議員會는 전 20개 미주지역동창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당회계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재미동창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평의원회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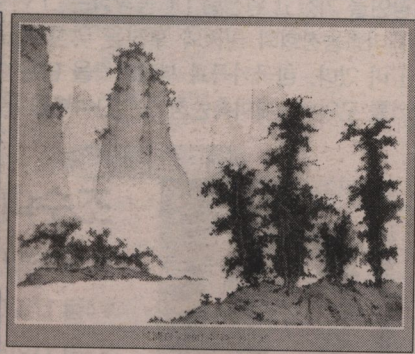
- ▶ 제1일 (2003년 5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前夜 Symposium
- ▶ 제2일 (2003년 5월 31일 토요일): 제12차 평의원회의 (아침 일찍부터 8시-9시 서울총동창회장 초청초찬/ 10시-14시 평의원회의가 있으며 평의원 가족은 LA관광/ 14시-18시 휴식/ 18시-19시 미주관악후원의 밤에는 평의원과 관악후원 이사, 본국순방단이 참석하게 됨Cocktail/ 19시-20시 Dinner/ 20시-20시 30분 회의순서, 내빈 및 참석자 소개 감사장/ 20시 30분-22시 음악의 밤)
- ▶ 제3일 (2003년 6월 1일 일요일): 평의원 및 본국순방단 및 참석동문 골프대회 (장소: Palm Spring 'Mesquite C.C.)
- ▶ 평의원회 종료 후 (2003년 6월 2일 월요일부터 2박3일간) Yosemite 및 King's Canyon 관광하는 일정에 참가하실 수 있음.
- ◆회의장소 및 숙박: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515 Wilshire Bl L.A. CA 90010)
- ◆숙박료는 2주일 전까지 예약시 1박 79불(잠정적)임
- ◆예약전화 213-381-7411

동문의 산물바위나무의 산수화, 無我, 發발한 대이력전쟁에서 동료를 후송하는 병사들, 전쟁발발 전 항공모함 선상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병사의 황홀경, 노재욱 동문의 詩書 Winter Lake(겨울 호수 속에서 담소하는 오리떼)와 정원훈 동문이 남가주 동창회장에서 그린 동문들의

정기자랑의 순간.

목 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눈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8면



<1면 제 12차 정기 평의회에서 계속>
 그 일환으로서 금년에는 작년의 제11차 정기평의회와 전야 심포지움을 통하여 토론한 바 있는 주제, 同門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母校를 한국의 최고대학으로부터 세계적인 선진고등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주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우리 동문들의 조직으로써 미주한인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미주한인 100주년의 해를 맞아 어떻게 구체화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평의회에서는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출하여 2년 후에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8대 집행부를 이끌 지도력을 확보하는 모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7대 집행부를 이끌 수석부회장까지는 재미총동창회 조직초기에 불가피하였던 미주내의 많은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는 4대 도시(워싱턴 DC, 시카고, 남가주, 뉴욕)의 지역동창회가 순번제로 선출되었다. 그 결과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여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웃 자연인들의 친목단체와 같이 지역동창회의 활동에는 열심히 참가하나 재미동문들의 큰 힘을 모으는 총동창회의 일에는 傍觀者적인 분위기(내가 빠진다고 재미서울대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무슨일 있겠나?)와 총동창회 집행부를 담당하지 않는 지역동창회들에 만연한 地域主義(당신들 동창회에서 살림살 차례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나?)가 팽배하여 재미서울대총동창회와 재미서울대동창회보에 그 존립과 존재이유에 큰 위기를 당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평의회의 의사 정족수의 충족여부가 문제시되었는바 금년 평의회는 각 지역동창회에서 보내는 2명 이상의 평의원들이 다 모여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가 有機的인 조직으로 활동하여 우리 동문들과 母校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주한인사회의 봉사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조직의 목적을 재정립할 것이 요

청되고 있다.
 작년 제11차 평의회 개최 당시 66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재미총동창회 본부의 전현직 임원 7명과 각 지역동창회장 19인이 총동창회 부회장으로서 당연직 평의원이며 각 지역동창회 동문들의 숫자에 따라 배분된 1인 내지 5인의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됨), 이번 평의회에는 작년 평의회에 재미총동창회의 21번째 지부로 창설된 캐롤라이나 동창회에서 2명의 평의원이 추가될 것이며 금년초에 창설된 콜로라도 지부와 오하이오 지부에서 각 2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여 평의회에서 정식 지부로 인준됨과 동시에 평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금년 평의회는 그 전야에 작년과 같이 심포지움을 마련하여 미주한인 이민10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의 재미동창회의 조직목표와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전문가 동문을 초청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의 재미총동창회 특별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평의회 공식일정이 끝난 후 금년의 평의회 개최지이며 제7대 집행부(차기회장 오홍조, 차대 56년입)가 이끌 총동창회 본부가 위치할 남가주 지역동창회는 이번 평의회에 참석하는 전미주의 평의원과 가족, 서울총동창회의 순방단, 母校 총장과 재미동창회 순방단 일행을 초청하는 골프대회 및 평의회 이후 2박 3일간의 서부의 名所를 관광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이번 평의회에 각 지역동창회로부터 전체 평의원들께서 참석하시기를 바라며(불가피한 경우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자 참석 가능) 각 참석평의원들은 미리 항공편을 예약하시고 위의 회의장소에 숙박을 예약하시기를 바란다. 자세한 평의회와 관련행사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각 평의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10차 상임임원회의 초록(抄錄) 제12차 평의회 준비를 위한 점검

▣일시: 2003년 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총동창회 사무실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참석자: 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 총무국장, 박영규 감사, 회보 편집인

(관악부회장, 출판국장, 섭외국장 불참)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6대 집행부 상임위원회가 2003년 1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위의 5명의 임원과 회보편집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집행부의 남은 임기 중의 중요과제를 점검하였다. 이용락 회장은 지역동창회 순방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9차 임원회의 이후 북텍사스 지역동창회 총회 (2002년 12월 8일, 달라스)에 참석하여 지역동문들을 격려하고 이병규 회장에게 지역동창회를 역동적으로 이끈 공로로 재미총동창회가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회보 104호 및 106호 참조) 동창회 총회를 위하여 당시 발간된 동창회보(105호) 40부 및 총동창회 기념품 골프모자 40개를 지원하였다. 이어 미주의대동창회 송년총회(2002년 12월 12일)에 정정수 미주의대동창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하여 미주의대동창회의 동창회보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또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 창립총회(2003년 1월 26일, 덴버)에 참석하여 동문들을 격려하였고 새로운 동문들을 위하여 동창회보 100호에서 106호까지 40

명분과 기념품, 시계 25명분을 전달하였으며 록키마운틴즈 동창회는 동창회보 특별지원금 \$300을 보내왔다고 하였다. 오는 3월 2일 오후 5시에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열릴 오하이오 지역동창회 창립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어 구경희 사무총장 사회로 지금까지 회무를 점검하였다. 구사무총장은 사무실에서는 연말연시에 평의원 및 관악후원회 이사들에게 신년인사장과 서울총동창회에서 발행한 수첩 120개를 발송하였고 또 관악후원회 이사비 모금문 150매를 발송하였으며 전년도 후원회비출연자에 대하여 세금보고용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곧 IRS와 일리노이주에 제1차년도 비영리기관 세금보고서를 완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현일 재무국장은 제7대 집행부와 인계인수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악후원의 종신이 사비를 모두 별도 적립하여 두었으나, 금년도에 출연이 격감된 미주관악후원이사회비와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평의회에서 결정하여 각 지역동창회에 배정된 회보 발행 지원금과 서울총동창회에 보낼 재미총동창회의 기여금(\$11,000)의 모금이 극히 저조하므로(당시 뉴욕, 휴스턴, 오레곤, 지부만 납부, \$3,800) 이 문제에 대한 각 지역동창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도도 주소변동과 별세로 인한 동문 숫자

의 감소에 따라 회보구독료 수입도 전년도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김정주 총무국장은 금년에는 미리 준비하여 제12차 평의회가 각 지역동창회에서 모두 평의원들이 참석하여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미총동창회 12년간을 정리하는 편람을 발간하는 문제도 평의회 전까지 완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과 총무국장이 평의원명부 확정, 전년도 회의록 점검 및 발송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용락 회장은 오홍조 수석부회장에 작년도 평의회에서 결의한 미주한인백주년 관계 재미서울대총동창회의 사업목적과 관련하는 결의문을 기초하는 작업을 위임하였고, 이 초안을 토대로 평의회의 의제로 심의하여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박영규 감사는 세무보고와 회계보고서가 완결되는 대로 다음 집행부인 남가주 지역의 총동창회 감사의 검토를 거쳐 평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거리관계로 연락이 많지 않았던 차기집행부를 이끌 오홍조 수석부회장과 제12차 평의원의 개최를 앞두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남은 기간동안의 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후 9시경 산회하였다.

조수미 동문 미주순회 공연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조수미동문(음대)이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북미주 7개 도시에서 미주중앙일보 주최로(지역에 따라 서울대지역동창회와 공동주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공연을 갖게 된다. 조동문은 2001년 8월에 워싱턴 DC에서 워싱턴DC 동창회가 주최한 공연을 가졌고 워싱턴 DC동창회는 그 연주실황을 CD("Love from Washington")로 제작하여 재미총동창회의 母校와 후진을 위한 기금과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발간기금으로 500개를 출연한 바 있다. 한국가곡과 서양가곡을 담은 이 CD는 음악회를 참관하지 못한 많은 동문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재미총동창회는 잔여분을 우편 판매하고 있다.

조수미 미주공연 일정

- ♥4월 13일(일) 羅城 (Music Center)
- ♥4월 17일(목) 뉴욕 (Carnegie Hall)
- ♥5월 11일(일) 시카고 (Chicago Orchestra Hall)
- ♥5월 13일(화) 덴버 (Denver Performing Art Center)
- ♥5월 16일(금) 벤쿠버 (Orpheum Theatre)
- ♥5월 18일(일) 桑港 (Flynt Center)
- ♥5월 24일(토) 워싱턴 DC (George Mason Univ.)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구독료 청구서". 5000여명의 동문들의 주소를 정비하여 동문

들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청구서"를 전부 발송하기 위해서는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문들께서 주소 변경시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새주소를 알려주시면 행방불명되는 동창회보로부터 생기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母校音大 순회연주단 금년도 공연계획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작년 8월 2주 동안 미주 8개 도시에서 9번의 공연을 갖고 탁월한 신진기에 (新進氣銳)의 和音을 선사하여 2,500여 명의 참석 청중들로부터 기립갈채의 환영을 받은 母校音大 순회연주단의 공연이 母校와 재미 동문들간의 유대와 친목을 강화하고 미주사회에 母校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서 큰 성공을 거둬 따라 이를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고자



작년 공연에서 축하가를 연주하는 이시림 동문

추진하고 있다. 이용락 총동창회장은 지난 2월 초 모교의 정운찬 총장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임광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음악회가 금년도도 연례행사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요경비의 확보가 과제이다. 작년 미주순방단의 공연에는 母校와 총동창회가 3,000만원의 항공료와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각 지역동창회가 공연을 준비하고 주관하여 9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李회장은 3월 중 母校와 총동창회를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음악회를 다시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년도 母校音大 연주단의 순회연주회를 주관하기를 원하는 지역동창회는 재미총동창회로 공연주관사를 밝혀주시고 재미총동창회는 각 해당 지역동창회가 우수한 연주장 확보 및 연주단의 지역내의 숙박문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금년도도 성공적인 음악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록키마운틴즈 동창회동문들 동창회보발간 특별성금 보내오다

미서부대륙의 大韓인 록키산맥의 同門들이 모여 발족시킨 록키마운틴즈 동창회(회장 김봉전, 공대 68년입)는 창립총회 후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지원금 \$300을 보내온 후 이미 금년도 회보구독료를 납부 한 바 있는 류광현 동문(문리대 58년입)과 6명의 동문들이 회보구독료 \$500 (1년회보 구독료 60불)을 함께 보내왔다. 재미서울대동창회보 편집진은, 일반 동문들의 無關心 ("서울대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내가 빠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과 지역동문들간의 친목행사 외에 7천여 명의 미주 동문들의 뜻을 함께 모으는 사

업에는 아랑곳없는 地域主義 ("회장 맡은 지부에서 총동창회 살림 살텐데... 우리는 몰라") 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회보발간을 위하여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준 록키마운틴즈 동창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용있고 격조있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를 발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구독료 납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성주(\$120, 공대 47입), 왕경자(음대54년입), 배병욱(음대 58년입), 류광현(문리대 58년입, 추가구독료, \$100); 김봉전(\$100, 공대 68년입), 최덕상(농대 73년입)

재미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시는 미주관악후원회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在美서울대 同窓會報 발간을 지원하는 금년도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지난해 6월로 지령 100호를 기록한 재미서울대동창회보가, 주소가 확인된 미주전역의 전체 동문들과 캐나다 및 서울 총동창회의 동문에게 중단없는 발간 배포를 전체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로 참여하셔서,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간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아래의 同門들과 지역동창회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동창회보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금까지 출연된 종신 이사비 24명분 \$69,000을 별도 적립하였습니다. 알차고 격조있는 동창회보 발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母校와 後進을 위한 百萬弗基金 현황보고

"母校와 後進을 위한 百萬弗基金"의 내역과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재미서울대동창회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基金의 정확한 내역은 在美同窓會의 회계 속에 포함되어 매년 6월 30일 현재로 결산이 되고, 감사를 받은 후 평의회에 보고되고, 인준 후에 재미동창회보에 결산서류가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공식보고를 간단히 풀이해 설명드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우선 募金면에서는 129 명의 동문들로부터 현금 \$547,597을 기부받았고, 이 외에 8명의 동문들의 약정액 중 미 불입액 \$119,000을 포함하면 현금 모금액은 \$666,5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 아닌 독지가 한 분은 NASDAQ 上場社인 Silicon Image Inc. 주식 10,000株를 기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결산상의 시가는 \$61,200이고, 2003년 2월 26일 시장가격은 \$53,900입니다. 이 외에도 同窓會報에 발표된대로 다섯분의 동문이 基金을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시거나 유증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서 알 길이 없습디만, 최소한 수십만불대로 추정이 됩니다.

위에 열거한 자산을 합하면 基金에 대한 호응은 이미 百萬弗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

그 성과는 매우 감사하고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支卹면에서는 현재까지 5건에 총 \$388,35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말 회계연도에는 총 3건으로 \$330,000 이 공과대학 반도체 연구소를 위한 기금에 출연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상철 동문의 현금출연과 한 동문의 동업인이 기증한 Silicon Image Inc. 주식출연과 관련 본인들의 희망을 참작하여 집행한 금액입니다. 같은 원칙 하에 간호대학 장학기금과 공과대학 화공과 장학기금으로 각각 \$13,000 과 \$1,750 이 지출되었습니다.

2002 회계연도에는 모교의 "大學新聞"의 재학생 기자 3명의 미국 내 유수대학 방문취재를 위한 항공여비 지원을 위해 \$3,600 이 지출되었고, 모국 總同窓會에서 후진 재학생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특지장학금을 위해 \$40,000을 기증받아 그 금액을 출연자의 희망을 참작하여 서울 總同窓會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동안 基金운영을 위한 費用은 오직 基金口座 銀行의 수수료뿐이며 이 基金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문들과 외부기관들의 도움으로 基金운영을 거의 비용없이 하고 있습니다. 基金 회계와 口座관리는 동문 李慶林 계리사(商 64입)가 무료로 봉사하고 있고, 株式 관리를 위한 Salomon Smith Barney,

nc. 동창회 구조는 基金 목적을 참작하여 수수료 면제 혜택을 基金설정과 規定 작성들을 위해 필요했던 막대한 legal advice와 expense도 동문 金容學 변호사(法 75년졸)와 뉴욕시에 소재한 Curtis, Mallet, Prevost, Colt & Mosel Ltd.에서 각각 무료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7명의 基金管理委員들은 無報酬이며, 상호 연락에 필요한 통신, 사무, 회의비용 등 제반 비용은 委員들께서 각자 개인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基金總殘高는 결산서류에 보고된 바와 같이 \$231,337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금불입액 \$547,597 중 집행액 \$388,350의 차액은 \$195,247입니다. 이 금액과 基金殘高의 차액 \$72,090은 보유株式 \$61,200과 나머지 \$10,890은 그간 銀行利子와 雜收入입니다. 2002년 7월1일 이후 현금 불입액은 재미동창회보에 발표된 대로 \$5,560입니다.

2003년 2월 28일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 위원일동 위원-方恩鎬(약대 45졸), 尹 姪玉(약대 50입), 李丙俊(상대 55입), 吳仁錫(법대 62졸, 위원장), 金秉洙(상대 55입), 任 洛均(약대 62졸), 李龍洛(공대 53졸)

당회계년도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출연하신 아래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춘수(의대 57입), 고영련(사대 57입), 윤재명(의대 65입), 정 태(의대 57입), 조상근(법대 69입), 노명호(공대 61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이경림(상대 64입), 이용락(공대 48입), 장병건(보건대학원 64졸), 변만식(사대 49입), 정정수(의대 56입), 이소정(음대 84입) (각 지부별 개인별 출연현황 30면 참조).

美洲冠岳後援會 理事會 理事명단(2002년 7월 1일-2003년 2월 28일까지 참여자)

◆일반이사 61명◆

이종도(공대 66입), 김상호(사대 56졸), 강상욱(상대 63입), 뉴욕지부동창회, 임춘수(의대 57입), 김정주(문리대 64졸), 박영규(농대 57입), 송재현(의대 48입), 박창만(공대 56입), 워싱턴 지역동창회, 변만식(사대 49입), 신상균(의대 52입), 이영목(공대 59입), 김성열(치대 67졸), 김정훈(공대 46입), 록키마운틴동창회, 뉴잉글랜드동창회, 김재호(상대 56입), 서동영(사범대 60입),

제영혜(가정대 71입), 정원훈(상대 38입), 정유석(의대 58입), 김용학(법대 70입), 소진문(치대 58입), 장기남(문리대 62입), 최호승(사범대 58입), 전현일(농대 62입), 강영국(수의대 67입), 송순영(문리대 52입), 구경희(의대 59입), 시카고지역동창회, 한재은(의대 59입), 이용락(공대 53졸), 엄무광(문리대 61입), 허윤행(사범대 57입), 권승림(공대 52입), 김용건(문리대 48입), 김상순(상대 67입), 현재원(공대 60입), 정정수(의대 56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강경식(문리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준

행(공대 47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운순(의대 5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이진구(농대 60입), 이재덕(법대 60입), 한창섭(문리대 57입), 김기태(의대 58졸), 정승규(공대 60입), 조대현(공대 57입), 박창만(공대 56입), 권철수(의대 68입), 조지아지역동창회, 오덕경(의대 58입), 이상봉(문리대 65입), 이상문(상대 57입), 휴스턴지역동창회

◆종신이사◆

노명호(공대 61입), 이용락(공대 53졸), 오인석(법대 58입), 박윤수(문리대 48입)

잘 때

流岩 金興濟(1895-1968)

은 별이 저, 저 검은 장막사이로 한아, 한아 반득이다.
 또다시 우리들은 헤가림을 잊었다.
 높은 코소리가 잇다금 고요한 暗黑을 흔들며 굴을 망정,
 또다시 우리들은 가죽히 한품에 안겼도다.
 엇더한 길음(稱譽)에 들뜨지도 안이하며,
 엇더한 꼬임에 숨차지도 안이하어,
 오직 한 사랑에 찾도다.
 다 한 融和에 녹았도다.
 -아모 나타나는 意識도 업스며,
 아울러 分割이니, 支配니하는 아모 귀찬은 觀念도 몰으도다.
 우리들은 참, 거죽, 미움, 고움의 世上말에 다, 超越하였도다.
 어도 우리들의 눈이 호자 또다시 自然으로
 情性을 일우기까지는,
 또다시 달은 世界가 굿세인 힘을 보이기까지는.
 우리들의 마시고 따하는 길은 스스로 調和를 잊어나는도다.
 우리들의 사는 脈은 잠잠한 가운데 놀아 간은 波動을 받구어 주는도다.

[편집자주: 내일 삼일절을 맞아 구한말부터 1960년대까지 민족의 고난의 시대를 독립운동, 신진교육 및 근대문예운동의 선각자의 일원이었고 2002년 11월 1일 그 遺骸가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된 流岩 金興濟선생(동창회보 102호, 2002년 8월 28일자 6면-7면 참조)의 시 한편을 여기에 소개한다. 원래 出典은 "잘 때"는 1915년 5월 6일작으로 그 해 6월에 출간된 근대 한국문예지 학지광이었다. 이 시에는 일제하의 암울한 시기에도 진정한 세계평화의 꿈을 담고 있다. "三月一日"은 上海에서 발행된 독립신문 49호(1919년 3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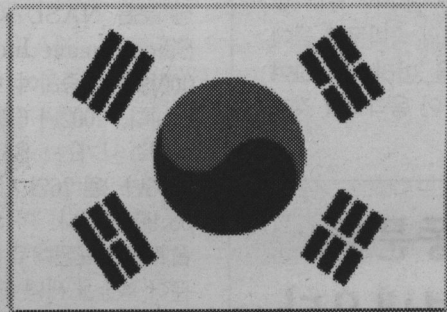
삼일독립선언서 최남선과 함용운이 기초하고 33인의 민족대표자들이 선언하였던 독립 선언서

三月一日

流岩 金興濟(1895-1968)

黃下水 건너 부는 바람	奴隸의 쓰라림
피바람 한숨 바람	壓迫 惡刑 虐待
아아 이날에 數萬의 無辜	아아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倭寇에 倭統에	내 아우 채우든 모양
맞고 죽단말가	내 누의 끌리어 가던 모양
오오 언제나 流血이 끝나리	내 父母의 여인 魂
언제나 끝나리	아아 아직도 이 눈에 암암하다
	죽어도 이 기반(羈絆)은 免하고 말리라
거룩한 싸움 의로운 싸움	이 羈絆은 免하고 말리라千萬番 다시 죽어도
어느덧 一年이로다	獨立은 하고야 말리라
地下的 의로운 英靈	원 天下 다 막아도
鐵窓에 자는 勇士	獨立은 하고야 말리라
그러나 安心하소서	三千里 피우에 뜨고
安心하소서	三千萬 하나도 안 남아도
自由의 햇빛이 正義의 旗幟이	獨立은 하고야 말리라
새 光彩 發할 날 머지 않나니	하고야 말리라
머지 않나니	

이 가슴 뛰는 피 正義의 피
 이 팔뚝 흐르는 피 自由의 피
 이 피를 뿌릴 때
 오오 이 피를 뿌릴 때
 榮光의 無窮花
 다시 피리라
 그리운 祖國江山
 歡喜에 차리라
 歡喜에 차리라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작품은 너무 끝에 불고/김중서.....	11
잘 때, 三月一日/김여제.....	4
건강한 한미동맹 위한 제언/윤영관.....	5
상호주의와 대북한정책 /한정섭.....	6
꿈이 현실로/권이혁.....	7
겨울나무/노재욱.....	7
창조정신과 전통문화/김일훈.....	8
산과 물과 바위와 나무/정두현.....	9
우리들의 초상화를 펴내면서/이영목.....	9
중국고전 시경과 명치유신/한경섭.....	10
파리의 이방인을 읽고/배병욱.....	19
제2차 對日抗戰과 전쟁정치학(號外)	
米國전쟁은 테러로부터 美國의 安全을 지킬 것인가?.....	12
♥ 백순: 對 日抗戰과 기독교의 정당한 전쟁이론[正戰論]에 관하여.....	13
♥ 부시의 開戰宣言.....	13
♥ 유럽은 왜 이 전쟁을 반대하나?.....	15
♥ 제국의 평화의 궤변.....	14
♥ 편가르기/노용면.....	16
♥ 牧童의 傲氣와 외교의 실패.....	16
♥ 美國의 진정한 카우보이정신과 이 戰爭의 문제.....	17
♥ 미국 戰時財政의 문제.....	17
♥ 이 전쟁은 부시외交的 실패.....	12
♥ 비디오 게임이라면/이태상.....	9

민주주의, 여론, 지도력

自然과 人間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과제는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개인들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도모함이며 문필과 논고란 궁극 목표이기도 하다. 철학자들의 논고와 市民들의 고난에 찬 투쟁의 역사를 통하여 성장한 民主主義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에 근접해 갈 수 있는 잠재성이 가장 큰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理性과 利己의 욕구를 지닌 靈肉의 복합체로 된 個人들의 삶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표현된 輿論과 이를 견제하게 수용하며 이 공동체를 바로 이끌 經綸과 현실과 상황에 대한 현명한 指導力의 여부가 그 요체이다. 이 輿論과 지도력의 문제는 길고 지루한 겨울을 거쳐 新綠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7천여 동문가족, 20개 지역동창회를 망라하는 재미서울대총동창회와 7천만 한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 함께 당면한 문제이다.

재미 서울대동창회는 이제 창립 12주년과 미주한인인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同門과 母校의 발전뿐만 아니라 美洲社會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우리들 지성인의 광장을 통하여 지혜와 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골프동창회에 안주한 傍觀主義와 功名心과 내일 없는 근시안적인 地域主義적 遠心力이 만연한다면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와 동창회보는 그 존립의 가능성은 의문시된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民主的이며 有機的인 조직으로서의 서울대총동창회는 꿈인가? 내일 어언 84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으로부터 발원하여 한국민족의 기상을 면면히 이어온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의 물결에 힘입어 출범한 盧武鉉 대통령 정부에게는 세대간의 갈등과 파당적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한국 民主主義를 내실화하며 험난한 국제환경에서 有效한 自主外交를 펴가는 현명한 지도력이 발휘될 것이 기대된다. 蘇聯의 해체에 따른 冷戰종식 후 美國은 그 탁월한 國力으로 인류의 평화공영의 견인차가 될 것이 기대되나 19세기의 帝國主義가 뿌린 유산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해결 지연의 여파로 反人本主義, 反文明적인 9.11 테러사태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아직도 잠재한 테러사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동분쟁의 적극적이고 공평한 해결모색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直視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2차대전 후 세계평화 유지의 근간이 되어온 UN의 集團安保體制를 외면하고 無敵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여 제2차 이라크전쟁을 시작하였다. 궁극적인 이 전쟁의 목적은 미국과 세계를 테러의 공포와 무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 신장의 상승 궤적을 달려오던 인류의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회복할 것인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전쟁의 추이는 韓半島의 평화와 民族統一을 염원하는 우리 同門들에게도 큰 관심사이다. 따라서 이번 호는 2월호의 통상적인 편집 계획으로부터 戰爭과 平和의 문제를 문필과 논고란의 초점으로 바꾸게 되었다. 윤영관과 한정섭은 다른 세대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진정한 "참여"와 "토론폰화국"의 정신으로 민족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며 有效한 自主外交를 펴기를 소망하고 있다. 권이혁은 하나의 지구촌 속에 뻗어가는 한민족의 표상으로서 WHO 사무총장 선출의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김일훈과 한정섭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구호하에 근대화를 추구하여 온 경험들로부터 玉石을 구분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호에 발간한 대이라크전쟁의 문제점에 관하여 백순, 노용면 및 이태상 동문과 미국의 시론들은 각각 다른각도에서 세계평화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우리는 삼일절을 앞두고 1919년 3월 1일 서양 문명의 왜곡된 습득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日帝의 만행에 분연히 곁기하였던 우리 先賢들의 회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도 묵묵히 실천실에서, 산업전선에서 進化하는 새로운 세계문화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우리 동문들의 재미서울대동창회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躍動하는 생명의 계절에는 獨善과 我敎의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창출되기를 기원합니다. 文筆과 論考는 두 달째 발간이 지연된 우리의 논단을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한 韓美同盟 위한 提言

尹永寬(문리대 71년입, 외교통상부 장관)

[편집자주: 이 글은 중앙일보 2003년 2월 14일자에서 전제된 것인데, 집필 당시 필자는 盧武敍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 분과간사였으며 母校 外交學科에서 교수로 재직중이었는데, 그는 2월초 신임 盧대통령 취임 전에 美國의 부시 행정부와 對北韓정책 조율을 위하여 파견되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통령당선자 對美사절단의 일원이었으며 이 글에서 美國 언론의 신한국정부의 北韓정책에 관한 보도의 문제점(참보한 NYT 2월 11일자 보도 참조)과 對北韓政策을 위요한 韓美간의 잠재적인 政策的 葛藤을 어떻게 對處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담고 있다. 尹동문은 Johns Hopkins 대학에서 國際政治經濟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범한 한국정부의 外交通商部長官으로 임명되었다. 편집자는 戰運이 감도는 國際情勢下에서 이번에 출범한 盧대통령의 "참여정부"가 有效한 自主外交를 尹동문의 주도 아래 펼쳐가기를 소망하며 바랍직한 對北韓政策에 대한 우리 동문들의 玉稿를 기다립니다.]

◆國內外 언론에 보도된 사절단 北核발언

최근 노무현 당선자 대미사절단의 활동을 둘러싸고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어찌되었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런 심정이다. 그래서 사절단을 기약했고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쯤 해명을 해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盧당선자를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는 아직 정권을 인계 받은 주체가 아니다. 취임식 직전까지 모든 외교 현안의 구체적 해결권한은 현 정부에 있다. 따라서 사절단의 목표도 당선자의 면모와 정책방향의 소개, 한미 동맹의 강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 전달로 한정했다. 그래서 협상 전문가보다는 당선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비중있는 정치지도자를 파견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동안 총 13개의 모임, 회견,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 및 의회의 모든 핵심 정책결정자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대화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며 위의 세 가지 목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로 달성됐다고 생각된다. 양국 정부의 좀더 집중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어보자는 합의도 그러한 진지한 논의의 산물이었다. 이들 정부의 공식 인사들과의 대화는 정대철 수석대표가 주도했고 의견상의 결례는 없었다. 물론 대화 내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문제는 정부 인사들이 아닌 한반도 민간 전문가들과의 자유스런 의견교환을 위한 비공개 토론편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필자는 북의 핵 보유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1994년처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은 피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다. 실제로 북한과 같은 악한 정권은 붕괴시켜야 한다고 믿는 미국 사람들이 있기에 그러한 사태가 한반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北의 核武裝이나 崩壞나 하는 미국측 인사의 의도성 있는 질문도 여기서 나왔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의 붕괴가 전쟁을 수반할 것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필자는 발언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대북 강경론자에 의해 필자 자신의 견해로 언론에 공개되었고 여과없이 한국 언론에 의해 증폭 보도됐다.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질문이 나왔을 때 필자는 세련된 외교적(外交的) 수사(修辭)보다는 아마추어적일지 몰라도 정직한 발언이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한반도 무력충돌의 경우 발생할 피해가 미국 측보다는 한국 측에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미국측 인사의 발언도 뒤따랐다.

◆美國의 韓半島정책과 韓國의 位相

워싱턴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지켜보아온 필자는 솔직히 세련된 프로페셔널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할 말을 다하면서 우리 국익(國益) 추구를 해왔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94년 봄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고, 과거 수십년간 네 번에 걸친 미군철수 과정에서 한반도 통보조차 못 받았으며,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그렇게 재앙스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한 가지 부타이 있다. 우주비행선 사고로 국상(國喪)을 치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을 왜 못 만났느냐고 질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언론이 국익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들의 맥을 짚어줌으로써 국민과 정부를 제도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 고위관료들은 최근 우리 한국의 운명에 직결되는 발언, 즉 북핵의 핵 포기 압박을 위해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전에 왜 동맹국인 한국에 충분히 상의해오지 않는지를 따져 묻는 칼럼이나 사설은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의 중요성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동맹 관계가 속으



로 끊지 않고 건강해지려면 양국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확인한 다음 좁혀나가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美國時論 [편집자주: 아래의 보도는 위의 운영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가 그 경위를 해명하면서 미국언론의 의곡된 보도라고 주장한 기사임] 韓美간의 對北韓 政策的 葛藤

Reversals in U.S.-South Korea Links, and Some Jagged Fault Lines

by HOWARD W. FRENCH (NYT, February 11, 2003, SEOUL, South Korea)

With concerns running high over tensions with North Korea and cracks i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resident-elect Roh Moo Hyun dispatched a delegation to Washington for a getting-to-know-you visit.

As they have been doing for months, however,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been close allies for half a century managed to accentuate their differences, more than narrow them. At a private Washington dinner for the South Korean visitors last week, which was intended as a frank, off-the-record exchange, several American participants said mouths dropped open when a senior South Korean envoy said that if it had to choose, the incoming government would prefer that North Korea had nuclear weapons to seeing it collapse. "Their responses were so far out that all the other planets were all closer to each other than they were to any of the Koreans," said one participant in the dinner. "I sense major trouble ahead in the relationship. The impression I got is that for Roh and his generation, the ultimate goal is to reunite their country and get us off the peninsula."

The incoming president has often said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would be intolerable. But his envoys to Washington reinforced another message, one that many experts see as contradictory that Seoul opposes

any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or even penalties. The very week of the South Korean visit, speaking at a committee hearing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H. Rumsfeld used the most provocative language toward North Korea since President Bush included it in his "axis of evil." Mr. Rumsfeld, who recently ordered 24 long-range bombers on alert for possible deployment to the region to deter North Korea from producing nuclear weapons, called the country's government a "terrorist regime."

Many experts say his language will only harden North Korea's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ttack it once any war in Iraq is completed. What is certain, though, is that it shocked South Korea's governing party, and deepened strains in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e are closely watching as to what the real intention was regarding Defense Secretary Rumsfeld and President Bush's comments," Mr. Roh's Millennium Democratic Party said in a strong implicit criticism of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Iraq are different. We make it clear that there must be no mistake in decision making."

For the last two months, North Korea's leadership has been working its way down a checklist toward a bottom line that will almost certainly result in a declaration that the country has become a nuclear state. But throughout, diplomats and political experts sa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appeared badly divided and lacking a strategy to slow the nuclear clock.

Those Korea experts say that for many months there have been open divisions within the Bush administration over North Korea policy, between hard-liners and those who urge a more conciliatory approach. Over the last two weeks, however, many say that strong signals have begun to emerge that Secretary of State Colin L. Powell has finally begun to assert State Department control over policy toward the impoverished and heavily armed country. Above all, the new line from Washington was intended to lower tensions with North Korea, and to prepare the way gradually for direct talks. With Mr. Rumsfeld's comments, and more recent statements on Friday declaring that all options were on the table,

however, the administration appeared to be reversing itself yet again on North Korea. In a highly unusual commentary published the next day, Rodong Sinmun, the newspaper of the governing North Korean Workers' Party, stated flatly, "We predict that the U.S. imperialists may undertake a military adventure." The commentary added, "It is foolish for the U.S. to think that we will sit idle with folded arms to wait until it gives orders for a pre-emptive strike." Veteran intelligence analysts said they could not recall a formulation in which the North Korean news media predicted an American attack. "It looks like we are back to Square 1, with Rumsfeld, the Pentagon and John Bolton on one side fighting against Powell and the State Department," said Marcus Noland, a senior fellow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author of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 keeps marching ahead with its plans, and we don't even appear to have a policy."

In many ways, regional experts say,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is even more worrisome than the apparent policy disarray in Washington. Both South Korea's departing president, Kim Dae Jung, and its newly elected leader, Mr. Roh, are so firmly committed to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at any coercive or military measures by Washington aimed at ter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could end up destroying the 50-year-ol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stead. Many who met with the high-level South Korean delegation to Washington described the visit as a near disaster. Experts say the results of two special delegations sent by Mr. Roh (the other one was to North Korea) illustrate what one diplomat called the incoming government's "romantic funk" over North Korea. Mr. Roh is a liberal one-term legislator with almost no international experience. "It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to be a blank slate," said Victor D. Cha, a Korea expert at Georgetown University, who met with the delegation and cautioned against too much alarmism. "Roh is someone who really seems to listen. But this is a test of alliances, and if they can't figure out how to deal with a real threat together, there's not much of an alliance left."

相互主義와 對北韓정책

노무현 정부에게 바라는 것

韓昌燮(문리대 62년졸, 뉴욕 Korea Press Agency 代表)

盧武鉉 정부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金大中 정부로부터 인계 받고 출범하였다. 그 중에서도 盧 정부가 당장 시급하게 대처하여야 할 문제가 北韓核 문제와 악화상태에 있는 對美관계이다. 만약 이 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韓國의 운명과 장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盧대통령은 취임사에서 北韓에게 核開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美國은 軍事的 수단이 아닌 對話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韓國정부의 호소와 세계輿論을 무시하고 핵 개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 美國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50여년간 韓半島에서 전면적 戰爭을 抑制하여 온 韓美軍事同盟에 따라 對北 軍事조치를 취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의할 때 盧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간 정성을 들여서 실현한 소위 "햇볕정책"의 결과로 南韓社會는 많은 변화를, 특히 20-30대의 젊은 세대의 對北觀念에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온 듯 하다.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北韓이 韓國의 敵이 아니며 그들은 북한이 "북한이 崩壞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核開發을 통해서라도 生存하는 것이 낫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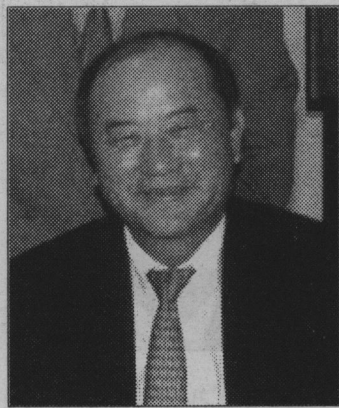
바로 이러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盧대통령이, 미국이 排除하지 않은 채 인젠가 감행할 지 모르는 북한의 핵시설 제거 軍事作戰에, 어떠한 立場을 취할지 사뭇 궁금하다. 노무현씨는 지난 大選운동 기간 중 "北韓을 설득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견 天真爛漫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과연 北韓의 김정일이 노대통령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어서 核開發을 포기하는 기적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노대통령은 또한 선거 공약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는 내용은 같지만 "햇볕" 대신 "포용(包容)"이라고 이름만 바꾸기로 하였다. 결국 對北政策에 있어 김대중씨나 노무현씨는 동일한 접근방식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盧대통령의 소위 "포용政策"은 對北支援를 더욱 증가할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년간의 "햇볕정책"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의 支持者들은 이 정책으로 남북한간

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한 철도연결 공사작공 및 남북한 당국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회담 등등을 可視的인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결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대중씨가 노벨平和賞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統一院 발표에 의하면 韓國이 공식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北韓에 제공하였다는 지원금은 약 25억 달러라는데, 한국정부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개발도 이로부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 지난 5년간 南韓 국민이 낸 稅金으로 北韓社會를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햇볕정책" ("마구 퍼주기" 政策이라고 일부에서 평가함)에 따라 엄청난 지원을 한 결과 과연 北韓에 얼마만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최근 北韓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북한인들의 자유가 더 위축되었고 團束이 더 深化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변화된 사회는 北韓이 아니고 南韓인 것 같다. 이제 南韓에서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守舊 반 통일 非愛國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5년간 남한 사회는 정말 많이 변화했다고 본다. 한국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가 인용한 비공식 표본조사통계에 의하면 남한 成人 인구 중 약 7백만이 한반도의 共産統一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진실로 可憐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즉 南韓의 성인 인구 중 약 20%가 共産統一을 목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한 남한내의 親北韓 세력만이 마치 민족주의적이며 愛國者로 둔갑한 셈이다.

지난 10년간 2,200만 북한 인구 중 약 100만이 기아(飢餓)로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고 金日成의 묘를 만드는데 9억 8천만 달러를 들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북한 共産體制의 自生的인 崩壞를 막기 위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말로 우리가 韓半島의 統一을 원한다면, 나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體制維持를 돕기보다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대착오적인 兇戰의 思考와 歷史的으로 그 實驗이 실패한 共産主義 經濟體制를 고수하고 있는 北韓의 변화추세(조만간 崩壞가 불가피하게 보여지는)를 觀望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고 본다. 세계역사상 한 國家나 民族의 統一이 戰爭이나 內部崩壞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졌지 어디 상호간의 協商을 통한 合意에 의한 統一이 이루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한국의 새 정부가 5년간 一方의 求愛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政策을 버리지 않고 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傲氣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동안 들인 노력과 돈이 아깝지만 잘못된 정책을 固守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며 보다 큰 災難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南北韓의 관계는 철저한 相互主義에 입각하여야 하며 北韓 당국자는 국제 사회의 一員으로서 참여하고자 한다면 相互主義의 外交慣行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가 된 地球村 사회에서 책임있는 行爲者로 인정될 것이다. 최근의 예로 2년 전의 김대중 전대통령의 역사적인 平壤 방문에 대하여 北韓정권의 首班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서울출발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相互主義의 外交儀典을 김정일 "軍事委員長"은 왜 실행할 수 없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임기가 다해 가는 마지막 순간에 사절단을 보내어 한반도에 감도는 戰雲의 긴장을 낮추어 보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마지막 호소를 "지방현지지도"라는 이름 아래 南韓의 사절단조차 만나주지 않은 김정일의 行態는 북한의 우월성을 과시한 것보다는, 國際社會에 외교관행도 모르는 철부지라는 인상만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아무리 無政府 상태가 국제정치 構造라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식상한 비관 끝 외교정책을 계속하는 모험주의자들을 세계 어느 국가가 돕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보낸 굶주린 북한백성들을 돕는 人道的인 援助도 북한 당국자들에게 의한 分配가 아니고 국제구호기관에 의해서 시행되어 굶주린 北韓人들에게 직접 분배된다는 조건하에만 계속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大韓民國 建國 이래 지금까지 惡化된 적이 없는 韓美관계도 지극히 우려된다. 누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현재 한국의 繁榮은 지난

[편집자주: 필자는 1958년부터 60년까지 韓國軍에 복속하였으며 韓戰 中에는 美海兵隊를 위한 最年少 韓語通譯官으로 奉仕한 후 지난 40년간 母國과 美國에서 활동하고 있는 言論人이다. 그는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플브라이트 장학생으로 渡美하여 아이오와大學校에서 저널리즘으로 碩士를 한 후 同和통신주미특파원, 合同통신UN특파원 및 聯合통신미주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韓美간의 輿論의 흐름에 대한 진지한 관측자였다. 편집자의 초청에 의하여 신임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昨今の 國際情勢와 韓半島의 緊張狀態 아래서 우리 동포들이 모두가 소망하는 有效한 自主外交政策을 새 정부가 펼쳐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南北韓의 統一의 道程을 주시하는 在美同胞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所懷를 여기에 피력하였다.]

50여 년간의 미국의 軍事的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나는 본다. 그러면 한국의 安保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美軍의 作戰訓練중 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나는 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고의적으로 美軍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反美운동의 계기로 이를 이용하여 "촛불시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하고 부추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수백만의 무고하고 불쌍한 北韓同胞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壓制 아래 自由를 잃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재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는 왜 촛불시위를 벌이지도 않고 눈감아주고 있는가? 북한을 비호(庇護)하는 세력들은 부시행정부의 對北韓 강경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시대통령이 2002년 1월의 國政演說 (State of Union Address)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라크와 함께 "惡의 軸"이라고 지칭한 것에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 핵문제의 원인을 부시행정부정책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北韓이 核開發 시도를 인정하였고 이를 始作한 것은 한국의 햇볕정책이 진행중인 1998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으므로 北韓에 속은 것은 클린턴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본다.

美國에서 1년 전까지만 하여도 駐韓美軍의 撤收 내지 減縮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自由進歩派 (Liberals)들이었으나 지금은 保守的인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철수(撤收)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내의 親韓派는 보수적인 右翼 인사들이었으나, 이제는 이들이 한국정부의 盲目的인 對北 정책과 한국내의 소위 反美세력들의 움직임 때문에 완전히 한국에 등을 돌린 상태이다. 따라서 盧정부는 한국에 등을 돌린 미국내의 保守세력을 다시 한국의 친구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急先務인 것 같다.

北韓

에 형제자매를 두고 있어서 10여 차례나 북한을 訪問하였고 또한 북한과 영화 비디오 사업을 하려고 자신이 일생동안 벌여놓은 財產을 그들에게 속아서 탕진한 끝에 病까지 걸려서 현재 死境에서 오늘내일 하는 한 재미교포가 現代의 정주영씨가 소떼를 몰고 북한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나에게 그때 한 말이 생각난다. "現代만 망하면 좋겠는데 政府가 만약 함께 넘어가면 韓國은 큰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그는 北韓當局으로부터 받은 契約書가 한 가방이나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모두가 쓸 데 없는 休紙에 불과하며 북한당국자는 자기뿐 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계약서를 써주어서 결국은 속았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一國의 指導者는 나라의 國力과 나라가 처한 位置를 알고 어디로 가는 것이 옳바르게 國益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는 踰齡의 輿論에 마냥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런 近視的인 輿論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大衆에게 설득하여 이끌어 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임 盧武鉉 韓國 大統領은 비록 立志傳的인 교육과 성장과정을 거쳤지만 聰明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幸運의 정치인이다. 우리는 盧대통령이 자신의 執權을 가능하게 한 젊은 세대와 進歩左派세력의 輿論에 밀려가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既成世代와 保守反共세력의 경험적 지혜에도 눈과 귀를 기울여 우리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韓民族 전체가 소망하는 統一의 道程을 앞당기는 有效한 自主외교정책을 펼쳐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期待한다.



노무현 대통령선자(右)가 13일 오전 인수위원회의 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콜린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중앙일보 2003년 1월 13일자)

꿈이 현실로

이종욱 박사 WHO 사무총장 당선을 축하하며

權舜赫(의대 47년졸, 모교 15대총장 역임, 현 성균관대 이사장)

계미년 1월 28일은 참으로 반갑고도 감격적인 날이었다. 이종욱(의대 76년졸) 박사가 UN에 버금가는 국제기구인 WHO의 수장으로 뽑힌 날이다. 이박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경사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WHO의 총수가 된 것이니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이종욱 박사 WHO 사무총장 선거후원회장]는 WHO에 대하여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WHO 서태평양 지역(Western Pacific Region) 사무처장에 한국인을 앉게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WHO본부 사무총장에 앉게 하는 일이었다. 첫 번째 꿈은 1988년에 실현됐다. 한상태(의대 55년졸) 박사가 지역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인으로서 국제전문기구의 최고위 선출직에 올랐던 것이다. 두 번째 꿈이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가 짐작하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꿈이 실현된 것이다. 두 개의 꿈은 한박사와 이박사 같은 훌륭한 인재가 있었기에 실현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나 관계 인사의 노력이 지극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상태 박사의 경우는 필자 자신이 보건행정 책임자였던 까닭에 다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박사의 경우에는 김성호 복지부 장관의 도움이 참으로 컸다. 김장관은 실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필자는 작년 11월 22일 결성된 이종욱 박사 후원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지만 별로 도움되는 일은 못했고 모든 것은 김장관이 직접 해결하였다. 그는 미얀마·중국·브라질·일본 등 WHO 집행이사국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했고 투표기간 중에는 제네바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이종욱 박사와 김성호 장관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뜻을 올린다.

1. 세계보건기구(WHO)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준비위가 마련되었고 이 자리에서 자율성을 가진 국제보건기구 조직에 관한 중국과 브라질의 제의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1946년에 뉴욕에서 WHO 헌장이 승인되었다. 이 헌장은 1948년 4월 7일 발효되었다. 그 이래 4월 7일은 세계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매년 전세계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WHO는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HO헌장은 "건

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Health is a complete state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H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보건사업에 대하여 지휘하고 조정하는 기능 ▲보건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지원 ▲각국 정부의 요청시 적절한 기술 지원과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지원 제공 ▲전염병 및 기타 다른 질병들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업무 지원 ▲필요시 영양, 주택, 위생, 리크리에이션, 재정 또는 작업여건, 환경위생 등에 대하여 다른 전문기관과의 협력 지원 ▲생의학(biomedical)과 보건서비스에 관한 연구지원 및 조정 ▲보건,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교육과 훈련의 기준개발과 지원 ▲생물학적, 제약학적, 그리고 유사물질에 대한 국제적 표준 설정과 진단기법의 표준화 추진 ▲정신분야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WHO는 전세계 6개 지역에 사무처를 두고 있는 최대의 국제기구이며 8,500여명의 직원과 연간 22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우리나라와 WHO

우리나라는 1949년에 WHO에 가입하였으며 서태평양 지역에 속하고 있다. 그간 세차례 본부 이사국으로 진출하였고 2001년 5월 제 54차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기는 2004년까지다. 우리나라가 UN회원국으로 되기 전에도 오랜 기간 WHO 가입국으로서 활동해 온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UN이 우리들과는 먼 거리에 있던 시절에도 우리나라는 WHO를 통해서 활동했던 것이다. 2002년 현재로 우리나라의 WHO부담금은 4,171만여 달러이다. 전체 예산 중 0.99%에 해당되며 전 회원국 중 17번째이고 서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이다. 정규 부담금 외에 우리나라는 자발적 부담금도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약 50만 달러, 금연사업에 20만 달러를 지원했고 2002년에는 북한 말라리아퇴치사업에 약 68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지원



하였다. WHO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정규직원은 현재 3명 뿐이며 이중 1명이 본부에서 활약중인 이종욱 박사이고 2명은 서태평양 지역 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분담금 등을 감안한 적정 인력규모는 8~15명이다.

3. WHO와 필자

한 때 필자는 WHO와 비교적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64년에 WHO과견으로 유럽과 동남아 여러 나라를 시찰 방문했고 1970년대에는 13회에 걸쳐 WHO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의대 인구의학연구소장 자격으로 제네바에서 매년 개최되었던 인구의학연구소장회의의 고정 멤버로 참여하였고, 의대학장, 보건대학원장회의에도 참석했다. 대부분의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지만 때로는 다른 도시에서 열리기도 했다. WHO에 드나들면서 총장이나 지역사무처장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가를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WHO가 내세운 슬로건의 하나가 금연이다. 필자는 한때 중증 흡연자였다. 1970년대 초 WHO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많은 참석자가 흡연자였다. 20명 전후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회의가 대부분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흡연자의 수가 줄더니 1970년대 중반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3명만 남았다. 이 사실이 필자의 금연 동기가 되었다. 금연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방법이 최상책이다. 필자는 두 차례 실패했지만 세 차례 때는 성공했다. 이번 5월 총회에서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이 선포될 예정이다.

4. 이종욱 박사의 이모저모

이박사와 나는 사제지간(師弟之間)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를 잘 알고있는 편이라고 자부한다. 이박사는 의대학생 시절부터 특이한 존재였다. 재학시절에 안양 나자로 마을에 다니면서 한센병 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자원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인 여성을 만난 것도 이곳이다. 그 여성이 현재의 부인이다. 그의 봉사정신은 이미 학생시절부터 몸에 배 있었다고 믿는다. 이박사는 집념의 인물이다. 의대

Winter Tree

노재욱(의대 64년졸)

Winter tree stands silently,
Tho'it conveys all stories to me.
Winter tree has taken off all baroque accessories,
Tho'it doesn't look ugly.
Winter tree stands grotesquely as haggardly,
Tho'it seems in deep meditation.

Winter tree is always working on its own way
To flower in the spring by caressing and protecting scions,
To embellish with opulent green in summer by enriching with terrestrial spirit,
To bear fruits in fall by refurbishing with earthly nutrient.

Winter tree stands pompously in the frigid cold,
Not like a defeated but a triumphant warrior.

In frigid cold winter
I plant tees in my heart,
While watching a winter tree,
Spring tree that is decorated with beautiful flowers,
Summer tree that is wrapped up with opulent green,
Autumn tree that is studded with delicious fruits.

Now in such a cold day
Winter tree stands defiantly against frigid cold.

I like to emulate a winter tree.

를 졸업한 후 하와이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MPH)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열대의료원으로 가서 한센병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 이 일련의 일들은 이박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며 그의 집념과 더불어 자립성과 창의성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다가 1983년에 그는 서태평양 지역 한센병 관리팀장으로서 WHO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서태평양 여러 섬의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역사무처 전염병 관리국장직을 거쳐 제네바 본부로 진출했다. 그가 백신국장, 결핵관리국장,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기에 더 이상 기술하지 않겠다.

5. 총장 당선 의 뜻

오는 5월 WHO총회에서 이박사는 인준을 받고 7월부터 총장직무를 시작한다. 그의 총장 당선에서 우리들은 많은 뜻을 읽을 수 있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은 WHO의 기능을 수행하는 총수가 되고 인류사회의 최고 보건의로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의 총장 당선은 전세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이박사는 그의 존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존재를 빛내주고 있다. 물론 그의 앞에는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 더 많은 한국 보건인들이 WHO에 참여하는 과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필자는 지난 1월 28일 결성 투표가 끝난 후 제네바 현장에서 뛰던 김성호 장관으로부터 총장 당선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였다. 당선자와도 인사를 나누었고 장관과 함께 뛰던 신영수 교수(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로부터도 소식을 들었다. 낭보의 연속이었다.

역대 사무총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초대총장이 단임(5년)으로 끝났을 뿐이고 그 이후의 총장들은 네 번(20년), 세 번(15년), 두 번(10년)의 임기를 마치고 있다. 그런데 현총장인 할렘 브론티랜드(Harlem Brandtland)박사가 단임을 선언했던 관계로 급작스럽게 후임 인선에 접어 든 것이다. 3차에 걸쳐 14년간 노르웨이의 수상을 지낸 여장부인 현총장이 단임을 선언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이 기회를 포착한 이박사와 김장관은 참으로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7차에 걸친 투표결과 이박사의 승리로 끝났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축하와 경의를 보내며 직·간접으로 이 위업을 달성케 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기회를 올바르게 잡을 때 빛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면서 이총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노벨科學者들 <3>

1973년 物理學상 수상자 에사키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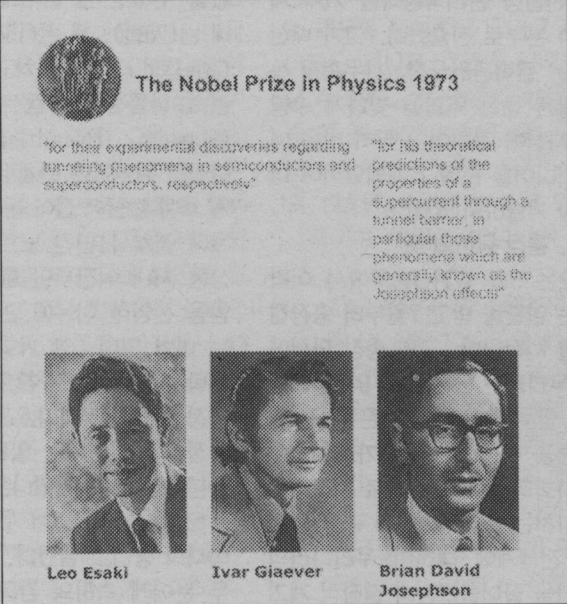
金日勳(의대 57년졸)

半導體 開發실험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이번호에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 IBM 연구원으로서 1973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3인 중의 한 사람인 일본인 레오 에사키(江崎) 박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해의 노벨물리학상은 본격적인 컴퓨터 문화시대를 여는 선구적인 半導體개발이론과 실험업적을 낸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半이 理論분야의 창의적인 업적을 낸 영국 켈브리지 대학에 있는 브라이언 데이비드 조셉슨(1940년생)에게 주어졌고(공적사항: for his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properties of a supercurrent through a tunnel barrier, in particular those phenomena which are generally known as the Josephson effects), 나머지 半은 레오 에사키(Leo Esaki, 1925년생)와 노르웨이 출신으로서 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연구원인 이바르 기에베르(Ivar Giaever)에게 'The Esaki tunnel diode'라 부르는 반도체의 터널 효과에 대한 선구적인 實驗업적으로 공동으로 주어졌는데(공적사항: for their experimental discoveries regarding tunneling phenomena in semiconductors and superconductors, respectively) 이들의 공적을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불가결의 요소인 반도체를 만드는 선구적인 理論과 實驗을 한

에서 교육을 받고 그 분야의 선구적인 업적을 내고 있는 미국에서 연구하여 文化圈의 장벽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업적을 낸 점은, 우리 한국인들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하여는 傳統文化와 進取的인 外來文化의 균형적 수용이라는 전래의 한국의 문화교육이 내포한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에사키(江崎) 박사는 1947년 동경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1960년 이래 SONY 회사에 취직하여 10년간 연구결과 위의 Esaki 업적을 냈으며, 1959년 34세에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60년에 SONY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을 지냈고, 수상당시 IBM의 토마스 J. 왓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해왔는데 그리고 1958년 이래의 연구업적이(Phys. Rev. 109, 603에 처음 발표됨) 뒤늦게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1973년(48세)에 노벨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2차대전 중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이 불타고 東京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전쟁후 일본의 복구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심 아래, 졸업하자 공업분야를 택했다고 전한다. 그의 노벨 과학상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학계출신 아닌 회사연구원이라는 것이다. 終戰 이후의 일본대학은 연구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그는 자원해서 생기있는 민간기업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민간기업에서 노벨상업적이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교롭게도 일본의 노벨科學賞은 교도(京都)대학이 독점하는데, 그는 드물게 東京대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셈이다.

21世紀의 創造정신과 傳統文化 이 중에서 에사키 박사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동양문화권

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실적 있는 연구를 쌓은 결과 '반도체 초격자(超格子)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이 논문의 인용회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



두 번째 노벨상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1992년 일본에 귀국 후 IBM 일본지사장 등을 거쳐 현재 일본서 공대학장직을 맡고있다. 어릴 때 말을 좀 더듬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직업을 선택한 결과 物理學者가 되었다고 자기를 알린다. 에사키는 특히 일본지식인중 첫손꼽는 박식한 敎養人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강연과 저술을 통한 그의 사상과 교육철학 보급으로 일본인의 지성과 문화향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 후 에사키는 많은 외국인 노벨상 수상자와 접촉대화 할 기회를 가진 결과, 그들 모두가 예외없이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학자들이라는 점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즉 모든 수상자들은 "외국 과학자이기보다는 넓은 視野를 가진 교양인"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의 폭넓고 다각적인 시점(視點)이야말로 창조성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고 에사키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바로 에사키 자신의 모습이라고, 주변사람들은 평한다.

그의 연구방향의 지침이 되는 그의 근본思想은 未來指向적이며 인간의 創造力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안정된 사회에서는 "장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획기적인 발명품을 가져다줄 장래는 현재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함으로서 완성된다는 논리를 그는 강조한다. 아시다시피 근대물리학의 시조는 뉴턴(Isaac Newton)이며 그는 자신이 이론업적에 대해서 "나는巨人の 높은 어깨를 타고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거인은 갈릴레이(Galileo Galilei)나 데카르트(Descartes)등 선구적인 과학자이며 뉴턴은 그들의 爲業을 배우고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과학창조를 성취했다는 말이다. 에사키 박사도 트랜지스터 발명자와 量子力學을 만든 과학자들의 어깨를 딛고서 그의 노벨상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던 1947년도에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었고, 이것이 현재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20세기 최고발명품이 되어있다. 半導體는 종전의 '眞空管'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진공관을 아무리 개량해도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 과학자는 '眞空管'이라는 종전과학에서 배우지만, 그 연장선상에 안주하지 않고 비약해서 창조성을 발휘함으로써 半導體 같은 새로운 發明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 東洋人은 두 개의 文化를 자랑하고 있다. 첫째는 유구한 역사전통과 아름다운 우리풍토 속에서의 회고적 만족감이다. 두번째는 西洋文明을 흡수하고 진보적인 미래지향적인 생활태도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과학에 관한 퀘케 묵은 옛 傳統을 차버리고 새로움을 모색해야만 한다. 에사키는 "자기 歷史를 찾는 것보다 未來의 꿈을 즐겨야한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가장 좋아한다며, 그래서 그는 1960년 낯선 미국을 찾아 창조력을 육성해주고 미래의 꿈이 약속된 곳으로 가서 30 몇 년간 연구생활을 했던 것이다.

美國식 敎育관과 에사키의 연구 새로운 未來와 創造力을 역설하는 에사키의 지론은 바로 그의 敎育觀이 되고 있다.

오랜 미국체제의 경험으로 미국과 일본(동양)의 문화차이, 사고방식, 연구현장의 실태를 그는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에사키는 자신의 체험에 입각해서, 일본국민에 대해 미국과 일본(동양)의 비교문화와 비교敎育론에서 창출한 방향제시는 큰 설득력을 갖게되었다.

2000년도에는 정부기관인 敎育개혁국민회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미국敎育의 예를 들어 대체로운 논점을 파력해가면서 일본敎育개선편안에 대한 그의 구체적 발언과 제언은 일본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나는 다른 글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왕년의 일본 수상 나가소네는 어느 집회에서 미국 敎育을 평가하기를 "미국은 흑인,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인들이 많아서 지적 수준의 평균치는 일본보다 훨씬 못하다"고 정치가다운 말을 했다. 여기에 대해 에사키(江崎)는 "미국은 敎育상 편차(偏差)가 너무 커서 평균치(平均値)는 별로 의미가 없다. 個性을 존중하는 미국 敎育은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우수하다"고 반박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 경쟁사회에서 자란 美國人은 자기의 長技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가를 알고자 어릴 적부터 자기발견의 경

힘을 쏟고있다고 예사키는 미국제도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東洋 학생은 입시위주의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선배나 뒷사람을 존경하는 미덕이 동양문화라 하겠지만, 창조에는 반항심도 필요하며 자기재능을 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東洋사회에 女子과학자가 적은 이유는 순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환경 탓으로 그는 돌린다. 현재 미국의대에는 여학생이 과반수고 女性 科學者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퀴리부인은 노벨 과학상을 2개나 받았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과거 敎育敎育이라는 것은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 즉 수화공식이나 문장과 언어를 강제 敎育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에사키는 敎育이 이래서는 안되며, 진정한 敎育의 목적은 "한 인간이 가진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신장 발전시키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능력 즉 창조력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젊은 연구생들에게 "노벨상을 받기 위한 敎訓 5개조"를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 ① 지금까지 해온 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 ② 權威者를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盲從해서는 안된다.
- ③ 取舍選擇, 즉 쓸모 없는 것은 버리고 유용한 정보만을 골라 선택하라.
- ④ 자신을 중히 여기며, 필요하면 남과 理論鬭爭도 不辭한다.
- ⑤ 항상 생생한 感性과 知的好奇心을 가져야한다. 에사키는 이를 成功에 5대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美國문화의 장점을 日本학계에 심으려는 그의 노력을 일본국민은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科學立國은 더욱 견고하게 되어가니, 노벨 과학상의 연속수상이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開化期에 朝鮮선비들이 보여준 일본인에 대한 偏見-즉 남의 모방만 하는 원숭이 족속이라고 흉보았던-을 되돌아보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알잡아 보았던, 뒤떨어진 日本은 西洋文明에서 좋은 모든 지식을 원숭이처럼 무조건 습득하고 그것을 발전시킴으로서 오늘의 科學大國을 이루었다. 朝鮮선비처럼 傳統에 집착하며 主體性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노벨 과학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鄭斗鉉(의대 61년졸) 동문 동양화 및 조각 전시회 3월 3일(월)부터 29일(토)까지 워싱턴 한국 예술센터

워싱턴 DC 근교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두현 동문(의대 61년졸)은 3월 3일(월)부터 29일(토)까지 워싱턴 한국 예술센터(Washington Korean Art Center, 2750 Gallows Rd. Suite #302 Vienna, VA 22180)에서 그동안 작품활동의 결과를 모아 수묵화와 조각작품들의 전시회를 갖는다 하니 말

은 동문들과 미술애호가들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내빈들을 위한 리셉션이 3월 8일 3시부터 5시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화랑 개관시간은 기간 중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연락처 전화 703-205-0245, 204-0012)

산과 물과 바위와 나무를 좋아합니다.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그릴 때 마음이 자연이 됩니다.
아름다워 집니다.
기뻐집니다.
붓끝이 마음을 씻어줍니다.
깨끗해집니다.
자연이 됩니다.
가까운 분들의 발을 씻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때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붓끝이 마음을 씻어줍니다.
깨끗해집니다.
기뻐집니다.
마음이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바위가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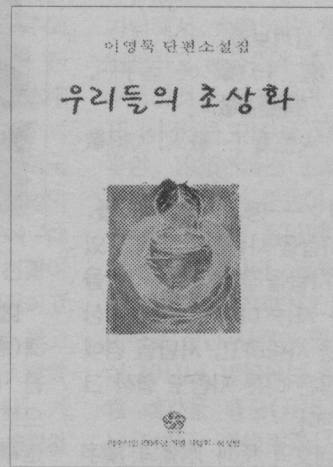


우리들의 肖像畵를 펴내면서

李英默(공대 59년졸, 워싱턴 DC 동창회장)

이 책에 수록된 나의 단편 소설들을 <크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지런 연유로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쓴 소설들로 우리들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희망 또는 행복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소설가들의 대열에 과연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건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감히 당치도 않은 이 글들을 썼을까?

나는 그동안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비롯해서 이곳 워싱턴에 위치한 몇 개의 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 고여 드는 공허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 이끌어 나가는 이들은 에



석하게도 항상 끼리끼리였기 때문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거나 하나로 묶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끼리끼리라는 작고 견고한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안타까웠다. 우리는 모두 다같이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민생활에 희망과 행복,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기>에 나의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그 동안 나는 주위에서 적나라한 원색의 삶을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한 원색이야말로 이민 1세대의 삶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이것이 즐김이지만 내가 팬을 듣게 된 이유이다.

나는 계속해서 글을 쓰거나 더구나 소설가가 될 마음도, 능력도 없다. 다만 내가 쓴 이야기들이 <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서로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 다음 이민 100년을 위한 우리들의 힘찬 행군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02년 9월에 씀)

비디오게임이라면 전쟁 먹구름의 地平線을 넘어

李泰相(문리대 59년졸)

거의 전 인류가 반대하는 전쟁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벌이는 이라크 전쟁이 그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얼마나 오래 끝나는지 참혹한 뉴스를 듣고 보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조차 너무도 끔찍할 뿐이다. 차라리 하나의 비디오게임이라면, '개가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은 시간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볼 수는 없다.' 2001년에 개봉된 영화 <케이트와 레오폴드>에 나오는 대사 한 토막이다. 현대 여성이 옛날에 살았던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두 사람이 각기 시간여행을 함으로서 가능해진다. 2백년의 세월을 두고 마치 비디오테이프를 앞뒤로 돌리듯 말이다. 우주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인 지구상에서 우리가 위다 아래다 하는 것이 무리이듯 과거, 현재, 미래란 것도 억지놀음 아닐까?

영국의 미술평론가 존 러스킨의 말대로 '삶 이상의 부와 재산이 없다면 사랑 이상의 삶이 없다' 할



수 있다. 정녕고 사랑이상의 종교도 철학도 예술도 진실도 없으리라. 사랑 없는 삶은 그야말로 오아시스 없는 사막, 꿈 없는 잠, 숨골진 목, 다시 말해 꺼진 불이다.

별들의 만나고 헤어짐이
그 어느 누구의 뜻과 섭리에서인지
나 알 길 없지만
너와 내가 마주쳤다 떨어짐도
저 별들의 반짝임처럼
우리 눈 한번 깜짝할 아닐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눈, 비, 바람 불어 오기는 것이
그 어떤 무슨 깨달인지
나 알 수 없지만
너와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는 것도
저 풀잎에 맺히는 밤 이슬과 서리
아침 햇빛에 녹아 스러지듯
우리 숨 한 번
맺혔다 지는 것 아닐까?

하늘처럼 사람도
바람만 마시고 구름똥 쌀 수 없어
서로 잡아먹고 살 수 밖에
그 밖에 다른 도리 없다해도

우리 비록 꿈속에서나마
여우, 늑대되기 보다는
저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옛적으로부터
숫구쳐 샅샅이 뜨거운
우리 그리움의 눈물이
끝없는 그 어느 땅끝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저 깊은 산골짜기 시냇가에서
뛰노는 사슴이 되어 볼 수 없을까?

꿈이여라 꿈이여라
우리 삶은 꿈이여라
꿈속에서 꿈꾸는
우리 삶은 꿈이여라
우리 삶이 꿈이라면
가슴에 수놓는 사슴의 꿈이여라
우리 삶은 꿈이기에
꿈인대로 좋으리
우리 삶이 꿈 아니라면
그 어찌 사나운 짐승한테
갈거리 찢기우는
사슴의 슬픔과 아픔을
참아 견딜 수 있을까?

숨이여라 숨이여라
우리 삶은 숨이여라
우리 삶이 숨이라면
우리 모두 하늘 우러러 숨쉬는
사슴의 숨이여라
우리 삶은 숨이기에
숨인대로 좋으리
우리 삶이 숨 아니라면
그 어찌 사나운 비바람
천둥, 번개 무릅쓰고 뛰노는
사슴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냥 맛볼 수 있을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슴이 준 말
사슴이 되어라

齒大총동창회 차혜영(치대 67졸) 부회장 일행 UIC 치대방문 齒科醫師 8년 교육제 시행 문제점 토론

母校 치대총동창회 차혜영 부회장은 한국치과의학계의 원로선배이신 지현택(치대 47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서울치대동창회장 역임) 고문과 3명의 동문들과 함께 2월 28일 UIC 치대를 방문하였다. 치대동창 일행은 이번 여행을 통하여 全人的인 人性을 갖춘 유능한 치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母校 치과대학의 學制가 금년부터 6년제에서 8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즉 치대입학자는 學士학위 소유자이어야 함) 예상되는 치과 의료계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과 母校의 치의학교육을 지원하

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 방문단은 蘇鎭文 동문(치대 62년졸)이 재직 중인 UIC 치대를 방문하고 蘇교수와 미국 치대 입학자격 및 규정과 學事과정 그리고 UIC 치대의 연구, 교육,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방문단 일행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Esthetic Dental Material 제조회사인 Bisco가 주최한 10th International Symposium에 참석하였고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는 138th Chicago Dental Society Midwinter Convention에 참석할 예정이다.



본관에서 학회참석차 온 치대 동창들: 좌로부터 曺京淳(치대 63졸, 서울개업치과의), 丁珪鉉(치대 63졸, 서울개업의), 蘇鎭文(치대 62졸,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 치대교수), 車惠榮(치대 67졸, 서울대 치대동창회 부회장), 池憲澤(치대 47졸, 치대동창회 고문), 李春雨(치대 59졸, 시카고개업의), 金圭效(치대 63졸, 서울개업의)

중국고전 詩經과 明治維新

韓景燮(공대 토목과 52년졸, 캐나다 거주)

[편집자주: 이 글은 필자가, 西世東漸의 近代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아시아의 세나라는 和魂洋才, 中體西用 및 東道西器의 구호아래 서양의 물질문명을 도입하고자 하는 가운데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몰각하고 서양을 피상적으로 급격하게 따라잡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역사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 현재 "世界化"의 時流는 동양의 문화유산을 몰각하는 조류가 팽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韓中日 동양삼국의 서양모방의 潮流와 외곡된 정치사에 내포한 문제를 분석하는 論考인 "孟子를 尊敬하는 日本王室과 회고담 중국고전(中國古典) '시경(詩經)'과 明治유신(明治維新), 갑신정변(甲申政變)과 유신헌법(維新憲法)"의 첫부분이다.]

序文

일본 皇太子의 부인 雅子[마사코]가 2001년 12월 1일 女兒를 출산하였다는 소식과 그 공주의 이름을 孟子, 書經에 있는 이루장(離婁章)의 한 句節의 意味와 漢字를 인용하여 지었다는 기사를 읽고 오늘날도 일본 王室에서는 과거와 같이 중국의 古典을 소중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과거의 일본의 王家나 귀족들, 지식인들은 중국의 四書五經을 일본 사회의 기본 聖典으로 존중하였다. 詩經에서 "유신(維新)"의 語義를 착안하고 일본의 정치혁명을 明治"維新"이라고 命名하였다든가, 또는 일본의 明治天皇의 출생일을 天長節[덴쥬세쓰]라고 호칭하였다던가 한 것도 중국이 세계 제국이었던 強盛時代, 唐帝國(616-904)의 玄宗皇帝(재위: 712-755)의 생일을 天長節이라 했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朝鮮과 일본은 고대부터 중국의 문화권에서 文字, 思想, 道德, 정치, 사회제도를 傳承하여 나라를 구성하고 維持하여 왔으며 近世에 와서 서양 문화와 사상, 정치제도 등이 導入되면서 이를 迎合하고 타협하면서 변천했던 時代에 日本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연유로 明治유신(明治維新), 天長節[덴쥬세쓰]이라는 術語를 선정했을까 하는 것과 조선은 일본의 明治유신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과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흥미 있는 論題라고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써 보려고 한다.

이루장(離婁章)과 일본공주의 이름[敬宮 愛子-도시노미야 아이코] 出典인

이루장(離婁章)에서 句節의 뜻

과 漢字를 살펴보자.

"離婁下 第二十八章 에 孟子曰,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者, 人恒愛子 敬人, 人恒敬之."

<해역>—맹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사람을 경애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경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경애한다.

위의 句文의 뜻과 語義의 漢字를 천황과 황태자의 부부 그리고 학자들의 고견(顧見)을 참작하여 택한 公主의 칭호가 敬宮[도시노미야], 이름은 愛子[아이코]로 정해서 敬宮 愛子 樣[도시노미야 아이코 사마]로 命名되었다. 이와같이 日本의 왕가나 지식인들이 오늘날도 중국의 古典과 書經을 계속 공부하는 전통을 지키고 書經의 사상과 이념을 귀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하는 지식인의 學究姿勢는 교양인의 선망(羨望)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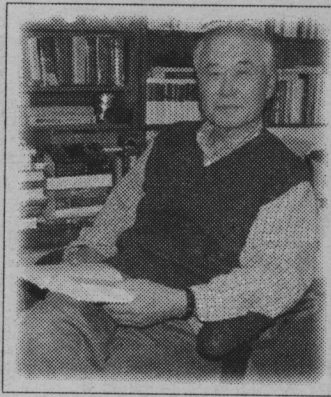
1. 唐나라 현종의 天長節과 明治天皇의 天長節[덴쥬세쓰]

일본의 조선 침략시대에 일본천황의 생일을 天長節[덴쥬세쓰]라고 부르고 공휴일로 제정하고 천황을 찬양하고 대대적인 祝祭宴과 행사를 70세 이상 사람들은 기억할 것으로 생각한다. 敗戰후 일본은 천황의 생일을 천황탄생일로 개칭하였다.

天長節[덴쥬세쓰]의 유래는 왕정 復權革命에 성공한 王政復權派는 明治天皇을 절대적 統治者로 옹립(擁立)했고 明治維新이라 칭호하고 明治天皇의 권위를 과시(誇示)하고 탄생을 찬양하기 위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強盛했고 찬란했던 唐帝國(618-907)의 황제 玄宗(재위:712-755, 妃는 楊貴妃-양귀비)의 탄생일을 天長節이라 절찬한 것을 모방해서 明治天皇을 찬양하기 위하여 출생한 날을 天長節[덴쥬세쓰]로 호칭하고 明治元年(1868년)에 국경일로 제정하였다.

원래는 현종의 생일을 千秋節이라고 하였었는데 중국 문화의 절정기에 달한 천보칠년(天寶七年-748년)에 老子의 사상인 天長地久 즉 天地는 영구하며 무강(無疆)하다는 道理의 "天長"의 두자를 선정하여 天長節로 改稱하고 그들의 문화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사랑하고 경축한다는 뜻이었다.

2. 詩經과 明治維新



1853년 7월에 인도, 중국, 일본 해(海) 지역에 미국 해군함대사령관 "페리"(M. C. Perry)가 4척으로 편성된 艦隊-2척 증기선(汽走軍艦), 2척은 돛단배(帆走軍艦), 당시 일본은 蒸氣船이 없었고(일본은 이 군함들을 黑船[구로후네]라고 불렀음)를 이끌고 江戶灣[에도만-지금의 동경만] 입구인 浦賀[우라가]연안에 정박하고 포탄(砲艦)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일본 德川幕府[도구가와 바구후]에—장군이 집권하는 武人정부 政務廳—미국 F. Pierce 대통령(재위:1853-1857)의 서한을 전달하고 다음해인 1854년 봄에 돌아올 때까지 회담을 원한다는 말을 남기고, Perry 艦隊는 떠났다. 그 서한의 내용은 미국과 일본간의 親和와 開國, 開港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었고, 영문의 원본과 한자로 번역한 서한이었는데 幕府[바구후]에는 英語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20여 년 간 鎖國정책(鎖國政策)을 守護하던—일본인의 해외 출항 금지 등도 포함—幕府는 당황하여 天황에게 보고하고, 각종 지식인들과 상의하니 찬반의 論難으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854년 3월이 되었다.

이번에는 Perry는 미국함대사령관과 對日本國 美國특별大使職을 겸하였으며(공식명: Commander-in-Chief, U.S. Naval Forces East India, China and Japan Seas, and Special Ambassador to Japan.—漢文으로는 亞美理駕 合衆國 特命欽差大臣 專到 日本國 兼管本國師船 現泊 日本海提督 被理— 피리[Perry]라는 직함이었고, [한문에는 인도와 중국 해(海) 표기가 없음] 9척의 강대한 砲艦으로 구성된 함대를 指揮하고 橫濱[요코하마] 연안에 정박하고는 幕府를 위협하고 권세를 과시하면서 수일간 幕府와 협상을 하였으며, 3월 31일에 불평등한 日美和親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역사의 대 변천기의 계기가 되었고, 또한 明治유신의 발단도 되었다. 조약 체결후 幕府의 막료(幕僚)와 모든 大名[다이묘—이 당시는 1만석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武人家]와 귀족들과 지식인층은 鎖國派와 開國派로 갈라져 14년간 논쟁과 政權 쟁탈전 끝에 1868년 1월 3일에 개국파(王政復古派)에 의한 쿠데타의 성공으로 장군 집권체인 幕府는 終幕내렸고 16세 소년 明治天皇을 옹립하고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정치혁명을 하였다. 이상은 간략하게 明治維新의 발단을 설명한 略史이다.

王政復古派는 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하여 유신(維新)이라는 어휘를 詩經에서 찾아내었다. 書經에 기록된 "革命"이라는 뜻은 "天子의 교체는 天命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天命에 의하여 天子를 교체(交替)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라는 뜻이다. 왕정복고파는 明治유신은 "혁명"이 아니고 "유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장의 이론은 "천명에 의하여 일본 천황[천자(天子)]를 교체 한 바 없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도 아니고 다만 [舊] 오래된 일본은 幕府의 집권을 폐기하고 천황이 직접 통치한다."라는 논리이다. "詩經"에 있는 "유신(維新)"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詩經, 大雅, 文王 文王在上(문왕재상) —문왕은 위[하늘]에 있고 於昭于天(어소우천) —아아 하늘은 맑아지고 周雖舊邦(주수구방) —周(주)나라는 오래된 나라인데 其命維新(기명유신) —그것의 命(天命), 維[빗줄기]를 新새롭게 이어간다 有周不顛(유주불현) —어찌 주나라는 顛날아 나지 않을 소내 帝命不昧(제명불시) —帝天命, 천명은 시기를 찾지 아니 한다 文王陟降(문왕척강) —문왕은 天에 陟올라가고 降내려온다 在帝左右(재제좌우) —세상에 있을 때나 세상 떠난 후나 항상 上帝의 좌우 편에 있다

3. 詩經에 써 있는 維新

이 詩經에서 出典되는 維新의 뜻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史記[司馬遷의 著書]의 기록을 보면 周나라는 先史時代, B.C. 약 2205년 堯, 舜시대부터 세워진 오래된 나라이고 왕이 없는 候族이다스리는 나라였다. 殷王朝(서기전1766-1122)시대 까지 周나라는 계속 유지하여 내려 왔으며 서기전 1140년에 후족인 서백창(西伯昌)이 善政을 시행하니 백성들은 왕으로 추대하였고 후일에 周의

「祖 文王이라고 시호(諡號)했고 서기전1135년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인 發(發)이 王位를 계승하고 武王이라고 호칭하였으나 天命을 받지 못하여 天子는 아니었다. 노쇠한 殷나라의 주왕(紂王:서기전 1122년)은 天子의 使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 하여 백성들의 信望을 상실하게된 최후의 殷나라 주왕(紂王)은 天命에 의하여 오래된(舊) 주(周) 나라(邦), 武王에게 양위(讓位)를 하고, 周나라는 正道로 天子의 사명을 받아 왕위를 계승받고 周나라를 새롭고 올바른 통치를 한다는 의미의 語彙가 維新의 原義이다.

日本의 왕정복고파가 主守舊邦의 뜻을 해석하여, 日本은 神話時代에 建國된 즉 "天照大神[아마테라스오미가미]가 建國한 舊邦(오래된 나라)이다" 하고, 其命維新은 "일본 天皇(天子)은 天命을 받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王權을 維이어 받고 그 使命을 새롭게(新)한다" 즉 "天命을 받고, 오래된 日本國[舊邦]의 천황은 幕府정권을 폐기하고 천황이 집권하여 그 사명을 새롭게(新)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이를 明治維新이라고 呼稱하게된 것이다. 즉 日本은 舊邦이고 天子의 正統을 계승한 明治天皇은 합법적으로 일본을 통치한다는 이론이다.

4. 日本은 유럽에서 무엇을 습득하였을까?

14년 간(1854-1868) 일본 국내에서 政權쟁탈전이 진행될 동안 왕정복고파의 貴族들과 知識人들은 青年學生들을 불러서, 영국, 독일 등 구라파에 留學시켰고, 자신들도 유럽을 시찰하면서 문화, 사상, 정치, 국가체제, 경제제도 등 새로운 제도와 지식을 습득했으며, 과학, 산업기술을 도입하여 산업발전을 추진시켰다.

19세기 중엽의 유럽각국의 정치, 경제, 사상, 국가체제 등의 변천은 불란서 혁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佛蘭西革命의 발단은 지식인의 개혁운동에서 시작하였다. King Louis 16世(재위:1774-1792년에 사형)의 구 군주체제(Old Regime)는 불란서 시민의 정치구조 개혁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The National Assembly [국가의회]가 설치되고 있었으며, 이 국가의회는 3개의 Estates로 구성되었고, 이 3개 합동의회를 Estates-General[삼부회]라고 하였다.

<11면에 계속>

<10면에서 계속>

First Estate는 [聖職者會], Second Estate는[貴族會]이며 Third Estate는[일반 시민, 중산층 지식인들의 회]였다. 1789년에 知識人會[Third Estate]가 주동이 되어 불란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혁신적 정치 개혁에 필수 조건인 국가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성직자회와 귀족회들의 일부회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Declaration of Right of Man and the Citizen' 모든 불란서 사람은 市民權을 보유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가진다고 선언'의 憲章을 을 '국가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선포함으로써, 불란서 시민은 "liberty, property, security, and resistance to oppression- 자유, 소유권, 안전보장, 그리고 압박에 반항 할 수 있다"이라는 基本法이 公布되었고 이로서 모든 市民은 權利와 自由를 보장받았다. 主導權을 장악한 Third Estate는 혁명정권을 세우고 사회지배 구조개혁을 위하여 치열한 논쟁과 패권 쟁탈전을 하였고, 드디어 피의 숙청으로 확대되니 1792년에 Louis 16世가 처형당하는 참혹하고 과격한 혁명으로 極熱化되었고 권력쟁탈전은 계속되었으며 政界는 대혼란의 상황에 처하여 있던 1799년에 Napoleon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804년에 皇帝의 자리에 오르고 1806년에 Holy Roman Empire(건국: 962년)를 폐국(廢國)선언하였다. 나폴레옹은 帝國主義 국가를 건국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나, 1815년에 그의 야망은 실패에 끝났다. 그러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의 제국주의 국가체제를 선망하고 각국에서 이 체제를 채택하여 혁명에 분주하였다.

獨逸은 1867년 연방국으로 독립하였고, 1871년에는 German Empire로 선포하였고, 이탈리아는 Giuseppe Garibaldi 지도하에 1850년대부터 고대 로마제국의 再建을 주창하고 통일 이탈리아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카톨릭 교황청(敎皇廳)의 支配領土 문제로 통일 이탈리아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 1871년에 이탈리아 국회에서 지금의 Vatican City를 교황(敎皇)의 領地로 보장한다는 법안 (Law of Papal Guarantees)이 통과함으로써 이탈리아 통일 국가를 건립하였다.

英國은 立憲王政 국가로 貴族院 (House of Lord)과 下院 (House of Common)이 있고 內閣責任制의 정치체제로 사회가 안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최강국(最強國)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은 유럽국가의 제국주의 정치체제와 국제정세를 觀察하는 한편 또한 제국주의국가 상징과 권세의 과시의 수단방법도 배웠다.

나폴레옹은 불란서 제국의 皇帝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군복으로 의장(儀裝)하고 權威와 權勢를 자만하였다. 이것이 제국주의국가의 황제의 상징이 되어 유럽 국가들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왕이나 황제들이 모방하였다. 일본도 유럽나라의 흉내를 내어 明治天皇이 서양 군복으로 의장하였다. 1897년에 조선도 國號를 大韓帝國이라 개칭하고 조선 최후의 왕 純宗 (재위 1907-1910폐위)을 皇帝라고 호칭하고 서양식 군복의장을 입었다. 일본서 군사교육을 받은 장개석은 中國의 文官服 皇帝儀裝의 傳統과 역사를 파기하고 西洋皇帝儀裝을 흉내내었다. 현재도 英國을 위시하여 노르웨이, 스페인, 泰國 등 여러 나라 왕들은 軍服의 의장이 正裝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天下를 통일한 모택동은 중국의 전통을 지켜 民服을 着用하였다.

그 시대의 유럽의 經濟는 資本主義와 産業革命의 성취로 盛況기 (盛況期)를 이루고 문화면에서도 문학, 예술은 물론, 자유사상, 인권운동 등등 현대 국가화에 진전하고있는 시대였다.

5. 模倣과 日本의 發展

유럽에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 지식인들과 천황집권체제를 주도한 정부최고 요인은 소장들이었으며 최고 年長者, 岩倉[이와구라]는 46세, 西郷隆盛[사이고다가모리] 43세, 다음은 41세이고 나머지 4, 5명은 30대들이었으며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伊藤博文 [이도히로부미-1909년 安重根에 의해 살해됨]는 30세의 弱冠이었다. 이들 소장 야심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定義한 정의감과 명예심이 강고했고, 개혁이 자신들의 임무이고 사명으로 생각했던 富裕層 출신 소장(小壯)들은 재물(財物)은 위선(爲先)이 아니었다. 이들이 주관하는 정부는 유럽의 자본주의 산업개혁 체제를 채택하여 經濟成長도 했고, 자유사상,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인권, 교육 제도 등을 모방했고, 생활수준도 향상시켰다. 정치혁명과 산업개혁을 성취하여 富強해짐을 과신한 이들 정치野望家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西洋諸國과 對等하게 帝國主義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군수공장을 설치하고 무기를 생산하고 군함을 건조하여 군대를 현대화하였으며 무장강국으로 등장하였고 외국 침략을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침략정책으로 전환한 일본은 침략정략에 유리한 국가 체제로 개혁하기 위하여 天

皇의 獨裁帝國體制를 채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軍國主義 국가로 등장하였고, 싹트기 시작했던 自由民權運動을 탄압하고 정당과 의회를 해체시켰다. 명치유신을 시작해서 21년 후 인 1889년에 일본 정부는 유럽 제국들의 제국주의 헌법을 모방하고 일본 고유의 전통과 애국심을 가미해서 大日本帝國憲法을 제정, 선포하니 軍部 세력이 강화되었고 본격적으로 외국 침략을 시작하게 되었다.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일 조에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천황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통치자라고 정의를 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天皇의 統治를 보조하는 [贊賞요구상] 기관이다. 제3조에 "천황은 神聖하니 不可侵이다"라고 했고, 유럽 제국의 憲法에 宗教自由의 조항이 기재 되어 있음을 모방해서, 일본 헌법에도 종교는 자유라고 明記하였다. 그러나 佛敎國인 일본의 神道는 종교가 아니고, 일본고유를 상징하고 일본민족의 先祖의 靈을 경배하는 敎理를 가진 것이 神道라고 주장하고 國敎로 하였고 神道の 敎主는 天皇이고 超人間的 존재로 神格化하였다. 이 헌법을 흥정헌법 [欽定憲法-천황이 백성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후일 한국의 朴正熙는 흥정헌법을 複製하여 헌법을 개헌하고 '維新憲法'이라고 詐稱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같이 維新憲法이란 天命을 받아 合法的으로 政權을 移讓하고 헌법을 정하여 그 사명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大日本帝國憲法の 制定은 軍國主義 獨裁政府로 遁갑(遁甲)한 謀計였고 외국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과 술책이었다. 強大해진 일본 군대는 1905년의 日露戰爭에서 동양 군대로서는 처음으로 서양인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한 일본군부는 더욱 의기양양하여 朝鮮을 침략점령하고 중국과의 侵略전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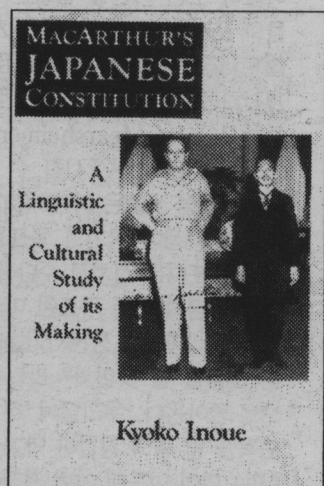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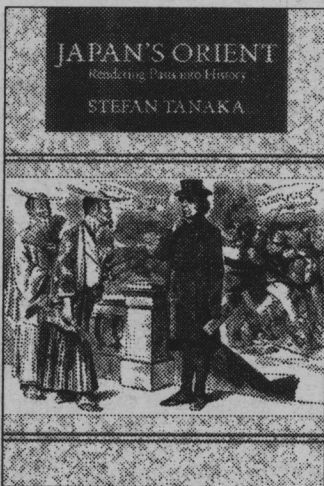
挑發시켰다. 日露戰爭에 勝利로 內閣政府내에서 세력이 강력해진 일본軍部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謀反을 계획하였고, 1932년에는 해군 청년장교들이 주도하고 육군 청년장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가담해서 犬養[이누가이]수상을 射殺하고 군국주의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기도했던 쿠데타[5. 15 사건]는 미수로 끝났고, 4년 후인 1936년에는 王道派 육군청년장교 22명이 주동이 되어 1400여명의 병사가 동원되어 수상 官邸, 국회 의사당, 陸軍省을 점령하는 대규모 쿠데타[2.26 사건]도 미수로 끝난 사건이 있었다. 드디어 1941년 10월에는 형식뿐인 文官 내각을 축출(逐出)하고 현역 육군대장 東條秀機[도오조히데기]가 국무총리에 취임하고 陸軍省, 內務省의 大臣職도 겸임하고 모든 권력을 군인들이 장악하였다.

現役 軍人이 주도한 東條內閣은 1941년 12월 8일에 미국, 영국에 宣戰布告를 하고 전쟁을 감행하였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은 영국, 미국에 항복하였으며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지배하였다. 1946년 11월에 미국이 마련한 "일본국헌법"-MacArthur 사령부가 제정한 헌법-을 下賜하니 일본은 甘受하여 이를 선포했고, 統治權은 天皇에서 國民에게 移讓되고 自衛隊만 있고 군대가 없는 명색뿐인 獨立國으로 환생하였다. 일본은 6.25 동란의 전쟁경기를 타고 산업재건에 전환기를 마지막과 꾸준한 경제발전을 성취하여 세계 제2위의 經濟國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동양방위 전략을 위하여 일본과 공동 국가방위를 한다는 합의에 따라 日本은 미국에 軍事基地를 제공하여야 했고 미국 군대는 오기나와, 요코스카등지에 주둔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 세력의 지배권역에 所屬되어 있어, 약

50년 전에 미국 軍艦隊 사령관(司令官) M.C Perry와 1854년에 不平等條約을 체결한 굴욕적 劣等意識과 미국에 降伏한 열등의식은 아직도 일본 국민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明治維新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일까? 평가 기준은 물질문화를 優先으로 한 價値觀을 가진 사람들과 정신문화를 소중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 즉 劣等意識을 갖고 있지만 경제력이 높고 생활이 윤택하니 열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계층과, 경제력이 좀 미약하더라도 열등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知識層이 있는가 하면 時代를 錯覺한 極右派 지식층들은 최근(2002년)에 劣等感을 克服하지는 運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극우파들이 조직한 "일본의 건국을 경축하는 회"에 拓殖[다구소구], 小田村四郎 [오다무라시로우]總長이 회장이 되어 "神武[진무]建國의理想"을 主唱하고 일본의 자주독립국 재생을 強辯하고 있으며, 一橋[히도쓰바시]대학, 渡邊治[와다나베오사무]교수는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天皇制를 考慮한다" 라는 會議에서 군사 대국을 건설하고 靖國神社[아스구니 진자]를 참배도 하고 일본 제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역사학자들 과 護憲團體, 敎職員組合이 주관하는 集회에서 明治學院大學 敎授인 淺井基文[아사이도모후미]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서 해방되고 고유의 정치 정책을 건립하여야 하며, 有事立法은 일본의 自衛權과 무관하며, 美國의 침략전쟁의 동맹국이 될 것이다 라는 등 그들의 항복의 굴욕을 설욕하겠다는 고민의 遺産이 바로 明治維新의 성과를 過信한 경박한 정치인들과 무모한 군인들의 과오에 起因한 것이라 하겠다.

(필자 연락처: ks-han@rogers.com)



<하수상한 시절의 권장 도서> 사진 左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xi+305면 사진 右 Kyoko Inoue, MACARTHUR'S JAPANESE CONSTITUTION, A linguistic and cultural study of its mak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xii+378면

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金宗瑞
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잔데
萬里邊城에
一長劍 짚고 서서
긴과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제2차 對이락戰爭과 전쟁정치학(號外)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없이 이 전쟁은 테러로부터

美國 內의 安否를 지킬 것인가?

[편집자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3년 3월 19일 수요일 22시 15분에 이락 攻擊을 명령하였다. 戰爭은 平和를 회복하기 위한 劇藥處方이다. 유명한 전략이론가 Clausewitz는 戰爭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국가 의지의 달성 행위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전쟁은 많은 人命의 喪失과 무자비한 破壞를 수반한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에게는 고독한 결단을 요구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戰爭목표와 수단간의 균형에 관한 현명하고도 유연한 판단이 요구되는 悲劇이다.

백림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른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미국은 도전자 없는 탁월한 世界唯一의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自由의 나라 美國은 反人類, 反文明의 神風 특공대의 만행(蠻行)으로 그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가 진주만의 잠수함처럼 침몰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상하기 어려운 慘事, 9·11 테러의 근원을 拔本하기 위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帝國主義의 잇따른 희생이 되어 가난에 찌든 아프가니스탄에 파고든 基地(알카에다)를 肅清(緘緘)하여 潰滅시켰다. 이제 그 無敵의 군사력을 아라비아의 사막에 집결시켜 12년 전의 "사막의 暴風" 작전에서 끝내지 못한 蛇痰(사담)잡기에 나섰다. 이번 "이락의 自由" 회복작전이란 수공하기 어려운 "예방적 공격"의 군사 전략을 시도하여 지금까지 세계평화 유지의 근간이 되어온 UN 집단안보보장제도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세계최첨단의 무기를 시험하며 "大量殺傷"을 동반하는 새로운 軍事戰略이론을 부시 米國은 집행하였다. 이는 自衛의 개념에 입각한 전통적인 國際法에 명백한 도전이다. 구주의 NATO 중심 同盟國들이 불란서와 독일을 old Europe이라 러미 국방장관이 불필요하게 貶下하여 外交의 紳士儀典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만으로 이락의 休戰協定위반에 대한 UN의 제재조치라는 名分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비등(沸騰)하는 反戰輿論과 미국 내에서 고등학생까지 나서는 平和갈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무력재제조치의 이락의 공격을 허용하는 決議案을 얻을 수 없자, 大西洋의 외딴 줄리온(Azores) 섬에서 19세기 이후 그 帝國主義정책으로 현재의 中東평화의 확보에 至難한 장애가 되는

懸案들의 씨를 뿌린 영국(零國)과 근대초기에 新世界의 "발견과 정복"에 앞장섰고 이제는 맥없는 食客과 같은 서반아와 미국(迷國)은 삼총사가 되어 "뜻 있는 자들의 同盟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 하여 모였으나 난감한 空論을 끝으로 명백하게 기존의 반국제법적 공격행위를 결행하였다.

인터넷과 급격한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국제 정치의 현실은 전쟁의 공격과 방위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시 되고 질서와 무질서, 공포와 불안의 사회상황을 대처할 새로운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시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테러의 근본요인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맥없이 UN의 사찰에 順應해 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락을(아라비아 반도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25만 명의 美軍事力의 威脅에 굴복한 것이긴 하지만), 전문가적인 중립성을 보여주는 무기사찰단이 제기한 추가사찰기간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흥미한 삼총사 연합군은 28만 여명의 병력을 집결하여 최첨단 무기와 폭약을 퍼부어 "나는 안 다치고 너만 없애겠다"는 非英雄의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惡黨들을 제거하고 갈채 받는 용감한 황야의 牧童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공상비디오게임에서 불직한 비인간적 전쟁으로 무고한 民間人의 막심한 피해가(불가피한 collateral damage라는 이름으로 糊塗하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이 과연 국제정치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용인되는 전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면 熱砂의 여름이 오면 기진할 집결된 兵士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지만, 國家利益과 대외정책의 費用만을 계산하는 가장 냉혈한 군사전략가들마저(John Mearsheimer) 주장하는 사담을 枯死시킬 수 있는 封鎖정책을 米國은 외면하였다.

만약 전쟁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또다른 정치적 수단이라면 이번 전쟁의 기본 목표인 미국 국가의 국내안전을 증진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우리말에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막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전쟁에 따른 이슬람 지역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자생적인 테러분자들을 아무리 요새화한 국경과 공항이라지만 새로 창설된 Homeland

Security Department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전쟁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후세인 政權의 전복 후에 야기될 각종(錯綜)한 난마(亂麻)와 같이 엮힌 이락과 中東의 地政學적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였는가? 人種的, 宗教的인 갈등에 따른 피의 복수의 물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로운 "民主體制"의 수립이란 낭만적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연간 200억에서 1,200억 달러로 현재 추정되는 엄청난 재정적, 군사적 부담을 미국과 세계경제는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작금의 부시전쟁정책은 共和黨의 전통적인 균형財政정책의 원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6개월간의 전쟁수행비용으로 7백47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제 세계인류문명의 가장 오랜 발원지의 하나이며, 그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는 神의 創造 역사의 첫 장면의 臺本이 되는 Gilgamesh 神話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과파가 진행중이다. 開戰 이후 미국의 戰時인론은 이제 "이락전쟁 觀戰法"(NYT, 3월 21일자 How to Watch the War)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그 論調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전쟁초기에 油田을 지킬 방안이 섰다는 소식에, 이번 전쟁에 대하여 전통적인 국제법의 입장에서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불란서를 전쟁을 불가피하게 한 요인으로 비방하는 논조를 펴며 (Wall Street Journal) 추악한 전쟁 경제학의 修辭를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번 전쟁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 인류의 관심사가 된 얼굴 없는 테러범의 不安과 恐怖와 無秩序로부터 문명생활의 규범과 美國의 안전을 지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라는 전쟁정치학의 기본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쟁은 9·11 테러 사태의 근원에 있는 팔레스타인·아랍 분쟁을 공정한 중재자(仲裁者)로서 해결하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度量으로써 평화를 확보할 책임에 직면함이 없이 지금까지의 세계역사상 흔히 보아온 패권주의(霸權主義)를 넘어서서 제국의 평화를 위한 제국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無政府적인 국제정치구조에서 부시행정부가 당면한 人本主義적인 세계질서의 회복이라는 과제는 지구상의 유일 초강대국에게 부과된 큰 짐 임은 틀림없다. 다시 말하지만 戰爭은 平和를 회복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 나라의 政治체제가 가진 문

제점들은 그 나라의 역사적인 굴곡된 변천과정에 따라 누적된 것이므로, 그 변화의 힘과 방향이 그 나라 내부에서 自生的으로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고 外勢에 의한 급격한 정치체제변화가 시도될 경우에는 더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경험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北韓이 무모한 核開發 정책과 탄도포 시험발사로 韓半島와 그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까지의 공평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이락전쟁 종식 후에 어떤 軍事戰略과 외교정책을 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도 이 전쟁의 推移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재미서

울대동창회보는 많은 同門들의 無關心과 일차원적인 地域主義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그 존재의의와 존재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새해 들어 두 달째 동창회보의 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의 최고 지성인들의 論壇의 소명을 외면할 수 없다. 이제 진행중인 제2차 對이락전쟁이 제기하는 세계 인류의 共存과 平和라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에 드리운 暗雲을 헤쳐가기 위하여 우리동문들의 글과 비교적 균형된 언론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美國時論 몇 개를 다음과 같은 주제로 모아, 이번 전쟁이 내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世界平和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는 우리동문들의 지혜로운 옥고를 기다린다.]

이 戰爭은 부시外交의 실패

War in the Ruins of Diplomacy (NYT의 對이락공격前夜의 社說 March 18, 2003)

America is on its way to war. President Bush has told Saddam Hussein to depart or face attack. For Mr. Hussein, getting ri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no longer an option. Diplomacy has been dismissed. Arms inspectors, journalists and other civilians have been advised to leave Iraq.

The country now stands at a decisive turning point, not just in regard to the Iraq crisis, but in how it means to define its role in the post-cold-war world. President Bush's father and then Bill Clinton worked hard to infuse that role with America's traditions of idealism, internationalism and multilateralism. Under George W. Bush, however, Washington has charted a very different course. Allies have been devalued and military force overvalued. Now that logic is playing out in a war waged without the compulsion of necessity, the endorsement of the United Nations or the company of traditional allies. This page has never wavered in the belief that Mr. Hussein must be disarmed. Our problem is with the wrongheaded way this administration has gone about it. Once the fighting begins, every American will be thinking primarily of the safety of our troops, the success of their mission and the minimization of Iraqi civilian casualties. It will not feel like the right time for complaints about how America got to this point.

Today is the right time. This war crowns a period of terrible diplomatic failure. Washington's worst in at least a gene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now presides over unprecedented American military might. What it risks squandering is not America's power, but an essential part of its glory. When this administration took office just over two years ago, expectations were different. President Bush was a novice in international affairs, while his father had been a master practitioner. But the new president looked to have assembled an experienced national security team. It included Colin Powell and Dick Cheney, who had helped build the multinational coalition that fought the first Persian Gulf war. Condoleezza Rice had helped manage a peaceful end for Europe's cold war divisions. Donald Rumsfeld brought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stretching back to the Ford administration. This seasoned team was led by a man who had spoken forcefully as a presidential candidate about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wear its power with humility, to reach out to its allies and not be perceived as a bully.

But this did not turn out to be a team of steady veterans. The hubris and mistakes that contributed to America's current isolation began long before the attacks of Sept. 11, 2001. From the ad

ministration's first days, it turned away from internationalism and the concerns of its European allies by abandoning the Kyoto Protocol on global warming and withdrawing America's signature from the treaty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ussia was bluntly told to accept America's withdrawal from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nd the expansion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into the territory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Middle East, Washington shortsightedly stepped back from the worsening spiral of violen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gnoring the pleas of Arab, Muslim and European countries. If other nations resist American leadership today, part of the reason lies in this unhappy history.

The Atlantic alliance is now more deeply riven than at any time since its creation more than a half-century ago. A promising new era of cooperation with a democratizing Russia has been put at risk. China, whose constructive incorporation into global affairs is crucial to the peace of this century, has been needlessly estranged. Governments across the Muslim world, whose cooperation is so vital to the war against terrorism, are now warily navigating between popular anger and American power.

The American-sponsor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was withdrawn yesterday had firm support from only four of the council's 15 members and was opposed by major European powers like France, Germany and Russia. Even the few leaders who have stuck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like Tony Blair of Britain and Jose Maria Aznar of Spain, have done so in the face of broad domestic opposition, which has left them and their parties politically damaged.

There is no ignoring the role of Baghdad's game of cooperation without content in this diplomatic debacle. And France, in its zest for standing up to Washington, succeeded mainly in sending all the wrong signals to Baghdad. But Washington's own destructive contributions were enormous: its shifting goals and rationales, its increasingly arbitrary timetables, its distaste for diplomatic give and take, its public arm-twisting and its failure to convince most of the world of any imminent danger.

The result is a war for a legitimate international goal against an execrable tyranny, but one fought almost alone. At a time when America most needs the world to see its actions in the best possible light, they will probably be seen in the worst. This result was neither foreordained nor inevitable.

對이락전쟁과 기독교의 정당한 전쟁이론[正戰論]에 관하여

백 순 (법대 58년 입, 국연방노동성선임경제학자)

對이락전쟁과 기독교의 정당한 전쟁이론[正戰論]에 관하여

백 순 (법대 58년 입, 국연방노동성선임경제학자)

3월17일 20:00에 부시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에게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후 3월19일 22:15에 대이라크 공격을 명령하였다. 開戰 이후 세계로부터 찬사와 유감과 비판이 엇갈린 輿論이 들끓고 있다.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부시의 전쟁정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유엔 安保理 회원국들과 여러 국가들이 비판 내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戰爭의 불가피성의 同意하는가 하면, 30% 정도는 전쟁에 反對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어떤 시민단체들은 부시의 대이락전쟁에 찬동하는가 하면, 미국과 세계의 주요도시에서 反戰대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계에 대이라크 전쟁이 正當한 戰爭(Just War)인가 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존 폴2세 법왕, 미국 카톨릭 대주교회의, 연합감리교회, 에피스코팔 교단, 미합중국장로교단 등 기독교교회들이 대이락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톨릭 法王은 지난 1월 13일 각국 외교단 회의에서 "전쟁은 국가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수단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비록 공동선을 추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쉽게]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오직 마지막 선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카톨릭 학자인 미카엘 노박은 共同善을 추구하는 지위에 있는 當局者가 이 戰爭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에 찬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로교단과 침례교단에서도 부시의 대이락 전쟁수행을 지지하는 聖職者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대이라크 전쟁은 '정당한 전쟁'(Just War)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1970년도 베트남전쟁 때와 1992년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Desert Storm의 대이라크 전쟁을 수행했을 때에도 정당한 전쟁의 논쟁이 대두한 적이 있다. 正戰論의 역사는 西洋 중세의 기독교 神學者인 St. Augustine과 St. Aquinas에 까지 소급이 된다. 聖經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립된 정당한 전쟁이론은 20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인류에게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거론이 되어 왔다. 正戰論의 쟁점은 (1) 전쟁수행의

정당성(jus ad bellum), (2) 전쟁행위의 정당성(jus in bello), (3) 전쟁종식의 정당성(jus post bellum) 등 3분야로 구분된다.

현대의 예로서, 2차대전이 끝나고 뉴렘버그 전쟁범죄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무엇이 정당한 전쟁이고 무엇이 부정한 전쟁이나에 대한 論難이 있었다. 正戰論者들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要件이 充足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기방어, 순결한 사람 등의 보호, 惡에 대한 응징 등 전쟁수행의 原因이 정당해야 하고 (just cause), (2) 특정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등 전쟁수행의 의도가 옳아야 하고(right intention), (3) 합당한 당국이 결정하여(proper authority) 공개선언(public declaration)을 해야하고, (4) 전쟁은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 되어야 하고, (5) 승리할 확률(probability of success)이 높아야 하고, 끝으로 (6) 전쟁의 目的과 被害의 均衡성(Proportionality)이 맞아야 한다는 것 등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시대통령의 대이락 전쟁은 정당한 전쟁인가? 라는 질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부시의 이번의 대이락전쟁은 정당한 전쟁의 6가지 요건중 절반은 充足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락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고, 테로집단과의 연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대이라크 공격을 할 수 없으며 [(1) 정당한 이유의 요건충족], 대이락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부시의 의도가 미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2) 옳은 의도의 요건충족],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승리할 확률이 높기 [(5) 높은 승리확률의 요건충족]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정당한 전쟁요건에 대하여는 論爭의 여지가 있다.

첫째, 합당한 당국의 전쟁결정 [위의 요건 (3)]에 관한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 그런대로 세계의 平和를 유지하는데 根幹이 되어온 集團安全保障 제도인 유엔 안보리의 決意를 거치지 않고, 미국이 戰爭을 시작하였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unilateral)이고 거만한(arrogant) 정책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현재 특히 유럽으로부터 反美, 反戰의 운동이 세력을 얻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美國이 대이라크 戰爭을 惹起한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충분히 한 다음에 불가피해



진, 마지막 수단이나 [(4)의 요건]하는 비판이 있다. 불란서, 독일, 러시아 등을 주축으로 하는 安保理 회원국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엔주재하의 이락의 대량살상무기 査察 기간을 몇 개월 延長한다는 등의 다른 代替方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전쟁 목적과 피해의 衡平性에 관한 문제[(6)의 요건]이다. 대이라크 전쟁 수행으로 후세인의 정권을 전복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과 일반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collateral damage) 등의 副作用이 상상이상으로 엄청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쟁자체의 物理的 피해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戰後 이라크에 잠재하고 있는 複雑 人種간의 연합이나 협력의 달성이란 至難한 문제를 충분히 대비하는 문제 및, 바티칸의 안젤로 소다노 大主教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 후에 이슬람 세계로부터 더욱 高潮될 敵愾心과 敵對行爲를 오랫동안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3가지 문제를 부수행정부가 잘 해결하면 이번의 대이라크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에서 基督敎의 聖經이 가르치고 있는 戰爭에 대한 두가지 眞理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舊約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懲戒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고 수행한 '거룩한 전쟁'(holy war)이었다는 성격을 지닌다. 또 新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보다는 平和를 강조하였고 基督敎會는 전쟁을 善과 惡의 '靈的 戰爭'(spiritual war)으로 간주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누구나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심각한 질문을 외면할 수 없다. 만일에 부시대통령이 正戰論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대이라크 전쟁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 지속될 크나큰 잠재적인 평화의 위협을 외면한 채 戰鬪없는 平和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이 과연 지구상의 온 인류가 바라는 "眞正한 平和"일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투고일: 2003년 3월 21일)

부시의 開戰宣言文 전문

米國은 無力한 UN을 믿을 수 없다

Text: Bush's Speech on Iraq (NYT, March 18, 2003) Following is a transcript of President Bush's speech last night on Iraq, as recorded by The New York Times:

My fellow citizens, events in Iraq have now reached the final days of decision.

For more than a decad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have pursued patient and honorable efforts to disarm the Iraqi regime without war. That regime pledged to reveal and destroy all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condition for ending the Persian Gulf war in 1991. Since then the world has engaged in 12 years of diplomacy. We have passed more than a dozen resolutions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e have sent hundreds of weapons inspectors to oversee the disarmament of Iraq. Our good faith has not been returned.

The Iraqi regime has used diplomacy as a ploy to gain time and advantage. It has uniformly defi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manding full disarmament. Over the years, U.N. weapon inspectors have been threatened by Iraqi officials, electronically bugged and systematically deceived. Peaceful efforts to disarm the Iraqi regime have failed again and again because we are not dealing with peaceful men. Intelligence gathered by this and other governments leaves no doubt that the Iraqi regime continues to possess and conceal some of the most lethal weapons ever devised. This regime has already u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Iraq's neighbors and against Iraq's people. The regime has a history of reckless aggression in the Middle East. It has a deep hatred of America and our friends. And it has aided, trained and harbored terrorists, including operatives of Al Qaeda.

The danger is clear. Using chemical, biological or, one day, nuclear weapons, obtained with the help of Iraq, the terrorists could fulfill their stated ambitions and kill thousand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in our country or any othe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did nothing to deserve or invite this threat, but we will do

everything to defeat it. Instead of drifting along toward tragedy, we will set a course toward safety. Before the day of horror can come, before it is too late to act, this danger will be remov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he sovereign authority to use force in assuring its own national security. Recognizing the threat to 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Congress voted overwhelmingly last year to support the use of force against Iraq. America tried to work with the United Nations to address this threat because we wanted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We believe in the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One reason the U.N. was found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to confront aggressive dictators actively and early before they can attack the innocent and destroy the peace.

In the case of Iraq, the Security Council did act in the early 1990's. Under Resolutions 678 and 687, both still in eff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re authorized to use force in ridding Iraq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is not a question of authority, it is a question of will. Last September, I went to the U.N. General Assembly and urged the nations of the world to unite and bring an end to this danger. On Nov. 8,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1441 finding Iraq in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and vowing serious consequences if Iraq did not fully and immediately disarm. Today, no nation can possibly claim that Iraq has disarmed, and it will not disarm so long as Saddam Hussein holds power.

For the last four and a half month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have worked within the Security Council to enforce that council's longstanding demands. Yet som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publicly announced that they will veto any resolution that compels the disarmament of Iraq. These governments share our assessment of the danger, but not our resolve to meet it. Many nations, however, do have the resolve and fortitude to act against this threat to peace. And a broad coalition is now gathering to enforce the just demands of the world.

<14면에 계속>

<13면 부시개전선언문 에서 계속>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not lived up to its responsibilities, so we will rise to ours.

In recent days, some governments in the Middle East have been doing their part. They have delivered public and private messages urging the dictator to leave Iraq so that disarmament can proceed peacefully. He has thus far refused. All the decades of deceit and cruelty have now reached an end. Saddam Hussein and his sons must leave Iraq within 48 hours. Their refusal to do so will result in military conflict, commenced at a time of our choosing. For their own safety, all foreign nationals, including journalists and inspectors should leave Iraq immediately.

Many Iraqis can hear me tonight in a translated radio broadcast. And I have a message for them. If we must begin a military campaign, it will be directed against the lawless men who rule your country and not against you. As our coalition takes away their power we will deliver the food and medicine you need. We will tear down the apparatus of terror. And we will help you to build a new Iraq that is prosperous and free. In a free Iraq there will be no more wars of aggression against your neighbors, no more poison factories, no more executions of dissidents, no more torture chambers and rape rooms. The tyrant will soon be gone. The day of your liberation is near.

It is too late for Saddam Hussein to remain in power. It is not too late for the Iraqi military to act with honor and protect your country by permitting the peaceful entry of coalition forces to elimin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ur forces will give Iraqi military units clear instructions on actions they can take to avoid being attacked and destr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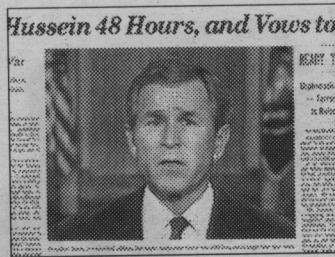
I urge every member of the Iraqi military and intelligence services, if war comes, do not fight for a dying regime that is not worth your own life. And all Iraqi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should listen carefully to this warning. In any conflict your fate will depend on your actions. Do not destroy oil wells, a source of wealth that belongs to the Iraqi people. Do not obey any command to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anyone, including the Iraqi people.

War crimes will be prosecuted. War criminals will be punished. And it will be no defense to say I was just following orders.

Should Saddam Hussein choose confrontation, the American people can know that every measure has been taken to avoid war. And every measure will be taken to win it. Americans understand the cost of conflict because we have paid them in the past. War has no certainty except the certainty of sacrifice. Yet the only way to reduce the harm and duration of war is to apply the full force and might of our military. And we are prepared to do so. If Saddam Hussein attempts to cling to power, he will remain a deadly foe until the end. In desperation he and terrorist groups might try to conduct terrorist operations against the American people and our friends. These attacks are not inevitable. They are, however, possible. And this very fact underscores the reason we cannot live under the threat of blackmail.

The terrorist threat to America and the world will be diminished the moment that Saddam Hussein is disarmed. Our government is on heightened watch against these dangers. Just as we are preparing to ensure victory in Iraq, we are taking further actions to protect our homeland. In recent days American authorities have expelled from the country certain individuals with ties to Iraqi intelligence services. Among other measures I have directed additional security at our airports and increased Coast Guard patrols of major seap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working closely with the nation's governors to increase armed security at critical facilities across America. Should enemies strike our country they would be attempting to shift our attention with panic and weaken our morale with fear. In this they would fail. No act of theirs can alter the course or shake the resolve of this country. We are a peaceful people, yet we're not a fragile people, and we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ugs and killers. If our enemies dare to strike us, they and all who have aided them will face fearful consequences.

We are now acting because the risks of inaction would be far greater. In one year or five years the power of Iraq to inflict harm on all free nations would be mul-



plied many times over. With these capabilities, Saddam Hussein and his terrorist allies could choose the moment of deadly conflict when they are strongest. We choose to meet that threat now where it arises before it can appear suddenly in our skies and cities.

The cause of peace requires all free nations to recognize new and undeniable realities. In the 20th century some chose to appease murderous dictators whose threats were allowed to grow into genocide and global war. In this century when evil men plot chemical, biological and nuclear terror, a policy of appeasement could bring destruction of a kind never before seen on this earth. Terrorists and terrorist states do not reveal these threats with fair notice in formal declarations. And responding to such enemies only after they have struck first is not self-defense, it is suicide. The security of the world requires disarming Saddam Hussein now. As we enforce the just demands of the world, we will also honor the deepest commitments of our country. Unlike Saddam Hussein, we believe the Iraqi people are deserving and capable of human liberty. And when the dictator has departed, they can set an example to all the Middle East of a vital and peaceful and self-governing nation.

The United States with other countries will work to advance liberty and peace in that region. Our goal will not be achieved overnight. But it can come over time. The power and appeal of human liberty is felt in every life and every land. And the greatest power of freedom is to overcome hatred and violence, and turn the creative gifts of men and women to the pursuits of peace. That is the future we choose. Free nations have a duty to defend our people by uniting against the violent. And tonight, as we have done before, America and our allies accept that responsibility.

Good night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America.

[帝國의 평화의 詭辯] Democrats Against Democracy by Lawrence F. Kaplan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19, 2003)

The ghost of Woodrow Wilson walks again. The president who pledged to adopt a more "humble" approach to the world now speaks of remarking the world in America's image, beginning with Iraq, where he has now committed us to building a "prosperous and free" state. But if President Bush's commitment to exporting democracy begins with Iraq, that is also where the commitment of others ends. A chorus of leading Democrats and liberal foreign policy types—that is, voices that once could be counted on to support the promotion of democracy abroad—has emerged to lampoon the president for his "Wilsonian" idealism. Far from being the result of doubts about President Bush's sincerity, their critique questions the broader wisdom of exporting democracy and even the desirability of democracy itself.

Inveighing against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mounting "a massive democratic revolution throughout the Arab world," Gary Hart writes, "The extravagance, not to say arrogance, of this epic undertaking is sufficiently breathtaking in its hubris to make Woodrow Wilson blush." Ted Kennedy scoffs at the administration's "simplistic" vision of "democracy flourishing in Iraq," while Al Gore's national security adviser, Leon Fuerth, is doubtful that the U.S. is capable of installing a "democratic government in a place that has never known one."

According to these voices and their supporters in the liberal foreign-policy community, the inclination to "impose" democracy derives from a lethal mixture of chauvinism, naivete, and hubris. Harvard professor Stanley Hoffmann cannot fathom why the Bush team would wish to remove tyrannical regimes "even in countries that have no past experience of democracy and where repressive regimes face no experienced or cohesive opposition." For her part, former Clinton administration official Jessica Mathews warns that a "crusade on behalf of democracy is arrogant, blind to local realities, dangerous, and ignorant of history."

History? If these doubts about democracy's ability to flourish in foreign soil and America's capacity to plant it there sound familiar, it's hardly because these skeptics have spent years peddling them. On the contrary, the Clinton administration, of which many of them were a part, offered us strategies of "Democratic Enlargement" and "neoWilsonianism." Its interventionist brand of idealism was duly applauded by liberals like Mr. Hoffmann, who even penned an essay—long defense of it, "In Defense of Mother Teresa:

orality on Foreign Policy." In fact, skepticism about democratization was until recently the signature of Kissingerian "realists"—and, as such, enjoyed far more traction among the ranks of the Republican Party than it did among Democrats.

How to account for this transformation? At the simplest level, it derives less from opposition to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than from opposition to its architect. But the looming war has also unearthed a contradiction at the heart of American liberalism. The contradiction pits the liberal ideal that no people ought to be governed without their consent—and its admonition to support the democratic aspirations of foreign peoples—against the liberal ideal that discourages impinging on the autonomy of others. The tension between the two manifests itself every time America goes to war, with liberals who heeded George McGovern's summons to "come home, America" arguing that we have no right to violate the sovereignty of a Yugoslavia or an Iraq, while the descendants of Woodrow Wilson argue that to do otherwise would amount to a betrayal of liberalism.

In his own way, Bill Clinton sought to reconcile these impulses, insisting that American power and ideals were not inherently incompatible. But the suspicion of U.S. might that still lingers on the left, coupled with the fact that President Bush wields that might so unapologetically, has pushed many liberals to the side of noninterference. This has left them making arguments that are not only morally questionable, but also recklessly ahistorical.

One is the claim that "democracy cannot be imposed through force of arms," as the Brookings Institution's Shibley Telhami puts it. Never mind that millions of Germans, Japanese, Italians, Bosnians and Panamanians would argue otherwise. For democracy-skeptics awash in cultural relativism, this is beside the point. Thus, American Prospect editor Robert Kutner indicts the president's democratic vision for embracing the premise that "most of the world, given the choice, really wants to be just like us." But is it really necessary to point out that citizens of nondemocratic states have never been "given the choice" and that liberty is not a uniquely American desire?

Apparently so, for asked to choose between the cause of democracy, on the one hand, and faux anti-imperialism, on the other, not a few opinion-makers have proclaimed themselves liberals against liberalism, Democrats against democracy. And so the task of making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falls to the democrat in the White House. (필자 Mr. Kaplan is a senior editor at The New Republic and co-author, with William Kristol, of "The War Over Iraq: Saddam's Tyranny and America's Mission," published last month by Encounter).

유럽은 왜 이 전쟁을 반대하나?

블랑서 외상의 유엔안보리연설전문
(全文) Statement by France to Security Council (NYT, February 14, 2003)

UNITED NATIONS, Feb. 14 - Following is a transcript of the remarks of the French foreign minister, Dominique de Villepin, befor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day, as recorded by the Federal News Service.

DOMINIQUE GALOUZEAU DE VILLEPIN (Frenc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rough interpreter.) Mr. President, Mr. Secretary-General, distinguished ministers, distinguished ambassadors, I would like to thank Mr. Blix and Mr. ElBaradei for the information they have given us on the continuing inspections in Iraq. I would like to reiterate to them France's confidence and complete support in their work. You know the value that France has placed on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from the outset of the Iraq crisis. This unity rests on two fundamental elements at this time. We are pursuing together the objective of effectively disarming Iraq. We have an obligation to achieve results. Let us not cast doubt on our common commitment to this goal. We shoulder collectively this onerous responsibility, which must leave no room for ulterior motives or assumptions.

Let us be clear. Not one of us feels the least indulgence towards Saddam Hussein and the Iraqi regime. In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1441, we collectively expressed our agreement with the two-stage approach proposed by France: disarmament through inspections and, should this strategy fail,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of all the options, including the recourse to force. It was clearly in the event inspections failed and only in that event that a second resolution could be justified.

The question today is simple. Do we believe in good conscience that disarmament via inspections is now leading us to a dead end, or do we believe that the possibilities regarding inspections presented in 1441 have still not been fully explor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France believes two things. First, the option of inspections has not been taken to the end. It can provide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imperative of

disarming Iraq. Secondly, the use of force would be so fraught with risk for people, for the region and for international stability that it should only be envisioned as a last resort.

So what have we just learned from the reports by Mr. Blix and Mr. ElBaradei? We have just learned that the inspections are purchasing results. Of course, each of us wants more, and we will continue together to put pressure on Baghdad to obtain more. But the inspections are purchasing results. At earlier reports to the Security Council on 27 January, the executive chairman of UNMOVIC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IAEA identified in detail areas in which progress was expected. Significant gains have now been made on several of these fronts.

In the chemical and biological areas, the Iraqis have provided the inspectors with new documentation. They have also announced they are reestablishing two commissions of inquiry, led by former officials of weapons programs in accordance with Mr. Blix's requests. In the ballistic area, the information provided by Iraq has enabled the inspectors to make progress. We now know exactly the real capabilities of the Al-Samoud missile. The unauthorized programs must now be dismantled in accordance with Mr. Blix's conclusions. In the nuclear domain, useful information has been given to the IAEA on the most important points discussed by Mr. ElBaradei on 27 January. The acquisition of magnets that could be used to enrich uranium and the list of contacts between Iraq and the country likely to have provided it with uranium. And so here we are at the heart of the logic of Resolution 1441, which must ensure effective inspections through precisely identifying banned programs and then eliminating them. We all realize that success in the inspections presupposes that we get full and complete cooperation from Iraq. France has consistently demanded this.

Real progress is emerging. Iraq has agreed to aerial reconnaissance over its territory; it has allowed Iraqi scientists to be questioned by inspectors without witnesses; a bill barring all activities link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s being adopted,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long-standing request from the inspectors; and Iraq is providing a detailed list of experts who witnessed the destruction of military programs in 1991.

France, naturally, expects these commitments to be (durably) verified as facts. Beyond that, we must maintain strong pressure on Iraq so that it goes further in its cooperation. Progress like this strengthens us in our conviction that inspections can be effective. But we must not shut our eyes to the amount of work that still remains. Questions still have to be cleared up, verifications made, and installations and equipment probably still have to be destroyed. To do this, we must give the inspections every chance of succeeding. I made some proposals to the council on 5 February, and since then, we detailed them in a working document addressed to Mr. Blix and Mr. ElBaradei, which was distributed to council members. What is the spirit of those proposals? They are practical and concrete proposals that can be implemented quickly. They are design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nspection operations. They fall within the framework of Resolution 1441, and consequently, they do not require a new resolution by this council. They come to support the efforts of Mr. Blix and Mr. ElBaradei, who are, naturally, the best place to tell us which ones they wish to ensure maximum effectiveness in their work. In their reports, they have already made useful and operational comments. France has already announced it has additional resources available to Mr. Blix and Mr. ElBaradei, beginning with our Mirage IV reconnaissance aircraft.

Oh, yes, I hear criticism. There are those who think that inspections, in their very essence, cannot be effective at all. But let me recall that that was the very foundation of Resolution 1441, and that inspections are producing results. One may judge them inadequate, but the results are there. Then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continuing the inspection process is a kind of delaying tactic to prevent or avert military intervention. That naturally raises a question of how much time is allowed Iraq. And this brings us to the heart of the matter. What is at stake is our credibility and our sense of responsibility. Let us have the courage to see things as they are. There are two options. The option of war might seem a priori to be the swiftest, but let us

not forget that having won the war, peace has to be built. Let us not delude ourselves. This will be long and difficult because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rve Iraq's unity and to restore stability in a lasting way in a country and a region harshly affected by the intrusion of force.

Faced with that prospective, there is an alternative -- inspections -- which allow us to move forward day by day with the effective and peaceful disarmament of Iraq. In the end, is that choice not the most sure and most rapid? No one today can claim that the path of war will be shorter than the path of inspections. No one can claim that it would lead to a safer, more just, more stable world, for war is always the sanction of failure. Would this be our sole recourse in the face of the many challenges at this time?

So let us give the United Nations inspectors the time they need for their mission to succeed, but also let us all be vigilant and ask Mr. Blix and Mr. ElBaradei to report regularly to the council. France, for its part, would propose another meeting on 14 March at the ministerial level to assess the situation. We would then be able to judge the progress made and what remains to be done.

Given this context, the use of force is not justified at this time. There is an alternative to war: Disarming Iraq via inspections. Moreover, premature recourse to the military option would be fraught with risks. The authority of our action is based today on the un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mature military intervention will bring this unity into question, and that would detract from its legitimacy and in the long run, its effectiveness. Such intervention could have incalculable consequences for the stability of this scarred and fragile region. It would compound the sense of injustice, increase tension and risk paving the way to other conflicts.

We all share the same priority: Fighting terrorism mercilessly. This fight requires total determination. Since the tragedy of September 11, this has been one of the highest priorities facing our peoples. France has been struck hard by this terrible scourge several times, and it is wholly mobilized in this fight which involves all of us, which we must pursue together. That was the sense of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held on 20 January and France's initiative.

Ten days ago, the U.S. secre

ary of State, Mr. Powell, reported alleged links between al Qaeda and the Baghdad regime. Given the present state of our research and intelligence in liaison with our allies, nothing allows us to establish such links. But we must assess the impact that disputed military action would have on this level. Would such intervention today not be liable to exacerbate divisions between societies, cultures, peoples; divisions that nurture terrorism?

All along, France has been saying we do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ce may have to be used one day. If the inspectors reports concluded it was impossible to continue inspections, the council would then have to take a decision and its members would have to meet all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such an eventuality, I just want to recall now the questions I stressed at our last debate on 4 February, which we must answer. To what extent do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threat justify immediate recourse to force? How do we ensure that the considerable risks of such intervention can actually be kept under control? In any case, in such an eventuality, it is the un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would ensure and guarantee its effectiveness. It is the United Nations that, whatever happens, will still tomorrow be at the center of the peace to be built. To those who are anguished, wondering when and how we are going to cede to war, I would like to say that nothing at any time in this council will be done in haste, in misunderstanding, out of suspicion or out of fear.

In this temple of the United Nations, we are the guardians of an ideal, the guardians of a conscience. The onerous responsibility and immense honor we have must lead us to give priority to disarmament through peace. This message comes to you today from an old country, France, from a continent (inaudible) Europe that has known war, occupation, barbarity. It is an old country that does not forget and is very aware of all it owes to freedom fighters who came from America and elsewhere. And yet France has always stood upright in the face of history before mankind. Faithful to its values, it wants resolutely to act together with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ance believes in our ability to build together a better world.

Thank you, Mr. President.

편들기

盧鎔冕(의대 55년졸, 뉴욕지구 동창회 이사장)



우이면, 변호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그것이 뚜렷하지 않을 개연성(蓋然性)을 제시해야한다. 그럴 때 배심원들이 누구의 편을 들겠는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陪審員 구성을 위하여, 辯護士는 피고인의 편을 들만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檢事는 피고인의 편을 아니들 사람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判決을 좌우한 예들을 많이 보았다. 배심원이 없는 재판에서 판사가 단독으로 내리는 판결도 위험할 때가 있지만, 편들기가 심한 무지막지(無知莫知)한 배심원들이 내리는 결정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옛날 미국 남쪽에서 흑인들이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징역을 가지 마련이었다. 그들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면 범죄를 증명하려는 경찰수사도 매우 소홀히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法廷은 白人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廣場(forum은 forensic medicine 法醫學의 語原)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뉴저지의 한인 사업가가 미국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그 사업가는 법정에서 有罪판결을 받고 징역을 언도 받았으나, 정작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은 起訴되지도 않았다. 少數民族들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말해준다.

그러나 편들기에 있어 문제점은 상호간의 배타적 種族根性(tribalism)감정의 표시이다. 물론 편들기에 나설 때는 正當性이 같이 하여야 한다. 被疑者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그의 편을 들 수는 없다. 良心을 꺾으면서 남을 편들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인 選舉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쟁하는 두 후보자가 거의 똑같은 능력을 표시할 때, 이왕이면 자기편을 돕는 것이 마땅하겠다. 同價紅糞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複合人種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늘 유의하여 볼 점이 있다. 험악한 이산생활 환경 속에서도 猶太인들이 뭉쳐서 힘을 얻었고, 黑人들이 뭉쳐서 보호를 받았다. 요즘 서부나 人種도 잘 뭉쳐서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들 韓人들도 서로 단합하여야 하겠다. 우리들이 原則을 지키되 크게 뭉치고 뭉쳐서 편들기를 한다면 누가 함부로 우리 韓人들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다.

自然의 세계에서나 人間사회에서 흔히 관찰되는 行態 중에 한가지는 편들기이다.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 운동 선수들이만 학교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면 목청껏 소리치며 응원을 보냈다. 그야말로 솔직하고도 아기자기한 감정의 표시였다. 韓國 선수가 國際 경기에 나서면 우리는 의례히 한국 선수들 편이다.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우리들은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얼마나 흥분했는가? 한국선수가 미국 선수들과 붙을 때도 그렇다. 어떤 때는 국제 경기에서 한국선수가 아니라도 中國선수가 잘 하면 기분이 좋다. 자기와 연관이 있는 쪽의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原初的 감정의 표시일 것이다. 자기 아이의 운동 경기에서 다른 편 아이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殺人을 한 사건도 있었다.

1960년도에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푸에부로 군함이 인민군에게 나포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나는 그 때 캐나다 뉴파운드랜드주의 法醫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텔레비전이 밤새껏 푸에부로함에 대한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인민군대 대원들이 國際法으로 규정된 인간의 기본人權을 무시하며서 미국 군인들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발길로 차고 총대로 두들기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듣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되었다. 온 세상의 나무람을 받을만한 처사였다. 나는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음을 느꼈다. 北韓의 처사에 대하여 한국인으로서 창피하고 좀 죄악감마저 느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나가 방문을 꼭 닫고 들어앉았다. 누가 찾아 올까봐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대학 후배 한 사람이 급히 방에 들어왔다. "선배님 뉴스를 들었지요."라고 했다. 내가 "네" 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그가 물었다. 내가 대답을 곧 정리할 수 없어 "글쎄...."라고 하고 있으니,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던데요"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직업상의 용무를 마치고 곧 방에서 나갔다.

오랫동안 착잡하고도 어려운 감정 속에서 허덕이던 나는 그렇게 쉽게 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후배가 좀 부럽기도 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매우 떳떳한 모습이였다. 마치도 힘센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

에는 어쩔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좀 인정이라도 받았다고나 하듯이 보였다. 그러면 그가 공산주의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그런 사람같지는 않다. 그의 생활상을 이모저모 드러다 볼 때, 그가 反美 감정을 가진 사람같지도 않다. 40년 전 그 날 아침에 한 그의 발언은, 단순한 同族愛에서 나온 편들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로가 犬猿之間의 원수처럼 지내오던 모택동과 장개석이 2차 대전 때 잠시동안이라도 같이 힘을 모아 日本軍을 맞서 싸웠다. 남보다는 제 민족이 더 가깝다고 하는 감정의 표시이기도 했다. 꼭 오월동주(吳越同舟)와 같은 입장이었다. 두 원수인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어찌다 같은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가 陸地에도착할 때까지는 서로 싸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요즘은 중공과 대만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참사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휴가를 왔을 때의 일이다.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호텔 건물 꼭대기에 걸려있는 캐나다 國旗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 그 아이들(네 아이들 중 셋이)이 자기네가 태어난 나라의 국기를 보고 기뻐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국기가 좀 유치하게 보인다고 늘 생각해 왔었다. 그 후 미국으로 이사를 오고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시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갔다. 여러 나라 국기들이 줄줄 달려 있는 그 넓은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내 눈치를 알아차린 아이들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을 찾으려면 저기 걸려있는 太極旗 밑을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자주 만나기로 했으니까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만족과 고마움으로 내 가슴속이 눈물바다로 뭍을 느꼈다.

우리 아이 하나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 갔다와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을 알았어요. 韓國에서는 버스를 탈 때 서로 밀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운동경기를 구경하러 가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떠들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美國 같으면, 저 사람이 000 시기에 저런 짓을 한다고 나무랐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나의 전공은 法醫學이다. 재판에서 事件 내용이 뚜렷할 때는 드물다. 가령 사건 내용이 분명한 경

牧童의 傲氣 외교의 실패

The Perpendicular Pronoun by MAUREEN DOWD (NYT, March 19, 2003)

WASHINGTON - Sometimes I feel as if I've spent half my adult life covering a President Bush as he squares off against Saddam Hussein, an evil dictator who invades his neighbors and gasses his own people.

But while on the surface this seems like Groundhog War, the father-and-son duels in the sun with Saddam are breathtakingly different. The philosophical gulf between 41's gulf war and 43's gulf war is profound and cataclysmic - it has sent the whole world into a frenzy - yet it can be summed up in a single pronoun. "The big I," as Bush senior calls it.

The first President Bush was often teased about his loopy syntax. But it was a way of speaking that signified the modesty and self-effacement his mother had insisted upon. He was so afraid to sound arrogant if he used the first person singular that he often just dropped the subject of a sentence and went straight to the verb. "Mother always lectured us - in a kinder, gentler way - against using the big I," Poppy Bush said. He is so shy of "I" that he has never written a personal memoir.

Even though he came to politics with a sparse resume compared with his dad's stuffed one, the cocky W. was always more comfortable with the first person perpendicular. When I asked him during the 2000 campaign about why he hadn't inherited his father's phobia about the dreaded singular pronoun, he laughed and self-deprecatingly replied,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hi Beta Kappa and a gentleman's C." During his war overture on Monday night, W. was not afraid of the first-person spotlight: "This danger will be removed. . . . That duty falls to me as commander in chief by the oath I have sworn, by the oath I will keep."

The whole approach of the father, who had once served as U.S. ambassador to the U.N. and loved nothing more than to drag world leaders out on his cigarette boat and give them mal de mer, was a clubby "we." He and his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had a coalition of 90 countries for Desert Storm, and they constantly schmoozed world leaders and trying to maintain international order.

The hawks of Bush II are not afraid of disorder in the pursuit of American dominance. They

ave no interest in any coalition - except their own. They see the international "we" as an impediment to joy - and to destiny. The Bush doctrine is animated by "the big I." That self-regarding doctrine, concocted by Bill Kristol, Paul Wolfowitz and Richard Perle back when W. was still merely a presidential gleam in Karl Rove's eye, preaches preventive pre-emptive preternatural pre-eminence.

The only holdover from the first Bush administration's land of "us" is Colin Powell. When the secretary of state was asked whether the decision to go to war reflected the pre-emptive Bush doctrine, he recoiled, crying, "No, no, no." While the president seemed to endorse Mr. Powell's attempt at diplomacy, it's now clear that he simultaneously adopted Dick Cheney's plan for a military buildup that was bound to upend the diplomatic effort.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on Monday that even though Mr. Cheney receded into the background for months, he was choreographing events like Pluto, lord of the underground. In his undisclosed locations, he had dinner parties with anti-Saddam intellectuals and reached out to Iraqi dissidents and plotted the war with his old pal Rummy, letting Colin Powell vainly spend his prestige at the mealy-mouthed U.N. We'll never know from the ultrasecretive vice president whether he also touched base with oil industry types, since Halliburton and other big construction companies that give to Republicans now stand to make millions in contracts for reconstructing Iraq and reviving its oil industry. And so we arrive at this remarkable moment, when a Bush who squeaked into office with an ordinary guy's appeal, not knowing very much at all about the globe but promising a humble foreign policy, has turned decad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on its head. Asked on "Meet the Press" about the ire the president's approach has provoked around the world, Mr. Cheney was dismissive, proclaiming Mr. Bush to be "Reaganesque."

President Reagan always said to aides, "You have to be both revered and feared." This crowd has the fear part down cold. They have a long way to go on the other.

美國의 진정한 카우보이 정신과 戰爭의 문제

D-Day by THOMAS L. FRIEDMAN (NYT, March 19, 2003)

President Bush is fond of cowboy imagery, so here's an image that comes to mind about our pending war with Iraq. In most cowboy movies the good guys round up a posse before they ride into town and take on the black hats. We're doing just the opposite. We're riding into Baghdad pretty much alone and hoping to round up a posse after we get there. I hope we do, because it may be the only way we can get out with ourselves, and the town, in one piece.

This column has argued throughout this debate that removing Saddam Hussein and helping Iraq replace his regime with a decent, accountable government that can serve as a model in the Middle East is worth doing not because Iraq threatens us with its weapons, but because we are threatened by a collection of failing Arab-Muslim states, which churn out way too many young people who feel humiliated, voiceless and left behind. We have a real interest in partnering with them for change. This column has also argued, though, that such a preventive war is so unprecedented and mammoth a task taking over an entire country from a standing start and rebuilding it that it had to be done with maximum U.N. legitimacy and with as many allies a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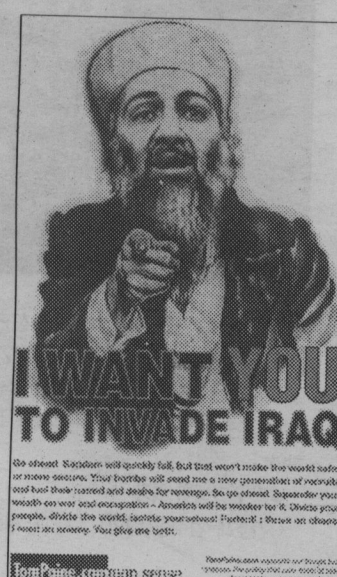
President Bush has failed to build that framework before going to war. Though the Bush team came to office with this Iraq project in mind, it has pursued a narrow, ideological and bullying foreign policy that has alienated so many people that by the time it wanted to rustle up a posse for an Iraq war, too many nations were suspicious of its motives. The president says he went the extra mile to find a diplomatic solution. That is not true. On the eve of the first gulf war,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met face to face in Geneva with the Iraqi foreign minister a last-ditch peace effort that left most of the world feeling it was Iraq that refused to avoid war. This time the whole world saw President Bush make one trip, which didn't quite make it across the Atlantic, to sell the war to the only two allies we had. This is not to excuse France, let alone Saddam. France's role in blocking a credible U.N. disarmament program was shameful.

But here we are, going to war, basically alone, in the face of opposition, not so much from "the Arab Street," but from "the World

Street." Everyone wishes it were different, but it's too late? which is why this column will henceforth focus on how to turn these lemons into lemonade. Our children's future hinges on doing this right, even if we got here wrong. The president's view is that in the absence of a U.N. endorsement, this war will become "self-legitimizing" when the world sees most Iraqis greet U.S. troops as liberators. I think there is a good chance that will play out.

But wars are fought for political ends. Defeating Saddam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o achieve those ends, which are a more progressive Iraq and a world with fewer terrorists and terrorist suppliers dedicated to destroying the U.S., so Americans will feel safer at home and abroad. We cannot achieve the latter without the former. Which means we must bear any burden and pay any price to make Iraq into the sort of state that fair-minded people across the world will see and say: "You did good. You lived up to America's promise." To maximize our chances of doing that, we need to patch things up with the world. Because having more allied support in rebuilding Iraq will increase the odds that we do it right, and because if the breach that has been opened between us and our traditional friends hardens into hostility, we will find it much tougher to manage both Iraq and all the other threats down the road. That means the Bush team needs an "attitude lobotomy" it needs to get off its high horse and start engaging people on the World Street, listening to what's bothering them, and also telling them what's bothering us.

Some 35 years ago Israel won a war in Six Days. It saw its victory as self-legitimizing. Its neighbors saw it otherwise, and Israel has been trapped in the Seventh Day ever since never quite able to transform its dramatic victory into a peace that would make Israelis feel more secure. More than 50 years ago America won a war against Eu-



ropean fascism, which it followed up with a Marshall Plan and nation-building, both a handout and a hand up in a way that made Americans welcome across the world. Today is a D-Day for our generation. May our leaders have the wisdom of their predecessors from the Greatest Generation.

미국 戰時財政의 문제

Battling the Fog of Finance by JAMES GRANT (NYT, March 24, 2003)

War has enough to answer for without being blamed for problems not of its own making. Last week the Federal Reserve excused itself from venturing any forecast about the abatement of "geopolitical uncertainties." But it isn't the fog of war that has shortened the vision of our monetary policymakers. It's rather the fog of finance, particularly the long legacy of America's greatest stock-market bubble. The truth about the three-year decline in stock prices and the hot-and-cold-running economy is that they have their roots in prosperity, not in war.

The paradox is easily explained. High stock prices invite capital investment. Ultrahigh stock prices invite redundant capital investment. Stock prices higher even than those on the eve of the 1929 crash invite titanicly redundant capital investment. No wonder, then, that business spending on new plant and equipment has been so weak for so long: The sky-scraping stock market of the late 1990's (which indeed commanded valuations higher than those of 1929) induced enough corporate spending to sate demand and cause a recession. That recession, which began in March 2001, is probably over by now (the official cyclical timekeepe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tinues to weigh the evidence). But the recovery is heavy-footed and faint-hearted. High energy prices and stay-at-home travelers haven't helped. Nor has worry about a new terrorist attack. But the source of America's persistent financial aches and pains is something more basic: the preceding mispricing of capital. In the manic phase of the bull market, capital was essentially free. The frittering away of American savings wasn't intentional. It happened inadvertently, through investing: i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lants, computer servers, power generators, office furniture,

Internet initiatives, etc. We invested more than we should have in fact, more than we had. We borrowed to invest, from creditors both domestic and foreign. And because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s everything it's cracked up to be, the bull market ended. More productive capacity spurred higher output, which led to more intense competition and no surprise to lower profit margins. And those things led to lower stock prices, which, in turn, led to a crash in capital investment. There was no "new economy" after all. Now almost one-quarter of corporate productive capacity is lying idle. All too many job seekers find themselves in the same predicament.

The war is not to blame for this sequence of events, which was set in motion years before 9/11. But the cost of the war (and future wars, pacifications and occupations) may prove burdensome in ways that Americans have been privileged not to have to worry about. The United States at the millennium is an historical oddity, not only a great power but also a great debtor. It consumes much more than it produces. It imports much more than it exports. And it owns much less of foreign assets than foreigners do of American assets (\$2.3 trillion less, as of the end of 2001). In 2002, Americans imported about \$500 billion more than they exported that being the size of the current account deficit, a comprehensive measure of the net flow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It is useful to think about this deficit in terms of the current defense budget: it is 35 percent bigger. Most countries would jump at the chance to get into this kind of fix. But they can't. And if they did get into the habit of consuming more than they produce, they would quickly have to earn their way out by consuming less and producing more. No such imperative is yet felt in this country, however. We conveniently finance our deficit with dollars.

Up until now, the rest of the world America's creditors has been more than happy to exchange its merchandise for our currency, a currency they have coveted both as a medium of exchange and a store of value. So the dollars have made fast round trips, from American consumers to foreign producers and back as investments in America. The collapse of the American bubble has spurred the Federal Reserve to action. Since Jan. 3, 2001, it has cut the interest rate it directly controls, the federal funds rate, no fewer than 12 times. And because desperate debts and falling stock prices conjure up the fear of a gen-

eral decline in wages and prices, the Fed has pledged radical additional action. It has promised, if necessary, to make dollars superabundant in effect reducing their purchasing power on purpose. In so many words, it has promised that there will not be no inflation.

In a Nov. 21 speech, Ben S. Bernanke, a Federal Reserve Board governor, tried rhetorical shock therapy. Using a device called a "printing press," he carefully explained, the government can "produce as many U.S. dollars as it wishes at essentially no cost." Many central bankers have had the same thought. Few have dared to say it out loud. Another who did, a month after the Bernanke speech, was none other than Alan Greenspan,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If need be, said Mr. Greenspan, the Fed could hammer down long-term bond yields just as it has repeatedly cut short-term interest rates. It did so, in fact, the chairman reminded his audience, between 1942 to 1951, years of war, price controls and national mobilization.

Unilateralism in military affairs may be necessary and expedient. But the relationship of a debtor nation to its creditors is necessarily multilateral.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a debtor that prints the money with which to service its debts. Now the debtor, putting the needs of its own economy and financial system first, has promised to do what, pre-bubble, few self-respecting nations did: it has promised to crank up price inflation just a little bit. To reach this goal, the Fed is running the printing presses, buying Treasury securities with credit it creates out of thin air.

The stock market has apparently noticed. Buoyed by war news and easy money, it has strung together eight days of gains, the most since June 1997. But the bond market, too, has noticed. Interest rates have climbed, with the 10-year Treasury note now above 4 percent, up from a low of 3.56 percent only a few days ago. Mortgage rates have followed suit, a shift that imperils the glorious mortgage refinancing boom.

The war didn't cause America's financial and economic problems. But it's not so far-fetched to speculate that it may soon worsen them. Rising interest rates and a rising inflation rate may soothe the anxieties, and the consciences, of the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Bank. It is unlikely, however, that they will deepen the reservoir of confidence among the legions of America's foreign creditors. (필자 James Grant is editor of Grant's Interest Rate Observer.)

남가주 소식

신년총회 225명의 동문 雲集하여 장기자랑으로 친목도모 신임28대 회장에 광철(법대 68년졸) 동문

남가주 총동창회는 2003년 2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225 명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동창회의 사업을 결산하고 신임28대 회장으로 郭鐵 동문(법대 68년졸, 남가주 변호사)이 취임하여 이임하는 27대 회장 任洛均(약대 68년졸) 동문이 傳承해온, 재미서울대동창회신하 20개지부 중에서 최대의 동문가족을 자랑하는 남가주 총동창회 旗手의 햇볕을, 더욱 높게 밝히게 되었다. 총회는 식순에 따라 김지영 동문(사대 69입,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미국국가와 한국의 애국가를 제창하는 국민의례에 이어, 지난 1년간 남가주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젊은 동창들의 동창회 참여확대, 동창회 기금 조성 및 남가주동창회 웹사이트 개발과 기금조성 등의 功績을 쌓고 이임하는 26대 임낙균 회장의 동문들의 협조에 감사하는 인사말이 있었고, 백옥자 동문(음대 75년졸,

사업국장)의 지난 1년간의 동창회사업보고, 성주경 동문(상대 68년입, 재무국장)의 재무보고가 있었으며 이임하는 임낙균 회장으로부터 21명의 有功동문들에 대한 功勞牌 증정이 있었다. 이어 신임 광철 회장의 "한국과 미국이란 話頭란 題下의 취임인사를 통하여 선후배 동문들의 지혜를 모아 격조있고 활발한 동창회 활동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 이어 신임임원진의 인준이 있는 후 김건진 수석부회장(문리대 62년입)을 비롯한 새 임원진이 소개되었다. 또한 남가주동창회 총회를 위하여, 美 洲를 방문중인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 회장(공대 52년졸)의 축사를 오홍조 동문(치대 56년입,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대독하였다. 이어 동창회 행사를 위하여 출연된 각종 상품과 경품에 대한 추첨이 있었다. 총회가 끝난 후 김학천 동문(치대 78년졸)과 장윤정(법대 88년졸) 동문의 사회로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餘興시간에는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1등에는 가정대 하와이인 덴스팀(남정화(97), 심진숙(68), 김수향(69), 남정희(96) 동문), 2등에는 인도춤을 선보인 음대동문들의 흥옥자(66), 백옥자(75) 동문팀이 차지하고 3등에는 장고에 맞추어 國樂 장부타령을 열창한 김익수(수의대 57년졸) 동문이 차지하였다. 이 여흥시간에 열연한 동문들의 재능에 많은 동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었고 元老선배이신 鄭元勳 동문(상대 38년입)께서는 이 장면을 水彩畫(하와이인 덴스팀)에 담고 筆墨題字(無我)하여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에 보내왔다. (전면 사진참조) 신임 광철회장 연락처 (Charles C. Kwak, Attorney at Law, 806 Teakwood Road Los Angeles, CA 90049 Tel: (310) 476-8212, Fax: (310) 471-7646, E-mail: kwakchul@hotmail.com)

2002년 총동창회 사업보고

- ◆3월 26일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 주소: 3700 Wilshire Blvd. L.A. CA 90010 사무실전화: 213-36-9669. Fax: 213-365-1686
- ◆4월 4일 임낙균 신임회장 초청으로 이사, 임원진 친선 골프대회에 30명 참가 (Landmark G.C. At Oak Quarry)
- ◆4월 21일 남가주 총동창회 봄철 골프대회에 80여명 참가 (Los Cerranos Country Club Golf Course)
- ◆5월 16일 임낙균 회장, 김지영 총무국장 舟楫 방문하여 서울대총동창회 임광수 회장과 이기준 舟楫 총장예방
- ◆5월 24일-6월 2일 서울대대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전
- ◆6월 서울대 총동창회 웹사이트 개발준비
- ◆6월 15일 서울대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오홍조 재미총동창회 수석부회장 & Mrs. Eva Oh, 방석훈(23대 회장), 서영석(25대회장), 이창광(26대회장), 임낙균(신임 27대회장), 광철 수석부회장 & Mrs. 광, 백옥자 사업국장 참석
- ◆6월 19일 서울대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일행이

-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서울대동창회 제 11차 평의원 회 참석 후 L.A. 방문 간담회 (J.J. Grand Hotel)
- ◆6월 20일 L.A. 동창회 골프대회
- ◆7월 14일 산악축제에 40여명 참가 (Mt. Islip)
- ◆8월 15일 서울대 북상림 L.A. 방문 시합응원
- ◆8월 15일-8월 30일 서울음대 미주순회 연주단 공연에 200여명 참가
- ◆8월 24일 서울대 동창 가족의 밤에 100여명 참석 (Hollywood Bowl)
- ◆9월 21일 추계 골프대회에 100여명 참가 (Los Verdes Golf Course)
- ◆11월 8일 Website(www.snua.net) 기금모금 및 망년회(라서울가든)에 200여명 참가, 1만 6천불 모금
- ◆2003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차기수석부회장 김건진 동문(문리대 62년) 선출
- ◆2003년 2월 15일 신년총회 이취임식 및 결산보고, 27대 임낙균 회장 후임으로 28대회장 광철 동문 취임

남가주 총동창회 신임 27대 회장단

◆회장 광철(법대 64년입), 연락처 213-610-1559(cell), 213-352-9669(O), 213-252-9656(Fax), e-mail kwakchul@hotmail.com 주소: 3435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CA 90010 ◆수석부회장 김건진(문리대 62) ◆부회장 이춘배(사대 60), 권봉성(문리대 54), 심상은(상대 54), 김용일(대학원), 김정호(농대 59), 김홍(법대 64), 김광철(음대 59), 한종철(치대 62), 이명일

蕪約대 72), 김경무(공대 69), 김영(수의대 63), 나정자(간호대 70), 박법순(가정대 70), 임 번(의대 61) ◆총동창회 임원 김지영(사대 69, 총무국장) 성주경(상대 68, 재무국장), 흥옥자(음대 66, 사업국장), 박양중(문리대 61, 기획위원장), 최재현(수의대 66, 경기준비위원장), 노순철(사대 80, 경기진행위원장), 양민(공대 77, 운영위원장), 권명희(간호대 69, 자문위원장), 정연진(인문대 81, 관악연대위원장), 이경훈(사화대 83, 관악연대부위원장), 조임현(간호대 72, 천교위원장), 김재영(농대 62, 감사), 최종규(법대 62, 감사)

白玉子 동문(음대 75년졸) 지역사회봉사상 수상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으로서 남가주 동창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봉사해온 白玉子 동문은 그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공로로써 지난해 12월 12일 Los Angeles County로부터 (by County Board Chair Yvonne Brathwaite Burke) 공로상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and dedicated

Service to the affairs of the community and for the Civic pride demonstrated by numerous contribution for the benefit of all people of the County of Los Angeles)을 수상하였다. 白玉子 동문은 母校 대학원에서 伽椰琴을 전공하고 동창회행사 때 心魂을 일깨우는 國樂의 和音을 동문들에게 선사해왔다. 남가주 동창회는 白玉子의 수상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들썹>

남가주동창회 발전에 수고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21명의 有功동문 공로패 수상



64입) ◆농대-지종근(56입) ◆미대-김옥경(59입) ◆법대-이태로(57입) ◆상대-심상은(54입) ◆수의대-문훈식(65입) ◆대학원-최추봉 <영 사진 右>

◆2002년 총동창회 임원진 명단
◆사업국장-백옥자(음대 71입) ◆기획위원장-이종도(공대 66입) ◆경기준비위원장-최재현(수의대 66입) ◆경기진행위원장-노순철(사대 80입) ◆운영위원장-흥옥자(음대 66입) ◆관악연대위원장-양민(공대 77입) ◆관악연대부위원장-정연진(인문 81입) ◆천교위원장-조임현(간호대 72입) ◆자문위원장-이복한(법대 61입) ◆감사-김재영(농대 62입), 박양중(문리대 61입) ◆웹사이트-이경훈(사회과학대 83입), 이영혜(가정대 71입)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낙균)는 신년총회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21명의 동문들에게 좌측과 같은 공적사항을 담은 2002년 남가주 총동창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각 단과대학 회장
◆간호대-김수향(69입) ◆공대-정황봉



Achievement Award
Awardee Name
In appreciation of your dedicated services and contributio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ctivities in Southern California. We hereby present this plaque of special recognition.
We all cherish our proud shared heritage of our Alma Mater
February 15, 2003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President Nak Kyun Im

<사진설명>
1- 총회에서 소개된 2003년 총동창회를 이끌 새 임원진
2- 총동창회 정기총회후 임원들과 장기자랑한 재주꾼 동문들 기념촬영
3- 남가주동창회 햇볕을 인계인수한 신임회장 광철(右), 백옥자, 임낙균 동문

조지아 소식

조지아 동창회 신임회장에 趙德盛(공대 78년졸) 동문

조지아 동창회 (회장 金在喆, 공대 기계과 69졸)는 지난 연말 동창회 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조덕성 동문을 선출하였다. 이임하는 김재철 회장은



조지아 동창회의 기치를 인계인수한 김재철 전임회장과 조덕성 신임회장

재임 중 동창회를 위하여 친목활동 외에 지역소식지 <조지아 관악회보>의 간행, 주소록 발간, 母校음대 연주단 초청공연개최 등의 지역 동문들의 참여를 모아 활동을 펴왔으며 모두가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전 미주지부 동창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재미서울대 동창회 연중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광활한 미주지역에 산재한 동문들과의 교환하는 연례 행사인 재미서울대동창회 평의

원회에 꼭꼭 참석하여 조지아 동창회와 재미총동창회의 협력으로 동창회를 발전시키는 힘에 주력하였고, 어려운 지역동창회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미동창회가 서울대학교총동창회에 납부하기 위하여 모금하는 기여금을 보내왔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신임 조덕성 회장이 이끄는 조지아 동창회가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임하는 김재철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임 회장님과 임원들과 동문들의 사진은 <조지아 관악회보> 발행 이전에 확보되는 대로 재미서울대동창회보 편집실로 미리 보내주시시오!]

조지아동창회 소개

金在喆(공대 69년졸, 조지아 동창회장)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소개 됐었고, 1996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다시한번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조지아의 아름다움이다.

이 지역에 등록된 서울대 동문은 현재 96명이다. 서부나 동북부 지역에 비하면 이곳 남부에 한국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서울대총동창회가 이틀리다 지역에 지부를 세운 것도 1989년 6월 17일, 불과 12년 남지된 일이다. 金容謙(문리대 52졸) 동문이 초대 및 2대회장을 맡은 뒤로 3대 方昌模(문리대 54졸) 동문, 4대 金秀(의대 65졸) 동문, 5대 金敏夫(사대 62졸) 동문, 6대 金禮榮(문리대 72졸) 동문, 7대 魚濤善(수의대 55졸) 동문, 8대 林漢齊(공대 64졸) 동문, 9대 盧幸子(문리대 67졸) 동문, 10대 林壽岩(공대 67졸) 동문, 11대 朴喜昌(문리대 60졸) 동문 등 10명의 동창회장을 거치면서 조지아 지부는 많은 발전을 이루며 성장해왔다. 필자와 함께 趙德盛(공대 78졸) 부회장, 文鍾賢(사회대 88졸) 총무이사, 회보 편집에 尹敏子(음대 69졸), 金廷姬(간호대 76졸) 동문 등이 12대 회장단을 이끌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조지아 지부는 2001년부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활성화하며 소식도 함께 나누기 위한 방편으로 3개월 간격으로 동창회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회보의 명칭은 조지아텍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殷哲洙(상대 68졸) 동문이 제안한 '조지아 관악회보'로 결정했다. 정기모임으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의 야외회를 통해 동창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에 정을 나누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 만찬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여흥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16명의 골프 동호인들이 두 달에 한번씩 모여 남부의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늘어난 기량을 겨루며 화목한 시간을 갖고 있다. 작년에는 특히 金秀-동문 부부가 같은 날에 나란히 출원을 기록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동문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성격과는 달리 조지아 지부는 교민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명분이 뚜렷하거나 서울대 동문이 직접 관련된 교민활동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金容謙 동문이 이 사장을 맡고 있는 한미장학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북한 아동 신발 보내기 음악회'에 李泰煥(음대 90졸) 동문이 참가, 조지아 지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후원에 참여했다. 작년 9월 뉴욕지역의 테러참사의 희생자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도 이곳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당액의 기금을 모아 미국 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조지아 동창회는 지난해 8월 2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260여 명의 청중들의 기갑박수를 받은 가운데 母校음대 순회연주단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문종현(사회대 88년졸) 동문의 기고문 "음대연주단 아틀란타 공연을 돌아보며" 재미서울대동창회보 2002년 9월 28일자 10면 참조].

앞으로 조지아 지부는 재정적인 자립을 목표로 작년보다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하기로 결정해 지속적인 모금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창회는 회비 수입에서 1천달러를 각출하고 기타 모금활동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기대해본다. (자료원 서울대동창회보 2002년 1월 15일자 8면의 기사를 편집자가 약간 보충한 것임)

록키마운틴즈 소식

록키마운틴즈동창회 창립을 마치고 회장에 김봉전(공대 68년입) 동문

콜로라도주의 동문들은 그 동안 숙원이었던 동창회의 발족을 2003년 1월 26일 5시 덴버시 교외인 그린우드 빌리지시의 후지야마 식당에서 성공리에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24명의 동창회원 및 부부 등 총 38명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작년 11월 17일 6시 덴버 교외 오로라시 신라식당에서 열린 서울대동창회 발기대회에서는 20명의 동문들이 모여 회장단을 선출하였고, 2003년 1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총회로 동창회를 이끌 임원진은 회장에 김봉전(공대 공교과 68년입학, 우주항공학박사), 총무에 김명호(의대 의과과 69년입학, MD), 재무에 최덕상(농대 경제학과 73년입학, 경영학 박사), 감사에 류광현(문리대 불문학과 58년입학, 전 워싱턴주 회장) 동문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李龍洛(공대 53년졸) 회장이 시카고에서 참석하여 창립을 축하하는 격려사가 있었고 총동창회로부터는 콜로라도 동문들에게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끝이어서 동문 각자 소개가 있었다. 이날 총

회에서는 동창회정관 제정에 관한 미비 사항은 회장단에 전권 위임하기로 가결하고, 교가 제창과 기념 촬영 후 아쉬움을 달래며 끝났다.

이 날 채택된 동창회 정관에 관한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목적은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 母校 발전의 지원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다.

동창회 이름은 서울대학교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이며, 콜로라도주 및 인근 뉴멕시코주와 와이오밍주의 동문들의 모임으로 한다. 현재 확보된 회원명부에는 46명이 확인되었으나,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와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 재학중인 학생동문들을 포함하면 콜로라도주 거주 동문수만 60명이 넘고 인근 타주지역의 명단이 확보되면 7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로라도 동창회의 최고선배는 박성주(공대 기계공학 47년입학, 부산공대 교수 은퇴) 동문이고 최연소 동문은 주진철(공대 토목공학 97년입학, CSU Ph. D 학



동창회 창립총회장에서 김봉전회장 (사진 좌)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생) 이고, 회원명부를 단과대학별로 분류하면 工大는 안홍식(기계 48년입학) 동문 등 15명, 醫大는 임단일 MD (52입학) 동문 등 12명, 文理大는 박윤태(영문과 48입학, 경제학 박사, DU 교수) 동문 등 7명, 師大는 정화용(사회교육 61년입학) 동문 등 4명, 藥大 김길향(대학원 69년입학) 동문 등 및 農大 유승태(59년입학) 동문 등 각 3명, 音大 박성이(왕경자, 54년입학) 동문 외 1명 및 法大 박윤수(61년입학) 동문 외 1명 등이다. 최고학위별로는 Ph.D 11명, MD 및 DDS 8명이다. 또한 기독교 牧師가 3명이 있다. <연락처> 김봉전 회장: 303-229-3332 (C), 303-779-4631 (H) / 김명호 총무: 303-671-0304 (O), 303-773-0534 (H)

독자의 편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동창회 異邦人과 人間愛(재미동창회보2002년 10월 28일자 16면)를 읽고

배병욱 (음대 62졸)

지난 1월 26일 이용락 회장님께서 이곳 서울대학교동창회 록키산맥 지부모임 창립총회에 오셔서 많은 조언과 지침과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회 창립으로 이제 록키산맥의 우리 동문들이 서로 발전을 더욱 격려하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발전을 기원하며 소망합니다. 뜻밖의 6개월치의 동창회보와 기념시계 선물을 손수 갖고 오셨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연히 한 테이블에 앉게 되어 노련하신 선배님들의 인생폭과 의미있는 여담과 대화들을 듣고 人生旅路의 공감대와 깨달음과 기억들의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며칠을 두고 지난 회보들을 읽으며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 젖어 도전과 용기와 소망으로 함께 동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쓰신 "異邦人과 人間愛"를 읽고 너무나 공감하는 바가 많았고, 저의 프랑스 留學 3년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은혜의 보답들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감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자동차 여행 중 밤 12시 가까이 호텔을 못 찾아 헤맬 때 반대편으로 20분 거리의 호텔 앞까지 안내해주던 그 사람의 친절은 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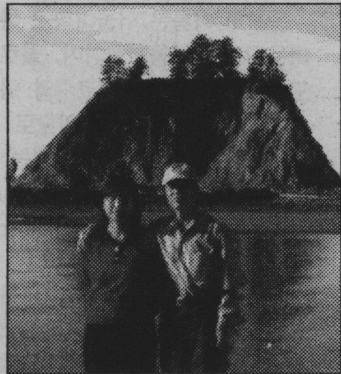
안 나의 머리 속에 감사의 씨가 되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 감사로 끝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번 비슷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배우며 성장한 佛의 체험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귀한 人間愛였고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아름다운 생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人品을 읽으며 존경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절제된 아름다운 美를 추구하는 자랑스런 우리 同門들의 동창회보가 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는 선교여행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Budapest에서 Team ministry로 使役하며 8월 1일부터 7일까지 Paris와 근교에서 single ministry로 사역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기쁨과 용기와 사랑으로...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문 선배님 여러분, 콜로라도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우리 동문 모두의 영육의 강건과 동창회의 번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기 저의 믿음의 생활에서 나온 책자를 동봉해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3년 1월 31일 with love in Christ)

워싱턴주 소식

워싱턴주 동창회 신임회장 李惠淑(문리대 68년졸) 동문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허윤행, 사대 57년입)는 지난 연말 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이혜숙(문리대 美學科 68년졸) 동문을 선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워싱턴주 동창회는 전통적으로 한번 동창회임원은 영원한 임원이란 정신으로 회장을 역임한 동문들이 계속하여 동창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아래의 신임 임원진에 전임회장 허윤행 동문은 감사로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다.

□동창회 연락처: 고희선 부회장 (Mr. Hi Sun Ko)
18421 Highway 99, Suite B, Lynnwood, WA 98037
425-673-7258(O), 425-744-0648(Fax)



지난 1년간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허윤행 전임회장 부부

- ★회장: 이혜숙(문리대 64년입)
- ◆부회장: 고희선(법대 64년입)
- ◆감사: 허윤행(사대 57년입)
- ◆총무 겸 재무: 권오성(경영대 86년입)
- ◆문화: 양용관(수의대 62년입)
- ◆홍보: 맹병규(문리대 70년입)
- ◆사업: 윤석진(문리대 64년입)
- ◆선약: 김재호(공대 71년입)



워싱턴주 동창회 회원들의 한때. 고희선(법대 64입, 부회장), 양용관(수의대 62입, 동창회 문화담당), 고영희, 허윤행(사대 57입, 감사), 김학준(문리대 65졸, 특강차 시애틀 방문), 맹병규(문리대 70입), 이혜숙(문리대 68졸, 현 동창회장) 동문.

신임회장 王奎賢 (의대 63년졸) 동문

미네소타 동창회(회장 김태환, 의대 64년졸)는 2003년 1월 5일 (일) King's restaurant에서 7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왕규현 동문(의대 63년졸)을 선출하였다. 또 이어 2월 15일 토요일 동창회 첫 이사회를 Eden Prairie에 있는 王회장관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王奎賢(의대 63년졸), 사무총장 金權植(공대 65년졸), 총무 김영석, 재무 박상빈, 감사 조해인, 학생대표 김종일 동문. (투고자 김권식 동문)

미네소타 동창회 2003년도 예산서

◆수입-\$6,300
전년도 이월금(\$0), 이사회비(\$3,200), 골프대회 및 하계야유회 찬조금(\$300), 장학기금(Auction)(\$2,000), 동창회 총회 참가비(\$800)
◆지출-\$6,300
춘계골프대회(\$450), 추계골프대회(\$450), 하계야유회(\$600), 동창회 지부총회(1월4일)-준비금, 장소비, 음식(\$1,000), 경조사비(\$500), 우편 통신비(\$400), 미주동창회 참가보조비(\$300), 2003년도 총동창회 지부분담금(\$300), website maintenance(\$300), 장학기금(\$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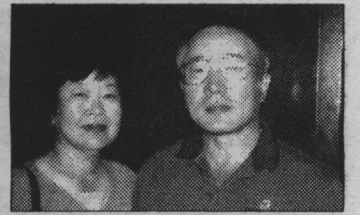
미네소타 소식

미네소타동창회 2003년도 사업계획

- ◆2월 15일(토): 제1차 이사회(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결정/ 왕규현 회장택)
- ◆5월 3일: 제2차 이사회(춘계 골프대회 및 기타사항/ 김권식 총무택)
- ◆5월 10일(토), 17일(토), 24일(토): 춘계 골프대회(장소 및 일시미정/ University of Minnesota Golf Course, Tartan Park)
- ◆8월 2일(토): 제3차 이사회(추계 골프대회, 여름 소풍 및 기타사항/ 장소미정)
- ◆8월 16일(토): 여름 소풍(장소미정/ Tartan Park)
- ◆9월 6일(토): 추계 골프대회(장소미정/ University of Minnesota Golf Course, Tartan Park)
- ◆12월 6일(토): 제4차 이사회(총회준비/ 장소미정)
- ◆1월 4일(일), 2004년: Minnesota 지부총회(장소미정/ 신라(Shilla), Tartan Park)
- ◆주소록 개정, 웹페이지 업데이트, 지역소식지 발간, 慶弔사업



2월 15일 미네소타동창회 이사회장에서 동창회를 이끌 신임회장 왕규현 동문 부부



지난 1년간 미네소타 동창회를 이끌어 수고하신 전임회장 김태환 동문 부부



동창회 이사회장에서 文一志(공대 원자력과 65년졸), 權承林(공대 금속공학과 56년졸,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김정일(서있는 분), 金泰煥(전임회장, 의대 64년졸), 임한경 동문들

뉴잉글랜드 소식

2003년 뉴잉글랜드 동창회 봄철 白球대회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장소: Le Baron Hills C.C. (183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508) 923-6000
- ◆Tee Time: 2003년 5월 3일 토요일 정오
- ◆회비: 일인당 100불 (골프비, Cart비, 점심, 만찬 포함)
- ◆참석자 40명은 先着順으로 참가신청을 접수함
- ◆접수마감: 2003년 3월 31일
- ◆참가신청 접수처: 변종원 총무 (508) 366-2743
Chongwon Byun
22 Crestview Dr., Westboro, MA 01581
email: chongwon252@yahoo.com
- ◆白球대회 준비위원: 이재신, 정정욱, 윤희경, 한병의, 변종원

보스톤 한미노인대학 졸업식

제1회 졸업생 11명 배출
미주 한인 이민사회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키고 결혼시킨 후의 노년기를 어떻게 모람있게 보내는 문제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서울대 동창회가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보내온 보스톤 韓美노인회(회장 周鳳甲 동문, 의대 50년졸)가 두 번째 삶을 여는 노인들의 半牛教育 기관으로 설립한 보스톤 韓美老人大學(교장 朴京民 동문, 의대 53년입)이 4년간의 다양한 강좌를 통한 교육 끝에 제1회 졸업생 11명(졸업생 강경선, 강성유, 고정기, 김경모, 박병덕, 박연교, 백 린, 서금순, 서정섭, 이기상, 최선경) 2002년 10월 10일 토요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 졸업식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이 날 졸업식에는 한국을 방문중인 한 분을 제외한 졸업생 전원과 150여 명의 가족, 친지들의 축하객이 참가한 뜻깊은 날이 되었다. 이 날 졸업식에서는 4년간 대학의 강좌일정, 초빙강사 및 강의장 확보 등의 문제를 담당해온 박경민 학장의 축사, 백 린 졸업생의 졸업생 감사, 유태인에 대한 강의를 한 박재선 총영사의 축사, 김영기 보스톤 한인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인대학에서는 이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한 데 대하여 강경선, 강성유, 김성인, 이의인, 서정섭, 육필모, 백 린 씨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보스톤 총영사관 각 교회 및 여전도회 그리고 지역언론사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 날 졸업식은 지역한국학교협의회에서 나온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과, 소프라노 정혜숙씨가 독창으로 진지한 學生의 熱情을 발휘한 晚學徒들의 새출발을 축하하였다. 또 보스톤노인회는 2003년 1월 25일 오후 1시에 성요한교회에서,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신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등의 총회를 가진 후 노인대학의 새해의 첫 특별강좌로 "은퇴 후의 사업과 부동산 투자"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재할상담전문가 이경해씨(미주 한인 이민100주년기념사업 임원)의 특강이 있었고 한국의 MBC 방송특집인 "황수관의 건강스페셜 1"의 녹화방영이 있을 후, 노인회의 친교모임이 있었다 (보스톤한미노인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추후 보도예정, 자료원 보스톤한민회보 2002년 10월 18일자 보도).

뉴욕 소식

하트랜드 소식

朴 忍洙 교수초청 音樂會 대 성황

2월 18일 Lincoln Center 350명 청중 歡呼

母校 음대 교수인 박인수 동문(음대 성악과 68년졸)을 초청하여 뉴욕지역 동창회가 주관하고 뉴욕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박동문의 "민중독창회 및 弟子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가 지난 2월 18일 Lincoln Center, Merkin Concert Hall 에서 열려 350명의 청중들이 거의 모든 좌석을 매운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음악회의 제1부에서는 박교수가 '한오백년', '농부가' 등 열 편을 독창하였고 제2부에서는 김성준(87학번) 외 4명의 젊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 민요 및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등에서 나온 歌曲을 같이 불렀다. 이 청중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 민중 열창의 분위기를 한껏 高潮시키는 데에는 朴尙元 동문(음대 국악과 69년입, 뉴욕음대동창회장)의 長鼓가량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음악회가 선사한 우리



민요의 열창은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을 잘 대변하여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접하지 못한 동문들과 교포들과도 이번 음악회가 가져온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뉴욕의 동문들과 음악애호가들에게 海外에서 모처럼 우리음악의 眞髓를 음미할 기회를 선사한 박동문은 한국음악계의 활동중인 元老 巨擘으로서 이번에 그의 제2의 고향인 뉴욕을 찾아 世界를 향하여 발돋

움하는 한국 음악의 발전과 소개에 기여하였는데 그는 1970년 渡美하여 Julliard 와 Manhattan 음대에서 수학하였고 1983년 귀국할 때까지 30여 회의 오페라 主演으로 출연하였으며 1977년에는 오페라단을 조직하여 "春香傳"을 Lincoln center 등에서 공연하였고 "沈清傳"의 主演을 맡기도 하였다. 음악회가 끝난 후 출연자들을 위한 歡迎宴에서 박교수와 동문들은 동창회가 준비한 떡을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동문들은 한국음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박교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였다.

이번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뉴욕지역의 각 單科大學 同窓會長團(간호대 서영숙, 문리대 최용렬, 사대 정영희 약대 성기호, 치대 박희병, 공대 객선섭, 미술대 한규남, 상대 최수용, 음대 박상원, 대학원 이수호, 농대 신응남, 법대 양순우, 수의대 전병로, 의대 정인용)과 이 초청 음악회 음악위원장 金樂德(공대 58년졸, 뉴욕동창회 21대회장 역임) 동문, Golden Club회장 鄭澤洙(문리대 50년졸) 원로동문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 (투고자: 김종을 회장)



성공적인 음악회를 위해 수고하신 동문들. 좌로부터 박상원, 김영덕, 정택수동문

뉴욕동창회의 "大朝貢 · 小租貢" 先着完納에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및 휴스턴 지부만 完納

뉴욕지구 동창회(회장 김종을, 사대 55년졸)는 어려운 동창회 사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11차 평의원회에서 결의되어 각 지역동창회에 배정된 서울총동창회에 보내는 支部分擔金(뉴욕의 날카로운 평의원께서 命名하신 "大朝貢" \$2,000)과 재미서울대동창회보 發刊支援金("小租貢" \$2,000)을 재미총동창회 산하 20개 지부가운데 지난달 제 1작으로 完納하였다. 이에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뉴욕동창회와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광활한 미주전역의 20개 동창회 지부를 망라한 재미서울대총동창회이지만 그 운영의 실상은 假建物과 같다. 自然人으로서의 이웃동문들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지역동창회와 달리 재미총동창회는 地域主義(美國에 살면서도 우리차례가 아니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돌아보지 않는)와 同門들의 無關心("내 없다고 서울대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무

슨 일 나겠나?)이 만연한 가운데 재미총동창회는 아무런 同窓會費없이 동문들의 誠金으로써 간신히 중단 없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발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모금한 支部分擔金 [大朝貢]은 서울총동창회가 서울총동창회보의 내용 전재권을 재미동창회보에 허용하며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음대 미주수방단의 공연을 재정 지원하는 등 재미동창회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재미동창회의 기여금이며, 동창회보 發刊支援金 [小租貢]은 지금까지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발간을 위한 연간 소요재원의 折半 이상을 차지해온 美洲冠岳後援會 理事會費의 격감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 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지부동창수자에 따라 배정하여 동창회보 한달 발행비용(\$11,000)을 메꾸고자 각 지부가 재미서울대총동창회에 납부하기로 결의한 사항이다. 동창회보 이번호

訃告

朴昇緒(의대 48년 졸, 제2대 뉴욕 지역 동창회장 및 미주의대 동창회장 역임) 동문께서 향년 7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와 뉴욕지구 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발행일 현재까지 지부분담금과 회보 발간보조금을 모두 完納한 지역동창회는 시카고, 휴스턴 및 뉴욕지역동창회 뿐이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와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뉴욕지역 동창회와 同門들이 보내주시는 정성어린 誠金에 감사드리며, 우리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양음악과 우리 고전음악의 신선한 和音을 작년에 선사한 母校音大순회연주단 공연을 금년에도 母校와 서울총동창회와 협력하여 연례행사로 정착을 추진중이다. 또한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우리 知性인들의 글자에 합당한 格調있고 내용있는 동창회보를 발간하고자 해해에도 결의를 다집니다. 同門여러분, 우리 동창회보는 동문 모두가 取材記者이시고 筆者이십니다. 당신과 친구들의 消息과 글을 보내시어 우리 동창회보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돌샘>

장 명우 동문 최우수 교수상 수상

장 명우 동문(치대 83입)은 네브라스카 치과대학 연례 Professional's Day 행사에서 최우수 교수상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장 동문은 2000년 네브라스카 대학교수로 부임한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장 동문은 현재 본 대학 치과 고정성 보철 및 이식과 과장을 맡고 있다.



김 응환 동문부부(치대 88입)

네브라스카 치대 교수로 부임 예정

김 응환 동문(치 88입)은 오는 7월 네브라스카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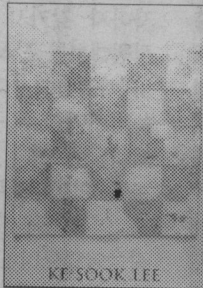
김 동문은 2000년 매릴랜드 치과대학에서 치과보철과 전문의 과정 및 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뉴욕

컬럼비아 치과대학의 악안면 보철과 Fellow 로 있으며, 김 동문의 부인인 이 연주 동문(치대 88입)도 네브라스카 치과대학의 Part-time 교수로 초빙될 예정이다.

吳桂淑(미대 63년졸) 동문 작품전시회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George Bills Gallery에서

캔자스시에 거주하며 다양한 媒體를 사용하여 한국인, 미국인, 아내, 어머니, 여인, 그리고 예술



가로서의 正體性을 표현하여 활발한 작품활동을 펴고 있는 吳桂淑 동문(미대 63년졸)은 2002년 5월 불란서 파리에서의 전시(동창회보 99호 17면참조)에 이어 4월 1일(화)부터 26일(토)까지 뉴욕 George Bills Gallery(511W. 25 Street Ground Floor NY, NY 10001)에서 "씨를 뿌리며(Sowing Seeds)"라는 주제로 작품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家事 도구(재봉, 다림질 및 정원손질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 媒體는 오래된 韓紙(rice paper)의 펄프로써 만든 畫線紙를 썼는데 작품과정은 종이 가 찢었을 때 옛날 女人들이 크로셋 뜨개질로 만들었던 여러 모양의 장식용 團扇(Doily)을 깔아 무늬를 뜨고, 정원에서 채집한 흙으로 물을 들인 후, 木棉織(tarlatan)을 바느질 뜬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의 主題는 藝術家를 정원에 있는 花草의 씨앗으로 비유하여 이의 성장과 滿開 과정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하며 복합적인 正體性을 가진 예술가의 변천 과정을 추상적으로 形象化한 것이다. 이 화랑의 보도자료는 이 전시회를



통하여 吳동문은 강하고 자신감있게 그의 예술세계와 삶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 畫廊에서는 이 전시회의 리셉션이 4월 3일(목)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는데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同門들의 내방과 전시회 참관을 환영한다.

吳동문은, 2001년 9월 캔자스市에서 "Stories from the Garden" 이란 주제로 가진 전시회로 하트랜드 지역의 언론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바(동창회보 94호 14면참조) 있다. 또 그의 작품들은 금년연말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태리의 Florence에서 있을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에서 전시될 예정인데, 이 전시회는 UN의 주관으로 "文明간의 對話(Dialogue among Civilizations)"란 주제로 열리는데 54개국에서 선출된 화가들이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의 夫君은 전 하트랜드 회장 이교락 동문(의대 59년졸)이며 재미동창회명예회장 吳仁錫 동문(법대 62졸)이 吳희백의 오빠이다.

(전시장 연락처 電話 212-645-2621, www.georgebills.com)

沈基昌 동문 (문리대 72년 졸)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역사회 봉사상 수상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시카고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沈基昌 동문(문리대 화학과 72년졸, MD) 이 시카고 아시아인아메리칸 연합이 수여하는 2003년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카고 아시아인아메리칸연합은 오는 3월 1일 하이아트 리젠시 오헤어에서 열리는 '제 20회 연례 구정축제' 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커뮤니티 봉사상은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번 수상자 중에서는 일리노이 주 재무관인 주디 바 토폰카가 아시아계가 아닌 사람으로 아시아인 환태평양



커뮤니티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랜드 아시아인상을 수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ABC 방송의 주디 수, 린다 유, NBC 방송의 제시타 칸, FOX 방송의 낸시 루 등 주요방송 앵커들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중앙일보 2003. 2. 21일자 성유나 기자보도 전재)

시카고 소식

동창회 1차이사회 개최

3월 22일(토) 오후 6시
Radisson Hotel

시카고지역동창회(회장 장기남, 문리대 62년입·우측BOX안 사진)는 금년 첫 이사회를 3월 22일(일) 오후 6시에 Radisson Hotel(4500 W. Touhy Ave. Lincolnwood IL 60646)에서 개최하오니 이사님들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카고 동창회 이사회는 열린 조직이므로 동창회 이사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모든 동문들을 환영하며 이 이사회에 참석하시면 화목하고 內實있게 활동하여 동문들의 발전을 상호 격려하는 시카고 동창회의 면모를 아시고 선후배 동문들과 交驩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02년 2월 28일 시카고 지역동창회 회장 장기남, 수석부회장 전현일, 부회장 강영국, 최희수 배상 (연락처 장기남 회장 630-321-1943)

2003년 행사 계획안



- ♣2월 9일(일) 오후 3시/ 제 1차 임원회 (장기남 회장 자택)
- ♣3월 22일(토) 오후 6시/ 제 1차 이사회 (Radisson Hotel)
- ♣4. 5월/ 제 2차 임원회 (추후 발표)
- ♣5월 24일(토)/ 춘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Golf course)
- ♣5월 30일-6월 2일/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 (L. A. Sheraton Hotel)
- ♣6월 21일(토)/ 하계 야유회 (작년과 같은 장소 Busse Forest Reserve #12)
- ♣8월/ 제 3차 임원회 (추후 발표)
- ♣9월 13일(토)/ 추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Golf course)
- ♣10월 4일(토)/ 제 2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Resort Hotel)
- ♣10월/ 제 4차 임원회 (추후 발표)
- ♣11월 29일(토)/ 총회 및 송년회 (Radisson Hotel)

張 총통 勤政殿 始務朝會 日誌

시카고 동창회 2003년 1차 임원회를 마치고

2001년 11월 大選에서 단독 출마, 完全한 득표로 大權을 잡은 張基南 22대 總統은 일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걸쳐 전임 총통하에서 온갖 고충과 힘겨운 수련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2002년 11월에 大望의 시카고 동창회장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臥薪嘗膽, 苦盡甘來, 鶴首苦待, 切齒痛心... 어찌하여 쟁취한 이 자리인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쓸쩍 넘어갈 수 있으랴? 풀어라! 풀어! 거두어들이기 위해선 마구 풀어야지! 일단은 私財를 털어 잔치를 벌리고, 手下의 사람들을 시켜 동네방네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占卦에서 얻은 吉卦인 舊正과 대보름의 딱 중간 날짜인 정월초 여드렛날 (2월 9일 토요일)에 Burr Ridge 大關門을 활짝 열고 잔치를 벌렸겠다. (돌아가실 땐 下賜品 선물꾸러미도 하나씩 안겨 주겠지?)

미시간 湖水도 공공 열어 불러 버린 嚴冬 雪寒 임에도 장총통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데 어디 빠질 소냐. 200명 잔치를 벌리기 전에 우선 밝힌 善良들만 불러서 내 속부터 결속을 해야지. 20명의 選良들 중 卅他한 4명을 제외한 전 임원, 간사, 고문과 가족들을 합치니 40여명의 만만찮은 잔치가 벌어졌겠다. 백리 이백리 길을 멀다 않고 달려온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서 張總統께서 關門을 들어서시는 분들에게 손수 만드신 따끈한 豆乳를 한잔씩 앞마이 하시하셨고, 임원들의 제1차 연두회의가 끝나

자마자 갖가지 산나물을 곁들인 정월대보름 잡곡밥이 상위에 수북히 차려졌다. 아울러, 아울러 말 씀이지만... 구수한 곰탕 된장 시락국은 옛날 長安 어디서도 맛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 眞味인데, 총통 영부인의 닷새동안의 정성의 작품이었으니 그럴 수 밖에. 한 그릇 더 얻어먹을래도 딴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하는 수 없이 주인장 덕 卍蔘酒만 축내는 일로 대신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張총통께서는 舍哺鼓腹하면 각료들의 기강이 헤이해 질까해서 두유 한잔만 하고 年頭敎書를 強行했지만, 시카고 동창회를 維新하고자 하는 決然한 意志를 담으신 그 연두교서는 길지요. 뒷층에서는 음식냄새가 솔솔 나지요. 작년 여름에 仙女들이 미역감던 저 아래 작은 연못에는 풍뎉 언 얼음을 둘러싼 나뭇꾼들이 지고가던 나뭇단에 불을 놓고 선녀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산삼씨를 뿌렸다면 그 언덕밭에서는 상상의 卍蔘香氣가 후각을 자극해 오지요... 하니, 독불장군으로 神을 거들먹이는 텍사스 牧童式은 아니지만, 이번 연두교서는 헛 땀!(듣는 사람 한사람 없이 시간만 허비한 셈이지요. 장총통님 미안합니다. 원체 요새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요)

비록 식곤증에 코를 골지라도 金剛山도 食後暴이라 했거늘, 시 장기는 졸음은 쏘았지만 집중력도 동남보내 결국 연두교서중엔 별

별일 없는 학과들을 나온 모두는 정신을 산발사발 절벽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딱 한사람 "별 별일없는 學科"를 나온 최희수 부회장(문리대 天文學科 출신)만이 라도 정신을 차리고 듣고 있었으니 망정 이렇게 日誌를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崔부총리의 承旨帖을 슬쩍 넘보았더니 장총통께서는 그래도 꽤나 중요한 施政方針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당일 承政院 日誌는 다음과 같습니다.

♣癸未年 동창회 시정방침
▶절대로 예산 赤字는 없도록 하겠다 (註釋 시카고 떡장사는 떡고물과는 절대로 관련이 없으며 동창회구좌 금고를 열자면 엄격한 保安措置를 통과해야 함).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임원들의 친선을 돈독히 할 골프모임 등을 여러번 갖겠다. 그래서 여기에 총통 각하와 忠誠을 맹세한 任員陣을 소개해 드린다. 회장 22대 總統 장기남, 수석 부회장 전현일, 부회장 최희수, 강영국, 총무 사(년)남순, 재무 김영, 간사 김용주, 이소정, 심명원, 김재환, 이정훈, 이형준, 감사 이철주, 한의일, 고문단 소진문, 박창만, 구경희, 김정주, 조대현, 한재은 (顧問추대는 전임 회장 중 직전사 王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여섯 분을 모시는 형식으로 하여 그 이전의 太上王들을 별체에 幽閉(?) 하셨습니다. 장총통 후임 회장님들은 顧問들 모시는 일에 고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2대 회장단에 徵集된 임원들은 本國大選에서 세대혁명의 時流를 빠져리게 체험한 총통 각하의 결단으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되고, 또한 女權革命의 大

勢를 반영하여 많은 여성동문들이 참여하여 우리 동창회의 女權運動의 진면모를 보였습니다.

▶교포사회를 위한 對外活動을 강화하겠다.

▶젊은 층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를 유도하겠다. 젊은 동문들 함께 잘해보십시오.

♣세부시정방침

▶11월에 있을 송년총회준비: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는 재미난 놀이 등을 구상하겠다. 예를 들면 슬라이드쇼 같은 것을 열어 同門들의 일생을 통하여 특기할 만한 사진을 모아 누구인지 알아맞추면 큰 상을 내리는 놀이를 하고 각 탁자마다 금년한해동안 가장 특이한 상황을 발표하게 하여 우수한 조에는 단체상을 수여한다. 이의 기획을 위하여 김용주 간사와 심명원 간사의 名演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사회: 3/23/2003(토) 오후 6시, Radisson Hotel로 변경 ▶2차 이사회: 10/4/2003(토) 오후 6시, Oak Brook Hills Resort

▶임원회: 4번, 자세한 내용은 임원들에게 추후 통보함

▶하계 Picnic: 6/21/2003(토) Busse Forest Reserve #12 (작년과 동일장소)

자세한 내용은 추후 News Letter로 통보 예정

▶춘계 Golf Outing: (5/24)로, Willow Crest G.C. (작년과 동일) 48명 선착순 제한이며 추계(9/13)도 상기와 동일, 48명 선착순

▶미주 총동창회 評議員 회의: 5/30/2003, LA Sheraton Hotel, 5명의 평의원 참석예정

▶신임이사 선출간: 새로이 25-

耳0명의 이사를 추대할 예정인데 회장의 연락을 받으신 경우 어느 동문이든 흔쾌히 수락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동창회 News Letters: 3월, 6월초, 11월초 3번. 예산 \$ 1,000

▶전년도 임원진으로부터 총무 인수인계 완료-사(년)남순 총무

▶재무보고 및 2003년도 시카고 지역동창회 예산초안 발표 심의-김영 총무의 발표중임

◀ 특기사항: 2002년에는 \$2,100이 赤子가 났다. 2003년도 수입(이사회비, 동창회 임원회비, 후원금) 등이 늘어나지 않는 한 또다시 적자가 예상된다. 집행부에서는 긴축예산을 집행하겠지만 많은 동문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대궐에서 못 곤 코를 나는 집에 와서 골다가 건너방으로 쫓겨났다. 코고는 일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많기도 하지만 그 중 특기할 만한 코골이들을 살펴보자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도 빠지지 않는다. 그의 코고는 강도는 35데시벨(공크리트 벽을 뚫을 때 나는 소리가 80-90dB 라 함) 에 달했다고 하니 지금도 내 귀엔 그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청나라 때의 학자 李棟은 걸어가면서 코를 골아 10리 밖에서도 그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조초기 세조 때의 洪允成 장군은 적과 싸우는 도중에 그의 코고는 소리가 우뢰와 같아서 적이 도망을 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내 코고는 소리는 謙卑인데... 天地神明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2003년 2월 10일 시카고 同門들께 강영국 배상)

모교소식

치과대학 金重守학장 취임 경영대 학장에 朴吾銖교수 盧慶秀대외협력본부장 선임 학술정보원장에 金炯周교수

지난 12월 28일 모교 치과대학 학장에 구강생리학교실 金重守교수가 취임했고 이어 1월 1일 모교 대외협력본부장에 행정대학원 盧慶秀교수, 학술정보원장에 전기·컴퓨터공학부 金炯周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1월 23일에는 경영대학 朴吾銖학장이

모교 SK경영관 국제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치대 金學장은 72년 치과대학을 졸업, 81년 모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치대 교무담당 부학장, 치의학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치의학연구소장을 겸임하게 된다.

경영대 朴學장은 75년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美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기획실장, 교보생명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盧대의협력본부장은 77년 美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英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94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美스탠포드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모교 국제지역원 국제협력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金學술정보원장은 82년 모교 공대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졸업했고 모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 부원장·컴퓨터공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치대 金重守학장



경영대 朴吾銖학장



盧慶秀대외협력본부장



金炯周학술정보원장

경영대학

북경대·듀크대와 학생 교류협정

경영대학(학장 朴吾銖)이 해외 명문대들과 잇달아 학생교류협정을 맺으며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영대는 지난 1월 8일 中북경대 경영대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모교 경영대 학부생 30명이 1년간, 석사과정 대학원생 5명이 6개월간 북경대 경영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체류하고

북경대 학생들도 모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북경대 이외에도 자오통대와 텐진대, 복단대 등 5개 대학과도 학생교류협정을 맺었다.

또 지난 1월 14일에는 경영학 석사(MBA) 과정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美듀크대와 북수학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북수학위 수여와 학생의 상호교류, 최고경영자과정 공동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선발된 경영대 학생 4명은 듀크대에서 3학기를 수강한 뒤 모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면 두 학교에서 모두 학위를 받게 된다.

아시아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매년 2명씩 교환하는 등 점차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듀크대와의 제휴협정을 통해 경영대는 세계 경영학 교육 분야에서 아시아의 중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시료만으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대 李潤植교수

단백질 분석 마이크로칩 개발



공대 응용화학부 李潤植교수(사진) 연구팀은 지난 1월 9일 학내벤처기업인 비드테크, 인텔리마이크로트와 공동으로 과학

기술부「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생체 샘플에서 목표 단백질(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신속하게 분리·정제·농축 및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 고분자 입자를 탑재한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마이크로칩은 목표 단백질만 분리해 농축하는 기술인「미세 고분자 입자를 이용한 생체 분자 분리법」을 집적한 것으로, 1백만분의 1리터 단위의 혈청

규장각

공간부족 해소 위해 증축기로

모교는 지난 12월 24일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학연구기관 규장각(관장 鄭玉子)을 증축기로 결정하고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2일 관악구청과 부지마련 협의를 마친 모교는

2000년 마련된 규장각 증축 계획에 따라 규장각 앞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1천8백여 평 정도의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공사는 오는 2005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모교병원

몽골 모자보건센터와 협약 체결

모교 병원(원장 朴容晔)은 지난 12월 30일 병원내 제1회의실에서 몽골 복지부 소속 모자보건센터와 모자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朴容晔원장과 몽골 모자보건센터 Gotov Choijamts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崔滉소아진료부원장과 몽골 복지부 Udval Natsag차관이 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서 체결로 두 병원은 의료인 및 의료 교류 등을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崔滉부원장은 「앞으로 모교 병원은 몽골 모자보건센터의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몽골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모자보건센터는 몽골

미술관

초대 관장에 李鍾祥교수 선임

지난 1월 23일 미술대학 동양화와 李鍾祥교수(사진)가 미술관 초대 관장에 선임됐다.

李관장은 63년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68년 모교에 부임했다.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李관장은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위원장, 중앙비엔날레 운영위원장, 광주비엔날레 운영위원·동아미술대전 운영위원·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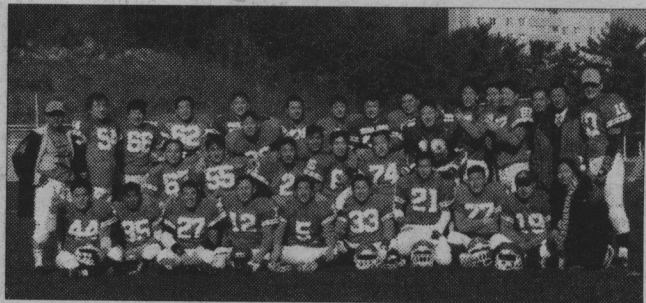
대지 3천8백89㎡, 연면적 4



천6백97㎡ 규모로 정문 부근에 지어질 미술관은 3월경 공사에 들어가 2005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미식축구부

OB·YB팀 각각 우승, 4강 진출



미식축구부(지도교수 黃禹錫) OB팀「Scholars」는 지난 1월 12일 부산대 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사회인미식축구선수권에서 지난해 서울지역 우승팀인 CAPS를 18대 12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감독상은 林廷祐(85년 農大卒·나무 돌 대표)등문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선수상과 우수수비상은 각각 許永鎮(91년 農生大卒·일송환경보건 이사)·金鎬宇(94년 農生大卒·한국안센)등문이 받았다. 윤성혜(화학과 4년)양은 우수매니저상을 수상했다.

또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YB팀「Green Terrors」는 지난 1월 4일 서울 효창구장에서 열린 전국대학미식축구선수권 4강전에서 동의대에 13대 18로 아쉽게 패해 결승진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Scholars는 지난 1월 19일 부산대 운동장에서 사회인리그의 우승팀과 대학리그의 우승팀과 맞붙어 왕중왕을 가리는「제8회 김치볼」에서 금오공대에 6대 7로 아쉽게 패했다. 이날 姜炯吉(99년 師大卒·모교 대학원 석사과정)등문이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鎬)

로 구성된 전시실은 일반인 및 어린이들의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구를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써 의료기구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정보센터 설립

센터장에 盧東榮교수

모교 병원은 지난 1월 1일 의료정보화 기획 및 제반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21세기 디지털병원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에 의료정보센터를 신설했다. 의료정보센터장에는 외과 盧東榮교수가 선임됐다.

의료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기술개발이 가능해지고, 의료정보화의 선도적 역할과 의료정보시스템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소속의 대표적인 진료 및 연구 기관으로, 모성과 어린이를 전문 진료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인체체험전시실 개관

모교 병원은 지난 12월 30일 병원내 의학박물관에 인체체험전시실의 개관식을 갖고 공식 개관했다. 인체체험전시실은 모교 병원사와 의료기구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된 기존 4개의 전시실과는 달리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시킴으로써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며 전문의학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체해부 단면, 인체 모형 조각 맞추기 등 6개 코스

2003년 癸未年 신년교례회 성황

林회장 “국민의 꿈·희망 구현할 책임 자각” 鄭총장 “시대의 변화압력을 도약의 계기로”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8일 정오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각계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蔡汝植·河永基·白樂院·白文基·姜信浩·李聖秀·鄭元植고문,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韓斗鎭·尹勤煥·朴晟容·李海遠·朴熙伯·李吉女·高炳佑·李世中·趙南煜·鄭宗澤·朴孺實·金宗鎬·金讚淑·孔大植·孫京植·許鎭奎·洪性大·卞柱仙·金學俊·金英大·吳明부회장, 朱成民감사, 李世震사무총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金秉順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상임이사 成百詮(공대)·李信子(미대)·辛東一(사대)·李禮植(약대)·朴英淑(CHCN)·金錫喜(APICP)동문, 본보 金哲洙·朴世熙·南仲九·李慶衡·金仁圭논설위원, 관악인문인회 曹炳喆·鄭興實·李昌炫간사위원, 수원지부 俞東濟회장, 제주지부 文大彈회장, 부전지부 金聖又회장, 고양·과주지부 朴釘회장,

모교 權彝赫·朴奉植·趙完圭전임 총장,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鉉대학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本報 鄭珉鎬(2000년 社會大卒)기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지난해는 모교 鄭雲燦총장이 취임하면서 모교에 변화와 개혁을 통한 발전기반이 새로 닦였으며, 동창회 제19대 회장단의 출범으로 동문사회의 결속을 다지며 모교 발전 지원역량을 강화해온 한 해였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교를 세계의 명문대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능력, 건강한 직업인 리의식, 유연한 사고와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실천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면서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서울大人像을 다함께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구현하는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며, 급변하는 국내외 상

황 속에서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지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모교 鄭雲燦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는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축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교수 처우 개선 및 더 나은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서울대 구성원들이 이웃의 행복에 공헌하도록 사회봉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이 모든 계획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질책과 고견을 경청하고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간은 양으로부터 짓, 옷, 양피지, 가죽, 약재 등 많은 것을 얻기까지 양떼의 습성을 파악해 사냥을 하고, 개를 길들여 야생의 양떼를 거느리도록 훈련을 시키는 등 오늘날의 목양 형태를 정착시키는데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올해가 양의 해인 만큼 이러한 집념과 발상의 전환을 거울삼아 이 시대의 격랑을 훌륭히 헤쳐나가며 우리들에게 가해지는 변화압력을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 한해동안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크게 공헌한 우수지부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해외지부로는 필리핀지부(회장 李舜培)와 일본 오사카지부(회장 朴泰正), 직장지부로는 중외 제약지부(회장 金智培)와 춘천 교대지부(회장 李亨峻)를 각각 선정했다.

또 단과대학(원)동창회 및 지방지부 회장을 역임한 裴命仁(법대)·李燦教(사대)·高炳佑(상대)·禹德昶(경영대학원)·趙容直(신문대학원)·李廷植(환경



林회장이 전임 단과대학(원) 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보람과 성취의 새해를 기원하며 시루떡 절단.

대학원)·李淳鍾(최고산업전략과정)·朴尙東(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吳熙弼(대전·충남지부)·白承權(부전지부)·南文祐(충남 홍성지부)·李進(마산지부)동문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한편 지난 12월 본회에 특지 장학금 2억원을 출연한 삼양정수공업 張學淳(50년 工大卒)회장과 「2002년 서울대 인명록」 발간에 공헌한 한우리정보인쇄 朴周然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상 동문들의 기념 사진 촬영 후 본회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權彝赫·朴奉植·趙完圭전임 총장,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이 새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시루떡을 절단

했다. 金在淳명예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오늘 단상 옆에 걸린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플래카드를 항상 되새기는 동문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5명의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신포니에타 단원들이 뛰어난 실력으로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으며, 각계 동문을 대표해 蔡汝植·河永基·鄭元植고문, 李世中·金宗鎬부회장, 趙淳 前서울시장, 환경부 金明子장관, 문리대64동기회 鄭昭盛회장, 吳熙弼 前대전·충남지부 회장, 제주지부 文大彈회장, 모교 鄭明熙부총장 등이 새해 덕담을 했다.

(表)

만평 **李元馥**

독점방지! 그릇을 바꾸어서!

경쟁력

PHIE '03

癸未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21일 (금)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3월 21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내 용 : ①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신입회원 환영
③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 사업계획 보고
④ 동창회보 PDF CD-ROM 시연회
⑤ 기타 안전 심의
- ◆회 비 : 3만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3차·관악회 86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동 정

수 상

▲李漢九(54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15일 프라자호텔에서 경복고 동창회가 수여하는 제12회 동문대상을 수상함.

▲劉東洙(56년 齒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20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서울고 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서울인상」을 수상함.

▲黃炳周(57년 獸醫大入·동영물산 회장)=지난 1월 7일 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高建(60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지난 1월 1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기고 동창회 총회 겸 신년교례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수상함.

▲司空晄(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15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회의실에서 고려대 정책대학원이 제정한 제2회 政策人大賞(경제부문)을 수상함.

▲車正一(65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월 20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서울고 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서울인상」을 수상함.

▲吳明(66년 工大卒·아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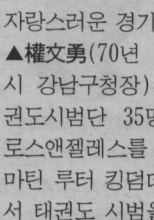
총장·本會 副會長)=지난 1월 15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회의실에서 고려대 정책대학원이 제정한 제2회 政策人大賞(행정부문)을 수상함.



▲金順杜(69년 獸醫大卒·한국야쿠르트 사장)=지난 1월 15일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제8회 연세 최고경영대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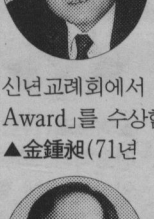
▲鄭雲燦(70년 商大卒·모교 총장)=지난 1월 1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기고 동창회 총회 겸 신년교례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수상함.



▲權文勇(70년 行大院卒·서울시 강남구청장)=최근 강남태권도시범단 35명과 함께 미국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제23회 마틴 루터 킹데이 퍼레이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등으로부터 수여하는 퍼바이저감사장을 받음.



▲文東厚(71년 法大卒·2002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지난 1월 29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파인트리클럽 신년교례회에서 「Best PTCian Award」를 수상함.



▲金鍾昶(71년 商大卒·중소기업은행장)=지난 1월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한국경제신문사



가 제정한 제12회 다산금융상의 CEO대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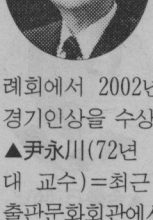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2월 23일 민주평통 서울지역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22년간 표창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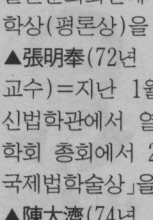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월 1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기고 동창회 총회 겸 신년교례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수상함.



▲尹永川(72년 文理大卒·인하대 교수)=최근 종로구 시간동출판문화회관에서 제7회 시와시학상(평론상)을 수상함.



▲張明奉(72년 法大卒·국민대 교수)=지난 1월 11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대한국제법학회 총회에서 2002년도 「女民 국제법학술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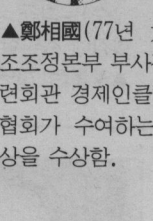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사장)=최근 롯데호텔에서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정한 제1회 올해의 테크노CEO상을 수상함.



▲元世勳(74년 法大卒·서울시 기획예산실장)=지난 12월 31일 정부로부터 황조 근정훈장을 받음.



▲鄭相國(77년 大學院卒·LG구조조정본부 부사장)=최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한국PR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PR인상을 수상함.



가 제정한 제12회 다산금융상의 CEO대상을 수상함.

편집주간석

장학사업에 따스한 손길을

배푸는 보람,
나누는 기쁨.
모교 후배·후학들에 대한 장학사업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는 「특지장학제」, 「기금 장학제」, 「재학생 결연사업」 등 맞춤형 장학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李錫玄(78년 法大卒·환경관리공단 이사장)=최근 서울YWCA 대강당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12회 환경인상 시상식에서 녹색공무원상을 수상함.

▲金彥鎬(78년 新大院卒·한길사 대표·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장)=최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중앙대 언론

동문회가 수여하는 중앙대 언론인상(출판부문)을 받음.

▲金泰植(80년 人文大卒·홍익대 교수)=지난 1월 21일 힐튼데이인서울호텔 무궁화홀에서 재단법인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이 수여하는 제1회 가야문화상을 수상함.

▲崔敬浩(89년 醫大卒·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지난해 11월 21일 미국 재활의학회 학

회장상을 수상함.

▲尹鐸(92년 醫大卒·모교 병원 신경정신과 전임의)=최근 국제정신분열병학회(ICO-SR)가 수여하는 올해의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됨.

▲朱鍵(97년 醫大卒·모교 병원 신경과 전임의)=지난 2월 1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뇌졸중학회(ASA) 회의에서 올해의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함.

▲羅鍾億(48기 AMP·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7일 통일문화 창달 및 남북경제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함.

이동·선임

의과대학 총동창회 소식

崔英子(66년졸, 美에일외대 교수) 동문 함춘의학상 수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27일 모교 연건 캠퍼스 함춘회관 3층 회의실에서 姜信浩 명예회장, 申相珍 대한의사협회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및 제 6회 함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李회장은 "여러분의 사랑과 결실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함춘회관이 선후배의 화합의 장이 되고 모교 사랑이 이곳의 자성과 어우러져 이 나라 의학교육을 지원하는 산실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크고 작은 부자용을 넣고 있는 의약분업의 골공은 정착과 의료시장 개방 등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동문 모두가 인간애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초심을 유지하여 의료계의 중심에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鍾郁 학장은 모교 현황보고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6백여 명의 교수들의 노력으로 2001년 SCI에 등재된 논문 수가 6백 61편에 이르렀다"며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4개의 전공과목을 신설하고, 학부 및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등 모교가 21세기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朴容旻 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들 상대로 다양한 교육을 펼쳤으며, 앞으로 열악했던 소아병동을 신설하고, 응급실 규모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월 4일 준공식을 가진 분당 모교병원에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함춘의학상 결과보고에 이어 이날 시상식에서 연구업적부문에 울산의대 金建彥 교수는 "뇌혈류 결핍환자에서 혈류개통 수술 후 뇌대사기능회전의 양성자 자기 공명 분광을 이용한 연구"와 "동맥경화의 초기 세포변화에 관한 실험 동물에서의 전자현미경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서 내경동맥 내막절제술이 뇌 대사물질의 변화 또는 호전을 가져오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또 李相道 교수는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의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질환의 발병기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崔英子 교수는 "한국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분자역학적 고찰"에서 Westernized Lifestyle(생활양식 변동)과 유방암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특히 金建彥 동문은 이날 함춘회관 의 케이크 커팅식이 거행됐으며, 참석 건립에 보태달라며 5백 만원의 기금을 李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상자들

의 케이크 커팅식이 거행됐으며, 참석자들은 2층에 마련된 연회실에서 만찬을 즐겼다.

함춘회관에서 「함춘의학상」 시상



좌로부터 姜信浩 명예회장, 金建彥·崔英子 동문, 李회장·李上道 동문, 李鍾郁 학장, 朴容旻 병원장.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동문들과 친구들의 크고 작은 활동소식을 기다립니다.

▲鄭元植(54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本會顧問)=지난 1월 7일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함.

▲李炳漢(56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13~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東方詩畫學會 제3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임됨.

▲張忠植(52년 師大入·단국대 이사장)=지난 1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에 임명됨.

▲南時旭(58년 文理大卒·前문화일보 사장)=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瑛教(59년 師大卒·前한국방송통신대 총장)=지난 1월 25일 강원 원주 운곡회관에서 열린 「耘谷元天錫학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선출됨.

▲鄭世煜(60년 法大卒·명지대 명예교수)=최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에 취임함.

▲李教善(62년 文理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지난 12월 1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에 선임

▲姜慶植(61년 法大卒·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지난 1월 13일 재정경제원 과 기획예산처·예산청 등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퇴직공무원 모임인 「예우회」의 초대 회장에 선출됨.

▲柳時烈(61년 法大卒·前전국은행연합회장)=최근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임함.

▲全哲煥(61년 商大卒·前한국은행 총재)=지난 1월 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선출됨.

▲李炯九(63년 文理大卒·前노동부 장관)=지난 1월 7일 세종대 정보통신대학원장 및 소프트웨어대학원장에 선임됨.

▲金大中(63년 法大卒·조선일보 편집인)=지난 1월 10일 조선일보 워싱턴지사의 이사가자로 선임됨.

▲崔仁勳(64년 工大卒·고려대 교수)=최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재료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李泰鎭(65년 文理大卒·모교 국사학과 교수)=최근 열린 역사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됨.

▲吳明(66년 工大卒·아주대 총장·本會 副會長)=지난 1월 20일 63빌딩에서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됨.

▲李憲宰(66년 法大卒·前재정경제부 장관)=최근 상장·등록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이

▲崔仁基(66년 法大卒·법무법인 세종 고문)=지난 1월 13일 호남대 제7대 총장에 선임됨.

▲金榮石(66년 商大卒·SK그룹 금융부문 부회장)=지난 1월 15일 우석대 제8대 총장에 선임됨.

▲朴仁國(67년 師大卒·동국대 교수)=지난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함.

▲徐正燾(67년 醫大卒·성균관대 의대 학장)=지난 1월 8일 성균관대 제18대 총장에 선임됨.

▲姜正模(69년 農大卒·경희대 교수)=최근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에 취임함.

▲李景台(70년 商大卒·OECD

▲金新顯(62년 美大卒·전업미술가협회 회원)=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본 동경 문예춘추 화랑에서 여섯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李時伯(62년 獸醫大卒·모교 보건학과 교수·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장)=지난 1월 23~25일 말레이시아 팔라뽀푸르에서 열린 「국제가족보건복지연맹 아시아태평양양지역 2003년도 실행 이사회」에 아태지역 회장자격으로 참가함.

▲金正吉(62년 音大卒·前한국작곡가협회장·音大同窓會長)=지난 12월 5~8일 제주시 문화회관에서 제주시로부터 위촉받아 작곡한 오페라 「백록담」이 제주시립관현악단과 제주시립합창단에 의해 공연됨.

▲康容植(63년 法大卒·국회 사무총장)=지난 1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국회 사진전을 개최함.

▲河良淑(71년 看護大卒·모교 간호학과 교수)=지난 1월 25일 이화여대 합천관에서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 제5대 회장에 취임함.

▲崔秉瑄(71년 工大卒·경원대 교수)=지난 1월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3대 원장에 선임됨.

▲金東根(73년 農大卒·前농림부 차관)=지난 1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李相哲(73년 文理大卒·조선일보 출판국장)=최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총회에서 제50대 총무에 선출됨.

▲李揆邦(73년 商大卒·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최근 제10대 국토연구원장에 선임됨.

▲姜天錫(76년 社會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10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에 선임됨.

▲南重秀(79년 經營大卒·KT 재무실장)=지난 1월 15일 KTF와 KT아이컴의 통합법인 사장에 선임됨.

▲權相禧(85년 社會大卒·前재

▲李在祥(65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지난 1월 16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갑기념 논문집 「형사판례의 연구 I, II」의 봉정식을 가짐.

▲李熙勳(65년 醫大卒·순천향대 부설 현암신장연구소장)=지난 1월 18~19일 신라호텔에서 「제4회 국제 당뇨병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在昌(66년 工大卒·前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지난 1월 30일 웨스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제3회 국방포럼에서 「선진국방 발전을 위한 한국국방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연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1월 23일 경기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환경미화원 대표자와 선형 환경미화원을 초청, 격려극과 선물을 증정함.

▲李來妍(25기 AMP·현대통신 산업 회장)=최근 열린 대한야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추대돼 지난 1월 23일 신라호텔에서 취임식을 가짐.

▲崔烈坤(6기 ACAD·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 회장)=지난 1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함.

▲金鍾久(47기 ACAD·前국방홍보원장)=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문을 연 한국미디어정책연구원 초대 소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劉載天(61년 文理大卒·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지난 1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정부의 사회·교육정책」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가짐.

모교 의대 趙斗英명예교수

정신분석 분야 「시고니賞」 수상

지난 1월 24일 미국 뉴욕 맨하탄 「the Essex House」에서 모교 의대 趙斗英(61년 醫大卒·조두영신경외과의원장) 명예교수(사진)가 미주, 유럽 등지 이외의 나라 학자로는 처음으로, 정신분석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02년도 「시고니賞」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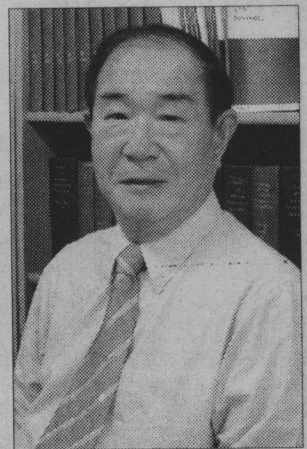
지난 1990년 창설된 「시고니賞(the Sigourney Award)」은 미국의 여류 정신과 사회사업가인 Mary Sigourney여사가 유언으로 남긴 기금에서 매년 정신분석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국제정신분석학회(the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가 수여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정신분석학이

융성한 북미, 남미, 유럽에서 각 한 사람(또는 단체)씩 총 3명을 시상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나머지 지역에서 한 사람(또는 단체)을 선정한 것. 따라서 미주 유럽 지역 이외의 학자로는 처음으로 趙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

시고니賞의 수상자 선정기준은 지난 10년간 정신분석에 관한 학술활동이 활발했고, 정신분석분야에 공헌도가 뛰어난 개인이나 단체로서,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수여하는 여러 상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어, 정신분석학 분야의 노벨상에 비유된다.

지난해 8월말 모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년퇴임한 趙교수는 정신분석학의 증가(宗



家)라 할 수 있는 프로이드학파의 거두로 불린다. 그는 지난 1985년 국내 최초로 정신과학과 행동학을 연계한 저서 「임상행동과학」을 발간하는 등 독창적인 저서들을 펴냈으며, 이상과 손잡음 등의 작품을 분석하는 등 정신분석학과 문학, 예술 등을 접목하는 독특한 논문을 다수 저술했다.

(雙)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재미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이종도(\$200, 공대66입) 김상호(\$250, 사범대 56졸) 오길평(\$500, 치대 61입) 노명호(\$3,000/ 종신이사비, 공대 61입) 서동영(\$200, 사범대 60입) 제영혜(\$200, 가정대 71입) 정원훈(250 상대38입) 김환자(\$300, 약대 61입)	7	4,600
02		정유석(200 의대 58입)	1	300
03	샌프란시스코	강상욱(\$500, 상대 63입) 뉴욕지부동창회(\$2,000) 이준행(\$500, 공대 47입) 김상각(\$200, 상대 57입) 이운순(\$200, 의대 52입) 김용재(\$200, 의대 60입) 최영태(\$200, 문리대 67입) 이진구(\$300, 농대 60입) 이재덕(\$200, 법대 60입) 한창섭(\$200, 문리대 57입) 김용학(\$300, 법대 70입)	11	4,800
04	뉴욕(NY, NJ, PA 일부 CT)	임춘수(\$500, 의대 57입) 김정주(\$200, 문리대 64졸) 박영규(\$300, 농대 57입) 송재현(\$200, 의대 48입) 김기태(\$200, 의대 58졸) 박창만(\$200, 공대 56입) 정승규(\$300, 공대 60입) 조대현(\$200, 공대 57입) 소진문(\$300, 치대 58년입) 장기남(\$1,000, 문리대 62입) 최호승(\$200 사범대 58입) 전현일(\$200, 농대 62입) 강영국(\$300, 수의대 67입)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 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염무광(500 문리대 61입)	20	16,6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워싱턴 DC 지역동창회(\$1,200) 변만식(\$200, 사대 49입) 신상균(\$500, 의대 52입) 이영목(\$250, 공대 59입) 권철수(\$500, 의대 68입) 박윤수(종신이사비 \$3,000, 문리대 48입)	6	5,650
06	워싱턴 DC (MD, VA)	김성열(\$200, 치대 67졸) 허윤희(250 사범대 57입)	2	450
07	워싱턴주	김정훈(\$200, 공대 46입) 휴스턴 지역동창회(\$400)	2	600
08	휴스턴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권승림(\$200, 공대 52입)	1	200
11	조지아	조지아지부(\$500) 김용건(\$200, 문리대 48입)	2	700
12	아리조나	오덕겸(\$500, 의대 58입)	1	500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김상순(200 상대 67입)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오인석(\$3,000/ 종신이사비, 법대 58입)	1	3,000
19	필라델피아	이상봉(\$200, 문리대 65입) 현재원(\$200, 공대 60입) 정정수(200 의대 56입)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900) 김제호(\$200, 상대 56입) 강경식(\$500, 문리대 55입) 윤상래(\$200, 수의대 62입)	3	600
20	뉴잉글랜드		4	1,800
21	하트랜드	이상문(\$200, 상대 57입)	1	200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일반 이사 합계			60	\$40,400
종신 이사 합계			4	\$12,000
총 계			64 명	\$52,400

재미서울대총동창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달 납입현황

(2002년 7월 01일~2003년 2월 28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2), 오흥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이용락
박윤수

300달러이상

워싱턴DC지역동창회(\$1,200)
임춘수(\$500)
강상욱(\$500) 박영규(\$300)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900)
뉴욕지부동창회(\$2000)
신상균(\$500) 오길평(\$500)
이준행(\$500) 정승규(\$300)
조지아지부(\$500)
오덕겸 \$500 권철수(\$500)
휴스턴 지역동창회(\$400)
박윤수(\$3,000종신이사비)

300달러이하

김정훈(\$200) 이종도(\$200) 김정주(\$200)
김상호(\$250) 송재현(\$200) 변만식(\$200)
이영목(\$250) 김성열(\$200) 김제호(\$200)
김상각(\$200) 이운순(\$200) 김용재(\$200)
최영태(\$200) 이진구(\$300) 이재덕(\$200)
한창섭(\$200) 김기태(\$200) 조대현(\$200)
박창만(\$200) 이상봉(\$200) 이상문(\$200)
김기태(\$200) 박창만(\$200)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242	<p>임화식(치대 59입) 김지익(의대 44입)김정빈(공대 66입) 이종도(공대 66입) 김종원(\$100 추가구독료, 문리대 69입) 김달준(약대 50입) 전낙관(사대 60입) 박해란(음대 73입) 이봉수(수의대 66입) 김진숙(간호대 72입)</p> <p>김현겸(치대 5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성호(법대 64입) 정민영(의대 51입) 고영련(사범대 57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전병희(약대 55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최왕욱(공대 69입) 이체진(문리대 55입) 박진득(농대 67입) 송정자(의대 73입) 윤용길(공대 55입) 최재윤(문리대 54입) 김태윤(법대 53입, 전년도 납입, 추가납입) 이창신(법대 57입) 김선기(법대 59입) 이상욱(치대 66입) 민희숙(간호대 74입) 정만영(약대 66입) 김창택(약대 53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최희봉(상대 56입) 김진호(약대 64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선주(사범대 49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중훈(치대 74입) 전희택(의대 60입) 박남수(문리대 74입) 김재무(상대 58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장동호(공대 53입) 남홍범(공대 59입) 김정화(미대 63입) 김성환(의대 71입) 김광은(음대 56입) 주 훈(음대 ?) 김준일(공대 62입) 김종표(법대 58입) 신정식(상대 64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현직(농대 58입) 박제인(약대 60입) 이경규(농대 69입) 이송희(간호대 47입) 김두휘(문리대 58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영배(미대 61입) 이기재(사범대 52입) 이종희(공대 53입) 박제덕(상대 52입) 강봉창(약대 50입) 선우동훈(문리대 54입) 권처균(공대 51입) 김순길(법대 ?) 서재섭(상대 53입) 신광재(공대 73입) 김태호(상대 57입)</p> <p>이 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경탁(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입)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곽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 신정현(미대 59입) 서관석(미대 67입) 이양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창실(\$100 약대 44년입) 최예실(치대 45년입) 강항운(농대 52년입) 김옥권(미대 76년입) 배효식(문리대 52년입) 이명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범식(공대 61입) 최명룡(음대 ?)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혜숙(음대 67입) 이효경(치대 63입) 홍훈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범대 58입) 이정욱(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봉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입) 고재천(공대 57입) 김동익(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p> <p>조만연(상대 58입) 김혜인(가정대 69입) 김종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서동영(사범대 60입) 이동휘(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입) 배재호(공대 58입) 나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황석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순(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입) 김생철(법대 54입) 김성복(공대 59입) 임선영(음대 57입) 안승호(공대 71입) 이완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범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방현(사범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 고유규(의대 67입) 김윤결(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의용(상대 58입) 김삼익(공대 46입) 조성시(공대 60입) 박명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신동국(수의대 76입) 김정협(치대 59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명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은(상대 54입) 이권택(경영대 72입) 서경만(의대 51입) 윤경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순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상에(의대 60입) 신하경(약대 56입) 김정에(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혜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엽(공대 57입) 김선주(사범대 50입)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 강신호(사범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범대 69입)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중(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입)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성호(의대 72입)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윤(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입)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군빈(법대 56입) 이남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입) 이건설(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입)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임하(치대 56입) 박혜옥(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옥(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규(공대 66입) 최숙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륜(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지(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p>	
02	1	김항자(약대 61입)	
03	새프랑스시큐	4	
04	뉴욕 (NY, NJ, PA일부CT)	209	<p>박세록(의대 57입)황동하(의대 65입) 정조운(공대 60입) 홍경삼(문리대 61입)</p> <p>이희자(간호대 70입) 전용상(\$100, 공대 52입) 이종대(약대 65입) 박경룡(약대 63입) 김영일(\$100, 약대 58입) 우관혜(음대 63입)</p> <p>엄종열(미대 65입) 송기인(의대 60입) 고강희(약대 56입) 송병문(공대 66입) 윤병우(문리대 67입)</p> <p>강충무(\$100, 사범대 65입) 김종현(법대 61입) 김창수(약대 64입) 이영재(상대 58입)</p> <p>조달훈(사범대 66입) 최태식(\$50, 의대 74입) 이진구(농대 60입) 허병렬(사범대 42입) 이준행(공대 47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승규(의대 55입)</p> <p>김순자(\$50, 약대 63입) 김영만(상대 59입) 윤인숙(간호대 63입) 현영수(음대 61입) 임건식(음대 54입)</p> <p>최일단(미대 55입) 손주현(의대 61입) 석창호(의대 66입) 김문경(약대 65입) 김재민(약대 57입) 조희재(음대 58입) 강 효(음대 63입) 손영철(공대 68입)</p> <p>이태상(문리대 55입) 유숙현(간호대 61입) 강영선(공대 50입) 홍선경(의대 58입) 한용진(미대 56입) 문미애(미대 56입) 정연희(미대 64입) 변영석(의대 65입)</p> <p>신남철(인문대 81입) 김현기(공대 62입) 민준기(\$50 공대 59입) 배상규(약대 61입) 김학수(상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윤영섭(의대 63입) 최영혜(간호대 64입)</p> <p>김태호(약대 63입) 서종웅(약대 70입) 조상근(법대 69입) 박대규(법대?) 윤준식(법대 58입) 유택상(문리대 58입) 박경원(미대 66입) 박성일(상대 58입)</p> <p>박진수(의대 58입) 강우정(음대 62입)</p> <p>조시래(문리대 57입)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명해(의대 79입)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애(간호대 66입)</p> <p>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입) 곽선섭(공대 61입)</p> <p>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균(사범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우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p> <p>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명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p> <p>소무영(상대 65입)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입)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입) 서병선(음대 65입)</p> <p>송웅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입)</p> <p>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입)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학자(간호대 63입) 임석태(법대 48입)</p> <p>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전재우(공대 75입) 이종성(의대 58입)</p> <p>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입) 남상대(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범대 54입)</p> <p>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입)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p> <p>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범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설(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경호(의대 66입)</p> <p>라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입) 이승호(상대 63입)</p> <p>이경림(상대 64입) 조종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입)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p> <p>김광호(의대 72입) 정일화(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입) 조규웅(의대 66입) 이정은(의대 58입) 박순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최수용(상대 55입)</p> <p>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제(의대 68입) 전성진(사범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서상철(의대 56입)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p> <p>윤정욱(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범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유호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p> <p>김주은(공대 71입) 강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덕(법대 60입) 권후열(상대 73입) 최한선(공대 56입) 이충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범대 44입)</p> <p>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강석권(법대 61입) 이관미(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입)</p> <p>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호(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휘웅(문리대 64입)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p> <p>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입) 한용호(법대 52입)</p> <p>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p>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번호	지부명	명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42 임춘수(의대 57입) 김인섭(음대 ?) 임이섭(\$100, 미대 54입) 이승훈(\$50, 공대 66입) 김이순(공대 56입) 주명순(간호대 64입) 민영기(\$120, 공대 65입) 이지연(의대 68입) 정광훈(공대 64입) 정경근(농대 59입) 신석균(문리대 54입) 박창만(공대 56입) 문조훈(약대 62입) 광영로(수의대 76입) 임영신(의대 52입) 정승규(공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 이범세(의대 57입) 최희수(\$100, 문리대 67입) 김현규(의대 47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환수(사대 65입) 이범구(공대 59입) 이소희(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작년도 선남) 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입) 이태석(의대 67년입)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진정(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호윤(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행서(공대 69입) 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작년도 선남,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근(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행(의대 63입) 박숙(의대 64입) 이선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수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락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의대 58입) 진보린(의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박준철(공대 62입) 김현욱(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중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홍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중(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운(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수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입) 도상탁(\$100, 의대 56년입) 최애옥(간호대 47입)
06	워싱턴 DC (MD, VA)	53 정두현(의대 55입) 김진은(사대 ?) 한의생(수의대 60입) 문성길(의대 63입) 윤만중(의대 53입) 김재동(인문대 70입) 김영기(법대 50입) 임필순(의대 54입) 진금섭(\$61, 약대 57입) 김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윤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입)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무환(법대 57년입) 소숙영(간호대 64년입)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군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균(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박홍(의대 45입) 이정의(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평일(농대 69입) 장병균(사회과학대 76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락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명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유개일(약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전병택(상대 69입) 이경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4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
07	워싱턴주 (WA)	14 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용(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윤희(사범대 57입)
08	휴스턴 (HOUSTON)	18 육복수(공대 69입) 이신광(약대 77입) 전중희(공대 56입)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균(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이은설(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09	달라스 (DOLLAS)	3 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10	미네소타 (MN)	10 강선명(상대 48입) 권승림(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학주(치대 59입)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 조형준(문리대 62입)
11	조지아 (GA)	13 백낙영(상대 61입) 계광무(공대 63입) 김용자(사범대 64입) 김용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만복(문리대 72입) 유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장병권(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유민자(음대 65입)
12	아리조나(AZ)	7 장원석(농대 68입) 오덕경(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13	유타 (UT)	3 김 연(\$50 문리대 54입) 이정민(문리대 48입) 김인기(문리대 58입)
14	하와이 (HI)	9 임양수(\$50 사범대 62입) 김승태(의대 63입) 구자현(사범대 53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김동립(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15	오레곤 (OR)	11 이철민(공대 50입) 조형원(수의대 55입) 최태인(사범대 59입) 성성모(사범대 67입) 한영준(사범대 ?) 김상만(음대 46입) 나제관(공대 72입) 장유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수(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박성주(\$120, 공대 47입), 왕경자(음대 54입), 배병욱(음대 58입), 류광현(추가 \$100, 문리대 58입), 김봉전(\$100, 공대 68입)
16	기타 (서부)	15 최덕상(농대 73입) 이학은(약대 57입) 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 (자연대 72입) 이순환(의대 53입) 김갑건(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6 이수정(음대 88입) 한용현(의대 48입) 박경희(음대 57입) 박종선(공대 60입) 이종진(공대 55입) 김주응(의대 63입) 윤영옥(의대 57년입) 김정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립(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19	필라델피아(PA)	41 이정필(의대 58입) 김재술(약대 62입) 이행우(? 50입) 김용국(의대 58입) 김사영(약대 56입) 주기목(수의대 68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약대 55입) 정학량(약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생(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만택(의대 58입) 최 환(공대 68입)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화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년입) 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삼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옥(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중규(치대 69입) 진병학(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염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 이은희(\$50, 의대 54입) 도운희(농대 61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석(문리대 70입) 박현자(음대 62입)
20	뉴잉글랜드 (MA, RI)	27 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종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종건(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김호영(약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일(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오계숙(미대 59입) 배규태(상대 61입) 설원종(의대 60입) 박해송(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21	하트랜드	15 박세화(의대 76년입) 지일성(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희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오태요(의대 56입)
22	펜실베이니아	1 이수경(자연대 81입)
23	케롤라이나	4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특별기부금		
계		858 52,491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2003년 2월 28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 정태 (의대 57입) \$1000
- 이용락 (공대 53졸) \$1000

300달러 이상

- 노명호(공대 61입) \$500
- 조상근(법대 69입) \$300
- 조시호(문리대 59입) \$500
- 정정수 (의대 56입) \$500
-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300달러 이하

- 임춘수(의대 57입) \$200
- 고영련(사범대 57입) \$100
- 윤재명(의대 65입) \$200
- 이경림(상대 64입) \$200
- 이소정 (음대 84입) \$200
-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 장병건 (보건대학원64졸) \$25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3년 2월 28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고영련(100) 노명호(500)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 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4	359,1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조상근(300) 이경림(200) 김기훈(250) 최수용(5,000) 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상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연(100) 허병렬(100) 심기려(100) 유진형(50)	41	92,1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임춘수(200) 정태(1000)이용락(1000) 이소정(20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9	7,100
06	워싱턴 DC(MD, VA)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지역동창회(3,990)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유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근(50) 이선명(50)	11	16,200
07	워싱턴주(WA)	윤재명(200)	1	200
08	휴스턴(HOUSTON, TX)	조시호(500) 강영빈(500)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6	1,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250) 장병건(100)	2	35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2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원회(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144	511,643.33

약정하신 동문들

* 불드체는 금회계년도 납입자임.
*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합계		151 명	730,643.33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유료광고 안내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현재 매월 5,600부가 인쇄되어 북미주(미국, 캐나다)와 母國에도 매월 배포되고 있습니다. 재미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이나 관심있는 업체들에게 유료광고를 접수, 게재합니다. 광고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흑백광고

전면: 한번에 \$500, 일년에 \$5,000
 1/2면: 한번에 \$300, 일년에 \$3,000
 1/4면: 한번에 \$175, 일년에 \$1,750
 1/8면: 한번에 \$100, 일년에 \$1,000

◆ 직종별 분류광고

한번에 4줄당 \$25, 추가 한줄에 \$5, 일년에 \$300+\$

◆ 칼라광고

뒤표지 전면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한번에 \$1,000

◆ 전문광고문안이나 내용의 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정함

◆ 광고문의처: 재미서울대동창회 회보편집실 전화 847-981-1464, 팩스 847-981-1465

재미서울대동창회보 광고위원장 강영국(수의대 67년입)

재미 동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김종올 B:914-714-0587 F:914-686-0186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남가주	임낙균 B:213-365-9669 H:310-530-4353	백옥자 B:213-999-5911 F:213-365-1686
샌프란시스코	정조웅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장기남 F:312-357-1002 H:630-321-1943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이영목 B:703-578-6806 H:703-748-0269	유홍렬 B:202-283-5247 H:703-204-2798
워싱턴주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고희선 H:425-787-029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이재용 E-mail: Paul.j.lee@earthlink.net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필라델피아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신영근 F:610-917-7005 H:610-519-969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이 욱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이의병 B:416-385-0107 H:416-250-6908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유동성 H:604-435-8937	김현승 B:604-415-9011 H:604-945-56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김명호
로키아운틴즈	김봉진 C:303-229-3332 F:303-623-2910	
오하이오	최인갑 F:614-447-3844 H:614-436-5780	

동문 사업체 안내

<p>강리</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인)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장</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총 60인) (212)564-2255 New York, NY</p> <p>주인/의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인)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상 48인) 이경림(상 64인)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인) (212)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인)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희(상 55인)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상 68인)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공익사업</p> <p>IBECONS INT L 김재철(공대 58인) (212)460-2815 New York, NY</p> <p>교역</p> <p>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인)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인)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인)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인)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주/음주</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인)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약 50인)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인)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인)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법포시</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인) (718)463-3500 Flushing, NY</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문 60줄) 창업 (773)463 7756</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인) (212)869-7000 New York, NY</p> <p>병원 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인) (718)768-1264 Brooklyn, NY</p> <p>법사/의사</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인) (330)534-8383 Hubbard, OH</p> <p>병원 소아과</p> <p>Rim and Sul, MDPC 임준수(의 57인) (313)882-2922 Grosse Pointe.</p> <p>병원 심장내과</p> <p>Kenneth Song 송승호(의 58인) (212)423-4817 New York, NY</p> <p>병원 외과</p> <p>Chang Ho Suk 석창호(의 66인) (718)461-6212 Flushing, NY</p> <p>병원 치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인) (201)871-0007 Tenafly, NJ</p> <p>보석</p> <p>Gold Plus 서재숙(골 65인) (212)354-8988 New York, NY</p> <p>보험</p> <p>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인) (213)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인)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인)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법 60인)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법 60인)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최양부동산) 최 호(문 61인)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총 64인)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인)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엄무광(문 65줄)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총대 58인) (206)972-3675 Everett, WA</p> <p>설계</p>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줄)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인) (718)392-0111 L.I.C. NY</p>	<p>음식</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광(약 50인)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수/물류</p> <p>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인) (592)467-5455 Artesia, CA</p> <p>음주</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인)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줄)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류/기구</p> <p>MASH 심상은(상 54인)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외부</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총 70인)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인)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정세완(총 69인) (201)722-4796 River Vale, NJ</p> <p>선물점</p> <p>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인터넷 사업</p> <p>Aladdin USA 이형렬(문 79인) (323)692-9888 LA, CA</p> <p>사무지 부물</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인) (310)327-1006 Gardena, CA</p> <p>잡지</p> <p>Amkor Anam 정종택(상 61인)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원(문리 73인) (613)265-1121 Smithtown, NY</p> <p>박서</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인) (718)358-0538 Flushing, NY</p> <p>간식점</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줄)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루스 악곡/시호 한의원 박경룡(약대 63인) (718)733-1399 Bronx, NY</p> <p>박장점</p> <p>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인·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화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골 65인)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줄)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미동부 지역 최대 골프전문 백화점 그룹

New York Golf 센터 그룹

회장 이 전 구 / Rhee Jun Koo

Golf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쥐옥 뽑으시고
백스윙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공에 정성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범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 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동에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여덟개 기회있고 일흔두번 기대있네
조금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드니 뺨크빨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하나
전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아닌 엽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거리 남은거리
수학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하고 내려치면
공이란 놈 날라가서 그린 위에 꽂힌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놓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보세
자기 것을 계산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고
백에라도 단 한 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에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이뤄
기적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여덟 홀 한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뚝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 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 듯이 없어졌네

9. 가정

하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백년을 살아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마소
천사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우리새끼
저녁밥상 차려놓고 아빠오기 기다리네

시인 이 전 구

New York • Manhattan • Chelsea Piers • Long Island • Port Chester • Valley Stream • Nanuet
New Jersey • Fort Lee • East Hanover • Saddle Brook • Waldwick • Edison • Springfield

131 W. 35th.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Fax. 212-244-6941 www.nygolfcenter.com